

연구보고 2010-06

아동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욕구  
-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심층분석 -

육아정책연구소 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 심층분석 보고서이다. 전국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2009년에는 전국 15,000가구 중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및 기타 관련 요구 등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조사 자료는 미취학·취학 아동의 전반적인 보육·교육 이용 현황과 욕구를 아동 연령과 지역, 모취업 및 가구소득 수준, 서비스 이용 형태 등에 따라 분석하여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그러나 조사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부모나 아동의 제 특성별 차이를 기술 분석이나 교차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였고, 이용기관의 유형이나 비용, 시간 등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시도하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사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보다 심도있는 정책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본보고서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자료를 추가 분석하였다. 주제는 총 9개로 7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였으며, 각 주제별 원고는 독립적 논문 형태로 구성되었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응답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추후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조사 자료로 비교 분석한 논문도 포함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실증적인 결과를 토대로 아동 양육에 취약한 가정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보육·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향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보다 상세한 정보 생산을 통하여 국가 통계 생산에 기여하고 정부가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의 편리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정부, 현장 관계자 및 학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 요 약

### 1. 연구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2009년도 보육·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보고서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들은 심층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아동양육 및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보육·교육환경 개선 정책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함.
- 보고서는 9개의 독립적 논문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소득수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특히 2004년 보육실태조사 자료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이후에 변화된 경향성을 파악함.
  - 둘째, 취업모를 대상으로 취업 유형, 일일 근로시간, 수입 등 특성별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차이를 분석함.
  - 셋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가정 등 취약가정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및 비용을 분석함.
  - 넷째, 육아지원 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다섯째, 2009년 조사와 2010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응답자의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차이 등 정책효과를 추정함.
  - 여섯째,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일곱째,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정책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수혜가 보육정책 만족도나 자녀 추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여덟째, 미취학 아동의 학원 중심 시간제 사교육 이용 및 비용 실태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아홉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실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2. 소득수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 차이 분석

-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 결정요인으로 작용함. 이의 아동 연령, 모의 취업상태가 중요한 변수임.
- 2004년 대비 소득 수준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나타나는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차이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남. 부모부담 완화 정책으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보장되었으나 제공 받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적 측면에서는 격차가 있음을 의미함.
  -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에서 모두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이용률도 높으며, 소득 4분위부터 유치원 이용이, 소득 7분위부터는 보육·교육유사기관 이용이 그 이전 소득계층과 차이 있게 증가함.
- 서비스 이용비용에서도 부모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
  - 2004년에 비하여 개인당 비용이 영아는 약 3만3천원 정도가 감소하였으나 유아는 3만8천원 정도 증가하였음. 비용 지원이 특기활동 증가 등으로 오히려 더 많은 비용 지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나타냄.
  - 2004년보다 소득수준별 격차가 더욱 증가하였음. 2004년에는 1분위 대비 10분위 비용 비율이 영아는 2.5배, 유아는 1.9이었으나 2009년에는 4.2배, 3.6배로 격차가 더 커졌음. 소득은 가구당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4.5%의 설명력을 가짐.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서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시설을 일정부분 확대해야 함.

## 3. 취업모의 취업특성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 차이 분석

- 영유아를 둔 취업모의 평균연령은 33.9세이고, 37.2%가 고졸, 54.7%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임. 사무직이 30%, 서비스 및 판매직이 26%, 전문직·관리직 13%정도임.
  - 일일근무시간은 5~9시간이 71.9%였으나 10시간 이상도 18.6%이었음.
  - 취업모 월소득은 100~200만원이 35%로 다수이고, 가구소득 평균은 384.5만원임.

- 취업모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이 높고 소득이 높고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불만률이 높았음.
  - 아이돌보미 제도에 대해서 농·임·수산업 종사자나 단순노무직의 인지도가 낮았음.
  - 소득이 높은 취업모일수록 국·공립시설 확충과 보육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보육비 지원확대와 양육비 현금지원에 대한 희망이 큼.
  - 소득이 높고 전문직일수록 자녀를 맡길만한 곳이 없다는 인식이 많았고 조부모에 양육을 의지하는 비율이 높음.
-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관련해 보면, 소득이 낮고 근로시간이 길며 단순노무직일수록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함.
  - 수입이 높고 근무시간이 길수록 육아지원기관 시설설비에 대해 불만족이 큼
  -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은 평균 216,000원 정도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은 더 큼. 가구소득대비 육아서비스 이용 비용의 비율은 평균 7.1%임.
- 정책적 시사점으로, 저소득층 영아에 대한 가정내 육아지원 확대를 제안하며, 상업지역, 관광지 관련 사업 종사 취업모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말 및 야간보육을 확충하고 대체교사 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 4. 취약가정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 취약가정 영유아 자녀는 일반 비취약가정에 비하여 개인양육지원과 사교육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기관 이용률이 더 높음.
  -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취약가정 전체 평균 53.2%이며, 조부모 26.2%, 유치원과 방문학습지가 각 19.0%의 순으로 나타남.
  - 취약가정내 이용률에 차이가 있어, 보육시설은 한부모 가정 영유아가 가장 높고, 질환장애아는 유아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음. 다문화가정과 농어촌 가정은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아 유치원 이용률은 높음.
  - 개인양육지원의 경우 취약가정에서는 동거 조부모의 지원, 비취약가정에서는 비동거 조부모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음. 특히 한부모가정과 질환장애아 가정에

서 조부모 양육지원이 높음.

- 개인(사)교육의 이용은 전반적으로 비취약가정보다 낮음. 다문화가정의 개인교육 학습지 이용률이 가장 저조함. 그러나 농어촌과 질환장애아의 학습지 이용률이 전체 평균을 상회함.

□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비용에 있어서도 취약가정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 총 보육·교육비용은 다문화가정이 12만4천원으로 가장 낮고, 농어촌가정과 질환장애아동의 경우 각 월36만5천원, 32만2천원으로 높게 조사됨.
-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평균 10.7%로, 다문화가정 6.4%를 제외하고는 비취약가구 12.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취약가정의 낮은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부담체감도는 높을 것으로 보임.

□ 취약가정은 보육료·교육비 비용 감면 비율이 높고, 이는 정부 보육료지원 정책 만족도와 기관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녀양육과 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5. 보육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서비스 이용자의 의도된 선택에 따른 평가의 결과로서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와 일정 부분 연관된 평가임

- 부모가 프로그램, 시설환경 등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과 보육시설 이용 사유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함.
- 서비스 제공 목표와 부모의 기대간의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인 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서비스 측정기준(SERVQUAL) 기준에 따라 분석한 보육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보 제공, 대응성, 안전성임.

- 보육 서비스 품질 요인은 보육계획, 급·간 식단, 가정통신문 등(정보제공), 보육시설의 등·하원시간의 적절성(대응성), 평가인증 통과 여부와 운영위원회 구성(안전성), 근거리에 위치한 양질의 보육시설(접근성)임.



- 보육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보 제공이며, 대응성과 안전성 순서임. 접근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만족은 개별 시설의 서비스 과정에 대한 정보와 신뢰, 부모가 원하는 시간대 운영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분석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보육시설은 수요자인 부모와 더 잦은 접촉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보육서비스 만족도에 신뢰성과 안전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 관련 정보를 더 많이 부모에게 제공해야 함.
  - 보육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육 서비스의 운영 방법이 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아질 때 보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 수준 역시 일정 부분 향상될 것임

## 6. 보육서비스 이용의 지속성과 정책 변화에 따른 이용 만족도 변화: 2009~2010

- 2010년 현재 1~5세의 2009년에 이용하던 동일 보육시설 지속 이용 비율은 61% 수준이며 다니던 보육시설을 옮기는 경우에도 이린이집에 대한 직접적 불만보다는 이사, 접근성, 반 편성 등 물리적 이유가 대부분임.
- 보육시설에 계속 다니는 아동 부모의 만족도가 다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으로 옮긴 부모 만족도보다 높으며, 회귀분석 결과 이동에는 부모 참여 만족도와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정책에 대한 일반적 만족도는 감면 대상자의 만족 정도만 2.54점에서 2.61점으로 조금 높아졌고, 미지원자의 만족정도는 2.13점에서 1.92점으로 낮아졌음
  - 보육료 감면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2009년 7월 확대된 신규 감면 대상 지원자의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지원자의 만족정도가 낮아진 것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작용으로 풀이되어 정책의 결과로 파악됨.
- 평가인증이 보육시설의 전반적 수준을 올리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2009년 조사에서는 평가인증 시설이라고 인식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간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 인식은 13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평가인증 시설이 보육시설의 60%를 넘는 2010년 조사에서는 평가인증 시설이라고 인식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간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 인식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 항목은 교재교구 및 장비 하나이었음.

## 7.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보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서비스 이용에는 친조모 동거, 외조모 동거, 거주지역, 가구소득, 모연령, 모취업, 아동 출생순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 영아와 유아를 따로 분석할 경우 모연령은 유아만,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은 영아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남.
  - 2004년과 2009년 모두 모취업과 출생순위가 공통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혈연과 비혈연을 합한 비공식 보육서비스 전체와 유사함.
-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은 가구원수, 자녀수, 아동성별 요인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모 연령과 모 근로시간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남.
- 혈연 및 비혈연 보육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혈연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은 가구소득과 모 근로시간, 반일제 이상 기관이용이,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은 가구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남.
- 공식보육서비스 이용 보육료 지원과 같이 증가하는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보육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자녀 연령, 모취업 여부, 가구소득 등 지원대상을 면밀히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혈연 비공식보육서비스 제공자인 조부모 교육 및 지원책 마련이 요구됨.

## 8.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추가 출산 의사

- 전반적으로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도는 높지 않은데, 정책의 수혜를 받는 경우 정책 인지율은 높아짐.
  - 차등지원은 수혜 유경험 및 현 수혜자가 차이 없이 72~73% 수준이고 수혜 경험이 없으면 37.9%로 낮아지고 전혀 모른다는 비율도 14% 수준임.
-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수혜자가 비수혜자보다 높음
-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이 추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수혜 자체보다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작용함
  - 한 자녀를 둔 경우,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는 비용 지원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비용 지원정책 만족도는 두 번째 자녀 추가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즉,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간접적 효과는 유의함. 이는 2009년 기준 분석결과와도 같은 결과임.
  - 특히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수혜가 이러한 인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를 통하여 세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보육료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가져야 함.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일반적 만족도에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수혜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요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의 추진이 요구됨.
  - 보육지원 정책은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모 등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사람들은 중심으로 각각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보육비용 지원을 통한 출산 촉진은 한자녀 가정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9.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및 비용 분석

-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은 점차 보편화, 저연령화 되고 있고, 부모는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아동의 교육비로 지출하려는 경향을 보임.

- 사교육 참여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미취학 아동 8만 5천원, 취학아동 32만 3천원으로 나타났으나, 미취학 아동의 반일제 이상 기관이용 비용을 고려하면 총비용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지원되는 금액만큼을 사교육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보임.
-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반일제 기관이용 여부, 모취업여부, 거주지역 규모, 월 가구소득, 자녀수와 출생순위, 아동연령임.
  - 영아의 경우 반일제 기관 이용이 사교육 이용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유아는 반일제 기관 이용이 사교육 이용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도시 거주가 읍면지역보다 자녀 사교육 이용 가능성이 높음.
  - 월 가구소득과 아동연령은 시간제 사교육 이용과 정적 관계를 보이며, 자녀수가 많고 출생순위가 후순위일수록 사교육 이용 가능성이 낮아짐.
-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 영향요인은 반일제 기관이용 여부, 가구소득, 자녀수, 아동연령, 이용프로그램 수와 이용시간임.
  - 반일제 기관 이용은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월 가구소득과 아동연령은 시간제 사교육 지출비용과 정적 관계를 보이며, 자녀수는 부적 영향력을 나타냄.
- 부모교육을 통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사교육 남용의 위험성과 학습 이외의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한편, 부모들이 원하는 경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특기적성이 저렴한 비용으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0.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 학부모들이 자녀수가 적을수록 학원, 개인, 그룹과의 지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에서 모두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이용률도 높음
- 아동의 연령과 출생순위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음.

- 출생순위가 이룰수록 방과후 학원 이용이 많았으며 이용하는 시간제 프로그램 수, 비용이 모두 높았음.
-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서도 연령이 어릴수록 방과후 학교를 이용하였으나,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학원이나, 예체능 및 교과목 지도를 받았음.
- 가구소득 대비 총 비용 비율이 낮을수록, 주택이 자가일수록 학원 이용률이 높음.
  - 고소득층 가구이며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학원을 더 많이 이용함.
-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참여 프로그램 수와 지불 비용이 많은 반면,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모 자녀인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방과후에 많은 시간을 학원이나 개인, 그룹과외지도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적은 자녀수를 출산해서 가장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추세를 읽을 수 있었음.
- 유아기에서 갓 벗어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문제는 발달상으로 중요한 문제임. 학교가 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을 구성하여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보육을 책임지도록 지원해줄 정책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11. 맺는말

- 9개의 주제에 대한 분석결과, 대체로 소득수준이 영유아 공식·비공식 서비스와 사교육, 초등학생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나 비용에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며, 취약계층이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비교적 높으나 정부의 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는 낮고 비용 지원정책에 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존재하지만 간접적이고 매우 미약함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정부정책은 정책이나 서비스 만족도로 반영되고 있음도 나타났음.
- 구체적 자료들은 앞으로 보육 정책 등 관련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함.



# 차 례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	2
3. 분석 방법 .....	3
4. 보고서 구성 .....	4
<b>II. 소득수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 차이 분석(서문희)</b> .....	<b>5</b>
1. 분석 배경 및 내용 .....	5
2. 분석 방법 .....	7
3. 분석 결과 .....	8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23
<b>III. 취업모의 취업특성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김은설)</b> .....	<b>26</b>
1. 분석 배경 및 내용 .....	26
2. 분석 방법 .....	27
3. 분석 결과 .....	28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52
<b>IV. 취약가정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최윤경)</b> .....	<b>56</b>
1. 분석 배경 및 내용 .....	56
2. 분석 방법 .....	57
3. 분석 결과 .....	58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75
<b>V. 보육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최유진)</b> .....	<b>78</b>
1. 분석 배경 및 내용 .....	78
2. 분석 방법 .....	81
3. 분석 결과 .....	83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93

<b>VI. 보육서비스 이용의 지속성과 정책 변화에 따른 이용 만족도 변화(서문희·최혜선) … 98</b>	
1. 분석 배경 및 내용 ……………	98
2. 분석 방법 ……………	100
3. 분석 결과 ……………	101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114
<b>VII. 혈연·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최혜선) …………… 116</b>	
1. 분석 배경 및 내용 ……………	116
2. 분석 방법 ……………	118
3. 분석 결과 ……………	120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133
<b>VIII.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추가출산 의사(서문희) …………… 136</b>	
1. 분석 배경 및 내용 ……………	136
2. 분석 방법 ……………	139
3. 분석 결과 ……………	140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149
<b>IX.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및 비용 분석(안재진) …………… 151</b>	
1. 분석 배경 및 내용 ……………	151
2. 연구 방법 ……………	153
3. 분석 결과 ……………	155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167
<b>X.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김진경) …………… 170</b>	
1. 분석 배경 및 내용 ……………	170
2. 분석 방법 ……………	172
3. 분석 결과 ……………	173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183
<b>XI. 맺는 말 …………… 186</b>	
<b>부 록 …………… 189</b>	



## 표 차 례

〈표 II-2- 1〉 소득분위별 소득 상한기준 및 평균 가구소득 .....	7
〈표 II-3- 1〉 영아와 유아의 모취업여부 및 소득분위별 육아지원기관 이용률 .....	8
〈표 II-3- 2〉 영아와 유아의 모취업여부 및 소득분위별 혈연 이용률 .....	9
〈표 II-3- 3〉 영아와 유아의 모취업여부 및 소득분위별 비혈연 이용률 .....	10
〈표 II-3- 4〉 영아와 유아의 모취업여부 및 소득분위별 보육시설 이용률 .....	11
〈표 II-3- 5〉 영아와 유아의 모취업여부 및 소득분위별 유치원과 반일제학원 이용률 .....	12
〈표 II-3- 6〉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다분류 로지스틱 회귀분석 .....	14
〈표 II-3- 7〉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에 대한 다분류 회귀분석 .....	15
〈표 II-3- 8〉 영아와 유아의 소득분위별 총 보육교육 비용 .....	17
〈표 II-3- 9〉 영아와 유아의 모취업여부 및 소득분위별 총 보육교육 비용 .....	17
〈표 II-3-10〉 영유아 총 이용 비용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결과 .....	18
〈표 II-3-11〉 소득대비 영유아 총 이용 비용 비율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결과 .....	19
〈표 II-3-12〉 영아·유아의 소득분위별 기관 이용 비용 및 소득대비 비율 비교 ..	20
〈표 II-3-13〉 영아·유아 모취업여부 및 소득분위별 기관 이용 비용 및 소득대비 비율 .....	20
〈표 II-3-14〉 영유아 기관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결과 ..	21
〈표 II-3-15〉 영유아 총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의 소득대비 비율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결과 .....	21
〈표 II-3-16〉 유아의 사교육유형 및 모취업여부별 사교육비 평균 .....	22
〈표 II-3-17〉 영유아 사교육 이용비용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	23
〈표 III-2- 1〉 취업모의 취업 특성을 보여주는 변수의 구분 .....	28
〈표 III-3- 1〉 영유아자녀를 둔 취업모의 평균 연령 .....	29
〈표 III-3- 2〉 영유아자녀를 둔 취업모의 학력 및 거주 지역 분포 .....	29
〈표 III-3- 3〉 영유아자녀를 둔 취업모의 직업, 종사상 위치 및 근로 형태 .....	30
〈표 III-3- 4〉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월수입 .....	31
〈표 III-3- 5〉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 가구의 월 평균 가구소득 .....	31

〈표 III-3- 6〉	취업모가 느끼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 .....	33
〈표 III-3- 7〉	취업모가 의존하는 육아 조연자 .....	34
〈표 III-3- 8〉	취업모 가구의 육아분담 .....	35
〈표 III-3- 9〉	정부 육아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취업모의 만족도 .....	36
〈표 III-3-10〉	육아비용지원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37
〈표 III-3-11〉	아이돌보미 제도에 대한 취업모의 인지도 .....	38
〈표 III-3-12〉	취업모의 희망 육아지원정책 .....	39
〈표 III-3-13〉	아이를 맡길 만한 주변 보육시설의 수적 충분성 .....	40
〈표 III-3-14〉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충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40
〈표 III-3-15〉	낮시간 동안 주로 돌보는 사람 .....	41
〈표 III-3-16〉	최초 이용 육아지원기관 .....	42
〈표 III-3-17〉	현재 이용 육아지원기관 .....	43
〈표 III-3-18〉	육아지원서비스의 주간 이용 유형 .....	44
〈표 III-3-19〉	육아지원기관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 .....	45
〈표 III-3-20〉	육아지원기관 시작시간 만족도 .....	46
〈표 III-3-21〉	육아지원기관 종료시간 만족도 .....	47
〈표 III-3-22〉	국가보조금 수혜 현황 .....	48
〈표 III-3-23〉	국가보조금 수혜 근거 .....	49
〈표 III-3-24〉	보육·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감 정도 .....	50
〈표 III-3-25〉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 .....	51
〈표 III-3-26〉	가구소득 대비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의 비율 .....	52
〈표 IV-3- 1〉	취약가정 유형 분류 .....	58
〈표 IV-3- 2〉	취약가정의 경제적 특성 .....	60
〈표 IV-3- 3〉	취약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61
〈표 IV-3- 4〉	취약가정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 (중복응답) .....	63
〈표 IV-3- 5〉	낮시간 동안 주로 돌보는 사람 .....	66
〈표 IV-3- 6〉	현재 아이가 다니는 보육·교육 기관 유형 .....	67
〈표 IV-3- 7〉	현재 이용기관 선택 이유: 1순위 .....	68
〈표 IV-3- 8〉	선호하는 보육·교육 시설 유형 .....	68
〈표 IV-3- 9〉	보육·교육 비용 현황 .....	69
〈표 IV-3-10〉	취약가정 정부지원정책 인지도 .....	72

〈표 IV-3-11〉	기관 및 정부정책 만족도 .....	73
〈표 IV-3-12〉	만족도 개선 사항 (1순위) .....	74
〈표 V-2- 1〉	서비스 질 평가 기준 .....	82
〈표 V-2- 2〉	주요 측정지표 .....	83
〈표 V-3- 1〉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의 서비스 만족도 .....	84
〈표 V-3- 2〉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의 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	84
〈표 V-3- 3〉	보육시설 선택 이유별 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	86
〈표 V-3- 4〉	보육시설 이용 이유별 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	87
〈표 V-3- 5〉	부모 평가에 근거한 보육 서비스 품질 요인 분석 .....	88
〈표 V-3- 6〉	정보 제공 도움 .....	89
〈표 V-3- 7〉	주변에 충분한 보육시설 .....	89
〈표 V-3- 8〉	양질의 보육시설 충분성 .....	90
〈표 V-3- 9〉	등원 시간 적절성 .....	90
〈표 V-3-10〉	하원 시간 적절성 .....	91
〈표 V-3-11〉	평가인증 관련 시설 이용 여부 .....	91
〈표 V-3-12〉	운영위원회 설치 시설 이용 여부 .....	92
〈표 V-3-13〉	보육 서비스 부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93
〈표 V-3-14〉	보육 서비스 부모 만족도가 재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 .....	93
〈표 VI-3- 1〉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보육시설 지속 이용 여부 .....	101
〈표 VI-3- 2〉	아동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변경 및 중단 이유 .....	102
〈표 VI-3- 3〉	이동기관별 보육시설 이용 변경 및 중단 이유 .....	103
〈표 VI-3- 4〉	보육료 지원상태 변화 및 비교: 2009-2010 .....	104
〈표 VI-3- 5〉	보육료 지원상태별 보육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 비교: 2009-2010 ..	105
〈표 VI-3- 6〉	보육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 변화 및 비교: 2009-2010 .....	105
〈표 VI-3- 7〉	보육시설 지속 이용 상태별 만족도: 2010 .....	106
〈표 VI-3- 8〉	보육시설 지속 이용자 만족도 변화: 2009-2010 .....	108
〈표 VI-3- 9〉	보육시설 지속여부별 2009년도 보육 이용 만족도 .....	109
〈표 VI-3-10〉	보육시설 계속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	110
〈표 VI-3-11〉	연차별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참여 및 인증률(2010. 3) .....	111
〈표 VI-3-12〉	2005~2009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참여율, 인증률(2010. 3) .....	111
〈표 VI-3-13〉	보육료 지원 상태별 평가인증 인지: 2009~2010 .....	112

〈표 VI-3-14〉	보육료 지원 상태별 평가인증 선택시 활용: 2009-2010	112
〈표 VI-3-15〉	평가인증 상태별 보육 이용 만족도 :2009	113
〈표 VI-3-16〉	평가인증 상태별 보육 이용 만족도: 2010	113
〈표 VII-2- 1〉	주요 변수	119
〈표 VII-3- 1〉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영유아 특성	121
〈표 VII-3- 2〉	조부모 동거율	121
〈표 VII-3- 3〉	모 근로형태	122
〈표 VII-3- 4〉	모 1주일 평균 근무시간	122
〈표 VII-3- 5〉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24
〈표 VII-3- 6〉	영아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	125
〈표 VII-3- 7〉	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27
〈표 VII-3- 8〉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28
〈표 VII-3- 9〉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30
〈표 VII-3-10〉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131
〈표 VII-3-11〉	혈연 보육서비스 비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32
〈표 VII-3-12〉	비혈연 보육서비스 비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33
〈표 VIII-3- 1〉	조사대상별 비용 지원 정책 인지	140
〈표 VIII-3- 2〉	영유아 부모 중 비용 지원 수혜여부별 정책 인지	141
〈표 VIII-3- 3〉	영유아 부모 중 수혜자의 가정경제 지원 효과	142
〈표 VIII-3- 4〉	영유아 가구 제 특성별 정부의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정책 만족여부	143
〈표 VIII-3- 5〉	영유아 부모 중 수혜여부별 비용 지원정책 만족도	144
〈표 VIII-3- 6〉	보육시설 유형 및 지원여부별 월평균 보육 비용	145
〈표 VIII-3- 7〉	일반적 비용 지원정책 만족도 영향 요인 다중회귀분석	145
〈표 VIII-3- 8〉	추가출산 의사에 대한 회귀분석	147
〈표 IX-2- 1〉	주요 변수의 구성	155
〈표 IX-3- 1〉	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참여시간	156
〈표 IX-3- 2〉	지역규모별 사교육 참여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57
〈표 IX-3- 3〉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158

〈표 IX-3- 4〉	소득수준별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158
〈표 IX-3- 5〉	주요 변수의 특성1 .....	160
〈표 IX-3- 6〉	주요 변수의 특성2 .....	161
〈표 IX-3- 7〉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162
〈표 IX-3- 8〉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전체) .....	164
〈표 IX-3- 9〉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영아 .....	166
〈표 IX-3-10〉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유아 .....	167
〈표 X-3- 1〉	방과 후 학교, 학원 이용 및 미이용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 .....	174
〈표 X-3- 2〉	특기교육 프로그램 수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	176
〈표 X-3- 3〉	특기교육 프로그램 이용 시간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	176
〈표 X-3- 4〉	특기교육 프로그램 이용 비용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	177
〈표 X-3- 5〉	예체능 지도 수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	178
〈표 X-3- 6〉	예체능 지도 시간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	178
〈표 X-3- 7〉	예체능 지도 비용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	179
〈표 X-3- 8〉	교과목 과외지도 수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	180
〈표 X-3- 9〉	교과목 과외지도 시간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	180
〈표 X-3-10〉	교과목 과외지도 비용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	181
〈표 X-3-11〉	학습지 지도 수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	181
〈표 X-3-12〉	학습지 지도 시간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	182
〈표 X-3-13〉	학습지 지도 비용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 .....	182

## 그 립 차 례

[그림 II-3-1]	취업모 영아와 유아의 소득분위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	10
[그림 II-3-2]	소득분위별 영아와 유아 보육시설 이용률 .....	13
[그림 II-3-3]	소득분위별 유아 유치원과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률 .....	13
[그림 II-3-4]	소득분위별 총 보육교육비용 비용 및 소득대비 비율 .....	18
[그림 IV-3-1]	취약가정 유형별 월 가구소득 및 지출 .....	59

[그림 IV-3-2]	취약가정 유형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비율 .....	63
[그림 IV-3-3]	취약가정 유형별 기관서비스 이용 비율 .....	65
[그림 IV-3-4]	영유아 취약가정 유형별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비율 비교 .....	65
[그림 IV-3-5]	취약가정 유형별 보육·교육 총 비용 .....	70
[그림 IV-3-6]	취약가정 유형별 월 평균 보육·교육비 및 정부 지원금 .....	70
[그림 IV-3-7]	취약가정 유형별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총 비용 비율 .....	71
[그림 VI-3-1]	보육시설 지속 이용자 만족도 변화: 2009~2010 .....	107
[그림 VIII-3-1]	보육·교육 비용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안다는 비율 .....	140
[그림 VIII-3-2]	추가출산 의사에 대한 회귀분석 .....	148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정책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정확성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성공적 수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각종 법에는 관련 정보의 주기적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 실시를 명문화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통계를 생산하여야 하므로 조사 대상 표본 규모가 크고 조사내용이 포괄적이므로 일반적으로 일차 분석을 하여 개략적인 윤곽을 파악한 뒤에 다시 이차 분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획득한 가치 있는 국가통계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이다.

본 연구도 이런 실태조사 분석 경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 가구조사와 보육시설조사로 구성된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매5년마다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다.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는 이러한 법에 근거를 둔 두 번째 조사이다.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는 전국 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조사원이 전국 15,000가구 중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항,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육 이용 및 기타 관련 요구 등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를 아동의 연령과 지역, 모취업 여부, 소득 수준, 서비스 이용 형태 등에 따라 분석하여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의 전반적인 보육·교육 이용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조사된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부모나 아동의 제 특성별 차이를 평면적으로 기술분석이나 교차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였고 이용기관의 유형이나 비용, 시간 등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시도하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09년도에 실시한 보육·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자녀 양육과 육아지원기관 이용 및 비용 관련요인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시사점

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을 선정하여 기초보고서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실태나 특성, 결정요인 등을 찾아내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2009년과 2010년 추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 이용의 지속성과 조사 실시 후의 정책 변화에 따른 이용만족도를 추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실증적인 결과를 토대로, 아동 양육에 취약한 가정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보육·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향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행된 본 분석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수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2004년 보육실태조사 자료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이후에 변화된 경향성을 파악한다.

둘째, 취업모를 대상으로 취업 유형, 일일 근로시간, 수입 등 특성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아동가정 등 취약가정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및 비용을 분석한다.

넷째, 육아지원 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다섯째, 2009년 조사와 2010년 추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일한 응답자의 보육정책 인식 및 만족도 차이를 알아본다.

여섯째,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일곱째,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정책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수혜가 보육정책 만족도나 자녀 추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여덟째, 미취학 아동의 학원 중심 시간제 사교육 이용 및 비용 실태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아홉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실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 3. 연구 방법

#### 가. 분석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sup>1)</sup> 자료이다. 이 조사 자료의 특성을 간략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09년 3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이고, 조사 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90%의 조사구이다. 표본의 규모는 전국 257개 조사구로 조사구당 약 60가구를 조사하며 조사구 내 아동가구를 파악하여 조사함으로써 총 5,000 가구를 조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sup>2)</sup> 이는 아동 보육수요율을 40%로 상정할 경우 허용오차 0.01318을 만족하는 규모이다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3단계로 층화 추출된 표본조사구는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110개, 중소도시 103개, 읍·면 44개이며, 주택특성별로는 주택 등 일반 조사구가 105개, 아파트 조사구가 152개이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110개, 중소도시 103개, 읍·면 44개이며, 주택특성별로는 주택 등 일반 조사구가 105개, 아파트 조사구가 152개이다.

조사 결과 약 14,732가구를 판별 조사하여 초등학교이하 아동이 있는 총 4,901가구에서 7,455명 아동을 조사하였다. 영유가가 있는 가구는 2,554가구이고 아동수는 3,303명이며, 초등학교 아동이 있는 가구는 2,347가구이고 아동수는 4,152명이다. 즉, 조사대상 아동규모는 2009년 출생아를 포함하여 영아 1,742명, 유아 1,561명으로 영유아 총 3,303명이고, 초등학교는 4,152명으로 총 7,455명이다.

조사 내용은 판별조사는 가구원 연령 및 조사대상 아동 여부로 간략하게 실시되었으며, 가구조사표는 가구원 특성, 가구의 제 특성, 보육·교육 및 정책 관련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고, 아동조사표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과 요구, 특기교육·보습학원 이용, 현재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현재 개별·그룹지도 또는 학습지 활용 교육,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육 이용 및 요구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1) 이 조사 방법, 내용 및 주요 내용은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를 참조.

2) 2004년 조사는 200개 조사구에서 12,000가구가 목표이었으나 2009년 조사는 출산수준의 저하로 조사대상 아동 확보를 위하여 표본가구수를 확대하였음.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당시 보육시설에 다니는 1~4세 아동 부모 63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전화조사 자료는 2009년 조사 동일 아동 조사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 나. 분석 방법

SPSS 12.0을 이용하여 연구의 내용에 따라 가장 적절한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초보고서에서 분석하지 않았던 변수에 대한 빈도 및 평균을 산출하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 t검정, 분산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변수 간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장별로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4. 보고서 구성

이 보고서는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보고서 발간 이후에 본 보고서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 분석한 보고서로 총 9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 각 주제별 원고는 독립적 논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로 집필자가 독립적으로 분석, 작성하였다. 연구의 일환으로 2009년 실태조사 응답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추후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조사자료와 비교 분석하였으나, 이 조사 결과 역시 제6장에 하나의 논문으로 작성, 수록하였다.

## Ⅱ. 소득수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 차이 분석

서 문 회<sup>3)</sup>

### 1. 분석 배경 및 내용

우리나라 가족 지원 정책에서 보육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1980년대에 많은 국가들이 일정한 수준의 출산력 유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 친화적' 정책이라는 용어의 확산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채택하고, 근로자와 동시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및 자녀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 현금 지원정책보다는 보육시설 중심의 정책을 펴온 것으로 평가된다.

보육정책은 민간 위주의 공급 구조에서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줄여주는데 집중하였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보육 및 유아교육 재정은 크게 확충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보육료, 유아교육비에 대한 부모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보육정책이 영유아 가족관련 정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확대에 영유아 정책이 집중되어 있으며, 보육 이외의 가족 지원정책 수준은 낮다. 2009년 7월에 양육수당제도를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상이 차상위계층 이하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 결과 2010년 현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50%가 전액 지원 대상이고 그 이외 약 20%의 아동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보육료나 유아교육에 투자하는 중앙정부 예산도 3조 이상에 이른다. 정부는 보육료나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표방한 전액 지원이란 정부가 정한 일정한 수준의 보육료 지원단가의 전액을 의미한다. 이 지원 단가는 보육의 경우에는 종일제비용이지만 유아교육에서는 반일제 비용으로 종일제 이용자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종일제로 적용되는 보육의 경우도 기본보조금이 지원되는 영아나 국공립 법인 등 인건

---

3)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비 지원시설을 이용 시에는 보육료가 되지만, 민간 시설을 다니는 유아는 실제 보육료의 일부에 불과하여 추가 부담이 요구된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정해진 보육료 이외에도 기타 필요경비라고 하여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이유는 부모의 빈곤 등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정책으로 부모 소득에 의한 아동의 보육 및 교육기회의 제한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제 중산층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 소득간의 보육, 유아교육 서비스의 이용의 차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004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서문희 외, 2009)을 보면 제도권 육아지원서비스로 중요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자는 부모 특성별로 차이가 있다. 즉, 보육시설은 저소득층이 선호하고 유치원과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다. 보육시설 이용률은 소득분위별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으나, 1분위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10분위가 가장 낮다.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모가 취업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높아진다. 유치원은 보육시설과는 반대로 1, 2분위에 비하여 9, 10분위의 이용률이 13%p 높은데,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읍·면에 비하여 중소도시가 이용률이 높았다. 한편 반일제이상 미술학원 이용은 유치원과 유사하게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가 이용률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높은 경향이며, 읍·면에 비하여 도시가 이용률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 이용률에서는 소득계층별 격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용 기관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접근기회보다는 부모의 투자 비용과 이에 따른 내용과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보육시설은 취업모가 선호하는 선택의 여지가 제한적인 기관이라는 점에서 질적 수준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글은 부모 소득계층에 따라 아동의 육아지원 기관 서비스 이용과 비용에 관한 차이를 규명하고, 2004년과 비교하여 그간의 변화를 밝히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첫째, 부모 소득계층에 따라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소득수준이 육아지원기관별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어떠한가를 알아보려고 하며, 둘째, 부모 소득계층에 따라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 기관 서비스 비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소득수준이 육아지원 기관 서비스 비용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분석 방법

### 가. 분석 자료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 중 영유아가 있는 2,459가구에 대한 가구조사 자료와 3,301명의 영유아 개별조사 자료이다.

### 나. 사용 변수 및 분석방법

분석에 이용된 종속변수는 아동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및 이에 따른 비용이고, 독립변수는 가구의 소득수준 10분위와 부모의 사회적 특성 및 거주지역이다.

<표 II-2-1>은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소득인정액 10분위 상한액과 각 분위별 평균소득, 그리고 2009년 통계청이 조사한 근로자 소득 10분위별 평균 경상소득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보다 본 조사가구의 평균소득이 다소 낮다. 이는 본 자료가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통계청 조사 대상 가구보다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표 II-2-1> 소득분위별 소득 상한기준 및 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소득 분위	1	2	3	4	5	6	7	8	9	10	전체
상한기준	120	154	190	216	249	218	332	400	518	-	-
가구 월 평균소득	85.2	143.5	174.0	201.8	228.7	263.4	308.3	370.4	462.0	708.4	297.2
근로자가구 경상소득(2009) <sup>1)</sup>	98.0	173.0	224.0	268.0	313.0	357.0	408.0	474.0	574.0	844.0	373.0

자료: 1) 통계청. KOSIS.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서의 집단간 차이 및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방법으로는 변량분석과 OLS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가구 소득 변수가 영유아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드는 총 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순차(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소득분위 이외에 모의 취업여부, 거주지역, 학력을 사용하였다. 모의 취업여부와 거주지는 각

각 취업과 도시거주를 1로 하여 더미화하였고, 학력변수도 중학교, 고등학교, 3년제 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 각각을 더미화하였다.

### 3. 분석 결과

#### 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 1) 보육교육서비스 유형별 이용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 이용률과 소득수준과의 관계는 영아와 유아가 다르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며, 또한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난다.

육아지원기관 이용의 경우 영아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비율은 소득분위별로 큰 차이가 없다.

〈표 II-3-1〉 영아와 유아의 모취업여부 및 소득분위별 육아지원기관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전체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취업모		미취업모	
	1개	2개	1개	2개	1개	2개	1개	2개	1개	2개	1개	2개
전체 (수)	39.3 (686)	0.7 (12)	54.6 (275)	1.4 (7)	32.7 (411)	0.5 (5)	78.4 (1,222)	17.2 (268)	78.5 (481)	18.8 (115)	78.0 (741)	16.5 (153)
1분위	40.4	-	76.3	-	30.6	-	85.3	10.7	80.4	15.7	89.6	8.0
2분위	43.0	-	73.3	-	36.8	-	76.7	12.3	80.0	14.3	74.1	12.1
3분위	34.3	1.1	69.2	-	27.6	1.3	87.8	9.3	86.4	10.2	87.2	9.2
4분위	39.4	0.6	71.4	3.6	32.6	-	86.2	10.3	93.0	7.0	80.9	13.2
5분위	38.9	-	54.8	-	34.8	-	82.2	14.2	76.7	20.5	85.1	10.7
6분위	42.5	-	60.4	-	35.3	-	76.9	20.6	86.0	14.0	71.6	24.5
7분위	39.9	0.6	54.9	2.0	32.7	0.9	71.3	27.0	79.2	20.8	65.8	31.5
8분위	39.0	0.8	47.5	1.7	30.5	-	71.9	19.2	72.6	20.5	71.6	17.9
9분위	44.4	0.8	46.7	-	40.8	2.0	68.6	27.7	71.6	25.9	63.0	31.5
10분위	32.8	4.1	34.8	4.5	25.0	3.1	67.2	31.0	72.0	25.8	52.2	47.8
$\chi^2(df=9)$	na		na		na		88.9 <sup>***</sup>		na		83.6 <sup>***</sup>	
10분위 - 1분위	-7.6	4.1	-41.5	4.5	-5.6	3.1	-18.1	20.3	-8.4	10.1	-37.4	39.8

주: \*\*\* p< .00, na 통계 산출이 용이하지 않음.

그러나 모의 취업여부별로 구분해 보면 미취업모는 전체와 같이 소득수분과 별 차이가 없으나 취업모의 경우는 다르다. 취업모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관 이용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1분위가 76.3%인데 비하여 10분위는 34.8%로 1분위의 약 1/2 수준이다.

기관 이용이 보편화된 유아는 기관 이용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별 차이가 없으나,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이용하는 기관의 수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1분위는 기관을 2개 이상 다닌다는 아동이 평균 10% 정도이지만 10분위는 이 비율이 30%가 넘는다. 이러한 소득계층별 차이는 특히 미취업모의 자녀에게서 심한 차이를 보여서 1분위는 기관을 2개 이상 다닌다는 아동이 8% 정도이지만 10분위는 이 비율이 47.8%가 된다.

다음으로 혈연에 의한 서비스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미취업모보다는 취업모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영아는 취업모의 경우는 1분위가 42.1%인데 비하여 7분위 이상은 60%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미취업모는 1분위가 10.2%인데 10분위도 15.6%로 소득분위별 차이가 크지 않다. 유아도 1분위 31.4%, 10분위 63.8%인데, 미취업모는 1분위가 3.2%인데 비하여 8, 9분위는 13% 수준이다.

〈표 II-3-2〉 영아와 유아의 모취업여부 및 소득분위별 혈연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전체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25.7	54.8	13.6	22.0	41.1	7.4
(수)	(1,744)	(504)	(1,223)	(1,561)	(610)	(890)
1분위	17.0	42.1	10.2	12.7	31.4	3.2
2분위	15.4	50.0	9.8	15.3	34.3	5.2
3분위	14.4	23.7	12.7	10.7	19.0	5.0
4분위	23.1	50.0	17.4	20.7	25.6	14.7
5분위	19.2	38.1	14.3	21.2	43.8	7.4
6분위	23.6	46.2	12.6	15.5	35.1	4.9
7분위	29.9	60.0	15.9	24.4	44.9	9.6
8분위	44.1	64.4	22.4	28.3	41.1	13.4
9분위	43.5	62.7	14.3	35.8	48.8	13.2
10분위	58.2	73.3	15.6	52.6	63.0	8.7
X <sup>2</sup> (df=9)	153.9***	41.2***	10.2	115.3***	40.3***	18.3*
10분위 - 1분위	41.2	31.2	5.4	39.9	31.6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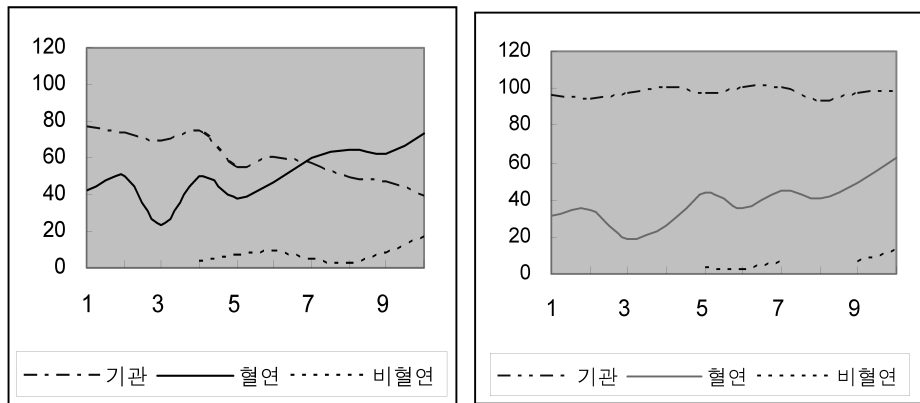
주: \* p< .05, \*\*\* p< .001

비혈연에 의한 서비스는 10분위가 그 이외 집단에 비하여 뚜렷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영아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모두 16~17% 수준이고, 유아도 취업모는 13.0%로 비교적 높고 미취업모는 4.3%로 비율은 낮으나 다른 분위는 이용이 없다.

〈표 II-3-3〉 영아와 유아의 모취업여부 및 소득분위별 비혈연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전체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수)	2.5 (1,744)	6.9 (504)	0.5 (1,223)	1.9 (1,561)	3.9 (610)	0.2 (890)
1분위	-	-	-	0.5	-	0.5
2분위	1.8	6.5	-	1.8	2.9	-
3분위	-	-	-	-	-	-
4분위	0.6	3.7	-	-	-	-
5분위	1.5	7.1	-	1.0	2.7	-
6분위	2.9	9.4	-	0.6	1.8	-
7분위	1.2	3.9	-	2.5	6.1	-
8분위	0.8	1.7	-	-	-	-
9분위	5.6	8.0	2.0	5.1	6.2	1.9
10분위	16.4	16.7	15.6	11.2	13.0	4.3
10분위 - 1분위	16.4	16.7	15.6	10.7	13	3.8



〔그림 II-3-1〕 취업모 영아와 유아의 소득분위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그림 II-3-1〉은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취업모 비율만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영아는 기관 이용은 낮아지고 혈연 및 비혈연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짐을 나타낸



다. 기관 이용이 전 분위에서 90% 이상으로 높는데, 그러나 혈연 및 비혈연에 위한 보육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잘 나타낸다.

## 2) 육아지원기관 이용

### 가) 육아지원기관별 이용

앞에서 소득수준별로 기관 이용이 유아는 별 차이가 없으나 영아는 취업모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기관 이용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소득수준별로 기관간의 이용 차이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으로 운영하는 학원 등 3개 기관 이용에 대한 소득계층별 이용비율은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II-3-4〉 영아와 유아의 모취업여부 및 소득분위별 보육시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전체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31.6	51.0	23.1	49.9	51.3	48.0
(수)	(1,744)	(504)	(1,223)	(1,562)	(610)	(890)
1분위	44.2	75.7	34.5	62.1	69.8	62.6
2분위	33.9	60.0	29.0	60.4	47.4	62.7
3분위	33.5	77.8	25.8	67.2	72.7	62.5
4분위	30.9	70.8	22.8	50.3	51.3	48.0
5분위	30.9	66.7	20.8	51.9	51.5	53.5
6분위	27.8	54.5	20.2	50.7	61.8	43.4
7분위	30.7	57.9	19.5	43.2	47.5	40.8
8분위	27.8	44.1	19.0	46.0	50.0	40.2
9분위	26.2	37.3	13.6	36.0	44.0	27.6
10분위	31.0	36.8	14.0	36.4	42.1	17.1
X <sup>2</sup> (df=9)	16.8	42.1***	20.9*	62.4***	22.2	58.2***
10분위 - 1분위	-13.2	-38.9	-20.5	-25.7	-27.7	-45.5

주: \* p< .05, \*\*\* p< .001

먼저 보육시설 이용은 소득분위별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지만,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보육시설 이용률은 낮아진다. 1분위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10분위가 가장 낮다. 1분위와 10분위를 비교하면 영아는 10분위가 1분위보다 13.2%p가 낮고, 유아는 25.7%p가 낮다.

모의 취업여부별로 나누어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일관성이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영아 취업모는 1분위에 비하여 10분위 38.9%p가 낮고 유아 취업모는 10분위가 1분위보다 27.6%p가 낮고, 유아는 25.7%p가 낮다. 미취업모도 유아 미취업모의 경우 3분위까지는 60%를 넘으나 10분위는 20%에도 미치지 않는다. 상대적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보육료 전액 지원과 관련이 있다.

보육시설과 달리 유치원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용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유치원은 1분위 대비 10분위가 21.1%p가 높다. 취업모의 경우 소득분위별로 일관성을 보이지 않으나 미취업모는 2, 3분위가 25~26% 수준으로 비교적 낮고 6분위부터 40%를 넘으며, 10분위는 65.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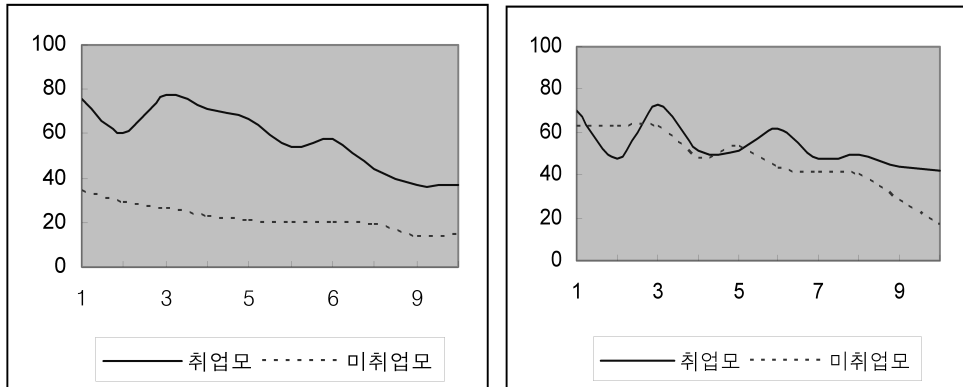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은 고소득계층에서 이용률이 높은 경향이다. 특히 8분위 이상부터는 이용비율이 모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8%를 유지한다.

이러한 차이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모 부담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고소득층은 제도권 이외의 차별화된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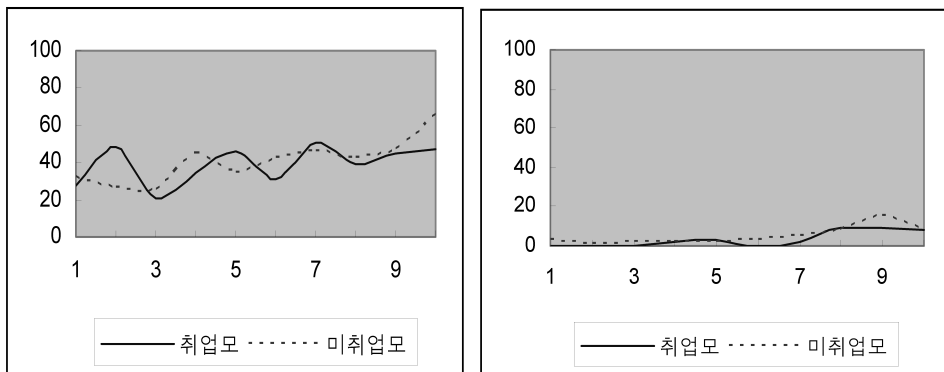
〈표 II-3-5〉 영아와 유아의 모취업여부 및 소득분위별 유치원과 반일제학원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전체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39.4	40.8	39.2	4.5	4.4	4.6
(수)	(1,558)	(611)	(890)	(1,560)	(610)	(889)
1분위	31.4	27.3	31.8	1.8	-	2.8
2분위	30.9	48.6	26.5	0.7	-	1.0
3분위	22.8	21.2	25.0	1.5	-	2.1
4분위	41.3	35.0	45.1	2.0	2.5	2.0
5분위	39.5	45.5	34.9	3.9	3.1	2.4
6분위	38.3	31.6	42.6	2.0	-	3.3
7분위	47.0	50.8	45.8	4.4	1.6	5.0
8분위	39.8	39.1	42.5	8.1	8.7	8.0
9분위	46.8	44.6	47.4	11.6	8.7	15.8
10분위	52.5	47.6	65.7	8.0	7.9	8.6
$\chi^2(df=9)$	45.1***	18.6*	35.0***	46.1***	21.0*	33.1***
10분위 - 1분위	21.1	20.3	33.9	6.2	7.9	5.8

주: \* p< .05, \*\*\* p< .001



[그림 II-3-2] 소득분위별 영아와 유아 보육시설 이용률



[그림 II-3-3] 소득분위별 유아 유치원과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률

나) 보육교육기관별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구소득이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분류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보육시설, 유치원과 특기학원 등 사교육 이용으로 하였고 선교원 이용은 사례수의 제한 등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독립변수는 소득 10분위 이외에 기관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연령, 모의 학력, 지역 변수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연속변수이며, 모의 취업은 더미변수이다.

먼저, 보육시설 이용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는 <표 II-3-6>과 같다.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소득분위가 부의 방향으로 3분위 이상이 모두 1분위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5분위 이상부터는 유의도도 증가하였다. 소득분위 이외에는 연령과 모취업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모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으며, 지역은 농촌에 비하여 대도시만이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 볼 경우 지역변수의 유의도만 없어지고 이 외 변수들은 차이가 없었다.

<표 II-3-6>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다분류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영유아		영아		유아	
	B(표준오차)	Exp(B)	B(표준오차)	Exp(B)	B(표준오차)	Exp(B)
(상수)	-0.723(0.248)**		2.728(0.458)***		-2.686(0.413)***	
연령(연속변수)	0.276(0.023)***	0.759	-0.454(0.067)***	1.574	1.554(0.089)***	0.211
모취업(1=취업)	0.951(0.087)***	0.386	0.415(0.118)**	0.660	1.835(0.157)**	0.160
10분위(준거: 1분위)						
2분위	-0.250(0.158)	1.284	-0.572(0.236)*	1.772	-0.169(0.257)	1.184
3분위	-0.496(0.151)***	1.643	-0.552(0.223)*	1.737	-0.537(0.249)*	1.711
4분위	-0.541(0.175)**	1.717	-0.603(0.259)*	1.828	-0.638(0.286)*	1.892
5분위	-0.673(0.159)***	1.959	-0.793(0.224)***	2.211	-0.804(0.274)**	2.235
6분위	-0.760(0.168)***	2.138	-0.917(0.236)***	2.503	-0.760(0.288)**	2.137
7분위	-0.881(0.178)***	2.413	-1.119(0.256)***	3.062	-0.981(0.297)***	2.668
8분위	-1.107(0.186)***	3.025	-1.077(0.250)***	2.937	-1.411(0.332)***	4.099
9분위	-1.145(0.191)***	3.142	-1.126(0.261)***	3.085	-1.550(0.333)***	4.710
10분위	-1.436(0.206)***	4.202	-1.528(0.286)***	4.611	-1.770(0.348)***	5.870
모학력(준거: 중학이하)						
고등학교	0.142(0.227)	0.868	-0.003(0.346)	1.003	0.332(0.373)	0.718
전문대	0.083(0.237)	0.920	-0.257(0.358)	1.293	0.364(0.390)	0.695
대학	-0.069(0.238)	1.072	-0.385(0.359)	1.470	0.218(0.394)	0.804
대학원 이상	0.095(0.314)	0.909	-0.183(0.462)	1.201	0.411(0.515)	0.663
지역(준거: 읍·면)						
대도시	-0.237(0.114)*	1.267	-0.242(0.161)	1.273	-0.125(0.192)	1.133
중소도시	-0.053(0.111)	1.054	-0.141(0.157)	1.151	0.176(0.186)	0.839
-2 Log Likelihood	2397.857		1083.114		857.341	
X <sup>2</sup> (df=17)	380.0***		124.4***		604.5***	
Cox and Snell (유사 R <sup>2</sup> )	0.111		0.080		0.296	
(N)	(3,212)		(1,722)		(1,492)	

주: \* p< .05, \*\* p< .01, \*\*\* p< .001

즉, 보육시설 이용은 지역, 아동연령, 모의 취업과 학력을 통제하여도 소득분위가 높아지면 낮아진다. 이외 취업모일수록 보육시설 이용을 선호하며, 지역이나 학력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연령변수는 영아와 유아의 방향성이 달라서 영아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지만 유아가 되면 연령이 많아지면서 이용률이 낮아짐을 반영하는 것이다.

유치원은 소득분위가 정의 방향으로 4분위 이상부터 1분위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6분위 이상부터는 유의도도 증가하였다. 소득분위 이외에는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모의 취업과 학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11-3-7〉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에 대한 다분류 회귀분석

구분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B(표준오차)	Exp(B)	B(표준오차)	Exp(B)
(상수)	3.698(0.484) <sup>***</sup>		4.724(0.976) <sup>***</sup>	
연령(연속변수)	0.673(0.070) <sup>***</sup>	0.513	-0.048(0.153)	1.049
모취업(1= 취업)	-0.174(0.120)	1.192	-0.487(0.271) <sup>#</sup>	1.627
10분위(준거: 1분위)				
2분위	0.243(0.251)	0.784	-0.697(1.065)	2.008
3분위	0.380(0.234)	0.684	0.141(0.786)	0.868
4분위	0.477(0.270) <sup>#</sup>	0.621	0.987(0.769)	0.373
5분위	0.560(0.234) <sup>*</sup>	0.571	0.237(0.775)	0.789
6분위	0.798(0.244) <sup>***</sup>	0.45	0.521(0.777)	0.594
7분위	0.721(0.263) <sup>**</sup>	0.486	2.163(0.654) <sup>**</sup>	0.115
8분위	0.606(0.256) <sup>*</sup>	0.546	1.552(0.685) <sup>*</sup>	0.212
9분위	0.703(0.267) <sup>**</sup>	0.495	2.286(0.646) <sup>***</sup>	0.102
10분위	1.411(0.287) <sup>***</sup>	0.244	1.629(0.708) <sup>*</sup>	0.196
모학력(준거: 중학이하)				
고등학교	-0.014(0.363)	1.014		
전문대	0.265(0.375)	0.767		
대학	0.159(0.376)	0.853		
대학원 이상	-0.348(0.485)	1.416		
지역(준거: 읍·면)				
대도시	0.028(0.165)	0.972	1.255(0.535) <sup>*</sup>	0.285
중소도시	-0.058(0.162)	1.061	0.901(0.540) <sup>#</sup>	0.406
-2 Log Likelihood	1035.686		206.219	
X <sup>2</sup> (df=17)	140.0 <sup>***</sup>		61.6 <sup>***</sup>	
Cox and Snell(유사 R <sup>2</sup> )	0.091		0.042	
(수)	(1,492)		(1,492)	

주: # p< .1, \* p< .05, \*\* p< .01, \*\*\* p< .001

2004년도 자료 분석에서는 이용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가 이용률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높으며, 읍·면에 비하여 중소도시가 이용률이 높음을 나타냈는데, 본 분석에서는 취업변수, 학력변수, 지역변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소득수준 중 10분위의 1분위 대비  $\beta$ 값은 4.14이다. 그러나 모의 학력은 보육시설 이용과 같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유아 보육시설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연령, 소득수준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 그 방향성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아의 연령이 많아지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 아동은 유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일제 이상 학원은 소득분위가 정의 방향으로 7분위부터 1분위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외 미취업, 농촌 대비 대도시 거주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sup>4)</sup> 2004년 실태조사 자료 분석에서는 반일제 이상 미술학원 이용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읍·면에 비하여 도시에 거주할수록 이용률이 높았고, 모의 취업과 소득수준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반일제 학원이 과거 저렴한 가격의 미술학원 중심에서 높은 가격의 영어학원의 확대 등으로 서비스 특성이 변화하면서 이용자 특성도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나.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아동 1인당 총 보육교육 서비스 비용은 영아 11만3천원, 유아 27만 4천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각각 3.5%, 9.7%로 조사되었다.<sup>5)</sup> 소득 분위는 비용과 정의 관계를 보여서 1분위 대비 10분위 비용이 영아는 9.9배, 유아는 4.6배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비용은 2004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비용과 비율 모두 증가한 것이다. 2004년에는 아동 1인당 평균 비용이 영아 9만원, 유아 20만 수준으로 소득 대비 비율은 각각 2.9%, 8.7%이었다.

<표II-3-9>는 영아·유아 및 모의 취업상태를 구분한 것인데 취업부모와 관계없이 영아와 유아 모두 비용은 소득수준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비율은 비용처럼 그 관련성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다.

4) 독립변수 중 학력변수는 제외하였음.

5) 영아 기관 미이용자가 포함됨.

〈표 II-3-8〉 영아와 유아의 소득분위별 총 보육교육 비용

단위: 천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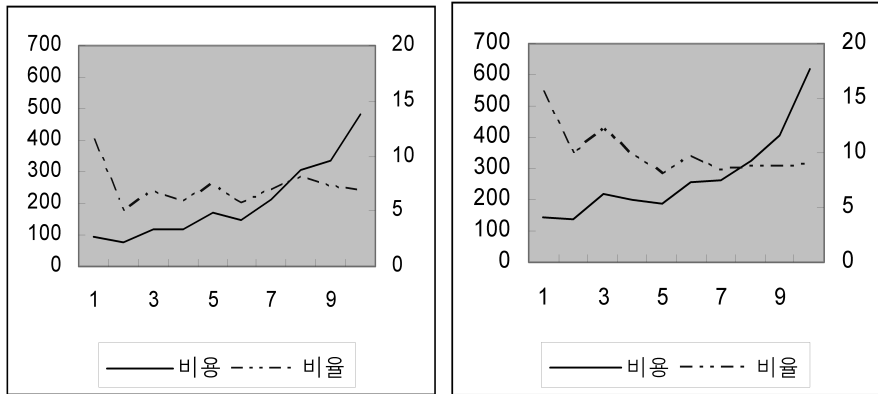
구분	2009				2004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총 비용	소득대비 비율	총 비용	소득대비 비율	총 비용	소득대비 비율	총 비용	소득대비 비율
전체	113.5	3.5	274.5	9.7	90.6	2.9	201.4	8.7
표준편차	207.2	6.0	234.4	7.2	180.8	5.4	155.9	7.8
(수)	(1,743)	(1,734)	(1,559)	(1,542)	(1,171)	(1,171)	(1,790)	(1,790)
1분위	39.5	4.8	127.9	13.5	18.0	1.9	107.0	12.4
2분위	36.0	2.5	154.2	10.7	16.1	1.1	127.9	9.9
3분위	39.1	2.3	167.0	9.6	30.5	1.9	157.0	9.2
4분위	56.1	2.8	218.2	10.8	37.1	1.8	177.4	9.0
5분위	71.7	3.1	209.9	9.1	79.2	3.4	192.6	9.0
6분위	76.6	2.9	253.1	9.7	63.1	2.4	214.9	8.2
7분위	97.4	3.2	269.5	8.8	109.8	3.7	209.5	7.7
8분위	154.6	4.2	311.5	8.4	147.7	4.0	244.8	7.3
9분위	202.8	4.4	388.4	8.3	266.0	6.2	272.2	7.2
10분위	390.8	5.6	586.6	8.5	198.8	3.3	329.6	7.0
F	63.5***	5.9***	127.0***	8.1***	27.4**	8.5**	33.0**	6.7**
10분위/1분위	9.9	1.2	4.6	0.6	11.0	1.7	3.1	0.6

주: \*\* p< .01, \*\*\* p< .001

〈표 II-3-9〉 영아와 유아의 모취업여부 및 소득분위별 총 보육교육 비용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전체	278.4	7.3	46.6	1.9	336.9	9.6	239.3	9.8
표준편차	291.5	8.0	102.7	4.1	278.2	6.8	190.7	6.4
(수)	(502)	(502)	(1,223)	(1,214)	(610)	(610)	(891)	(876)
1분위	92.5	11.6	23.6	2.5	146.3	15.7	119.5	13.1
2분위	75.6	5.1	29.6	2.0	138.9	9.8	161.5	11.2
3분위	116.4	6.8	26.0	1.5	217.3	12.2	152.6	8.8
4분위	114.8	5.8	46.3	2.3	197.2	9.8	219.5	10.8
5분위	172.4	7.4	43.7	1.9	189.3	8.1	230.8	10.1
6분위	149.2	5.7	57.5	2.2	257.1	9.6	251.7	9.8
7분위	213.0	6.9	49.1	1.6	260.2	8.4	275.4	9.0
8분위	303.2	8.1	75.3	2.1	327.5	8.8	308.3	8.4
9분위	336.3	7.3	50.5	1.1	404.9	8.7	381.2	8.1
10분위	481.7	6.9	126.8	1.7	616.7	8.9	491.2	7.2
F	17.0***	1.8	6.3***	1.1	34.7***	5.5***	28.4***	4.4***
10분위/1분위	5.2	0.6	5.4	0.7	4.2	0.6	4.1	0.5



[그림 II-3-4] 소득분위별 총 보육교육비용 비용 및 소득대비 비율

<표 II-3-10>은 아동 1인당 총 비용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이다. 최종 분석 결과 7개 독립변수 중 5개 변수가 유의하였다. 즉, 아동 1인당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드는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10분위이고, 다음이 도시거주, 모의 대학 이상 학력, 아동연령, 모의 취업, 모의 대학원 이상 학력 순서이다. 가장 영향이 큰 소득분위는 1분위 높아질수록 23,446원씩 비용이 추가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누적 Adjusted R<sup>2</sup> 값은 전체가 30% 수준인데 소득분위가 25%를 차지한다.

<표 II-3-10> 영유아 총 이용 비용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B	표준오차	Beta	t	누적R2
(상수)	-28.980**	11.106		-2.609	
소득10분위	23.446***	1.105	0.437	21.213	0.249
도시거주	74.677***	7.850	0.180	9.513	0.285
모 4년제대학이상	31.574***	7.099	0.094	4.448	0.294
아동 연령	7.974***	2.168	0.070	3.679	0.298
모 대학원 이상	42.810***	17.099	0.049	2.504	0.301

주: \*\* p< .01, \*\*\* p< .001. 제외된 변수는 모 취업, 모 3년제 대학 변수임.

다음 <표 II-3-11>은 아동 1인당 총 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이다. 최종 분석 결과 7개 독립변수 중 5개 변수가 유의하였다. 즉, 아동 1인당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드는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 연령이고, 다음이 도시거주, 소득 10분위, 모의 대학 이상 학력, 모의 취업 순서이다. 도시에 거주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취업한 모일 경우 소득대비 보육교육 비용



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득 10분위와 총 비용과의 관계는 부호가 -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0.377% 정도씩 부담의 소득 대비 비율이 낮아짐을 나타낸다. 누적 Adjusted R<sup>2</sup> 값은 전체가 5%에 불과하고, 소득 10분위는 아동 연령과 도시 거주에 이어 1% 정도의 설명력을 추가한다.

〈표 II-3-11〉 소득대비 영유아 총 이용 비용 비율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B	표준오차	Beta	t	누적R <sup>2</sup>
(상수)	5.573***	0.268		20.757	
아동 연령	0.023***	0.002	0.139	11.553	0.016
도시거주	1.911***	0.221	0.101	8.652	0.025
소득10분위	-0.377***	0.031	-0.154	-12.053	0.035
모 3년제대학이상	1.428***	0.178	0.102	8.029	0.043
모 취업	1.318***	0.169	0.093	7.794	0.051

주: \*\*\*  $p < .001$ . 제외된 변수는 모의 4년제 대학, 대학원 변수임.

## 2)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

아동 1인당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영아 16만6천원, 유아 21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각각 7.1%, 8.0%로 조사되었다.6) 소득 분위는 비용과 정의 관계를 보여서 1분위 대비 10분위 비용이 영아 4.2배, 유아 3.6배로 조사되었다.

2004년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면 두 가지 변화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는 평균 비용의 변화로, 영아는 약 3만3천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유아는 3만8천원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영아의 경우 정부 지원이 부모부담 감소로 연계된 데 비하여 유아는 그렇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육아지원기관에서 유아 특별활동이 강화 등으로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소득수준별 격차가 더욱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04년에는 1분위 대비 10분위 비용 비율이 영아는 2.5배, 유아는 1.9배이던 것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각각 4.2배, 3.6배로 증가하였다. 특히 소득분위 8분위 이상에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영아와 유아를 나누고 모의 취업여부를 구분하여 보아도 이와 같은 소득수준별 격차는 달라지지 않는다(표 II-3-13 참조).

6) 기관 미이용자는 제외함.

〈표 II-3-12〉 영아·유아의 소득분위별 기관 이용 비용 및 소득대비 비율 비교

단위: %(명)

구분	2009				2004			
	영아		유아		영아		유아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전체	166.3	7.1	209.9	8.0	199.0	8.4	170.5	8.4
표준편차	141.6	5.7	158.8	5.9	81.5	4.7	78.6	5.4
(수)	(562)	(492)	(1,486)	(1,437)	(140)	(140)	(1,456)	(1,456)
1분위	77.2	10.3	102.0	12.0	85.4	9.2	113.9	13.4
2분위	82.6	6.9	124.2	9.0	161.2	12.4	132.4	10.5
3분위	77.7	6.0	143.8	8.3	198.0	7.9	151.6	9.6
4분위	140.4	7.3	192.1	10.0	229.2	11.3	159.9	8.7
5분위	121.2	7.0	168.8	7.3	175.0	8.2	165.4	7.9
6분위	178.9	7.3	204.0	8.0	219.2	8.3	187.2	8.1
7분위	194.1	7.2	216.7	7.0	227.6	9.6	181.0	7.5
8분위	241.5	6.8	248.1	6.8	232.2	8.6	190.6	6.7
9분위	315.7	7.0	293.0	6.4	216.7	6.5	205.0	5.9
10분위	326.7	4.9	363.9	5.4	186.8	4.7	214.3	6.5
F	37.4**	3.3**	50.0**	16.7**	6.3**	2.0*	23.1**	22.8**
10분위/1분위	4.2	0.5	3.6	0.5	2.5 <sup>1)</sup>	0.5	1.9	0.5

주: \* p&lt; .05, \*\* p&lt; .01, \*\*\* p&lt; .001. 1)은 9분위 대비 임.

〈표 II-3-13〉 영아·유아 모취업여부 및 소득분위별 기관 이용 비용 및 소득대비 비율

구분	영아				유아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전체	204.4	7.0	136.4	7.2	229.5	7.1	202.4	8.7
표준편차	148.3	5.9	128.3	5.6	174.7	5.4	147.3	6.4
(수)	(260)	(240)	(291)	(245)	(597)	(584)	(834)	(799)
1분위	98.8	13.1	63.3	8.3	112.0	12.6	101.8	12.4
2분위	76.2	5.3	87.7	7.3	113.3	8.1	133.5	9.7
3분위	75.6	6.1	74.3	5.8	161.0	9.1	138.9	8.0
4분위	130.0	6.5	154.3	8.0	180.6	9.5	194.3	10.1
5분위	135.1	7.3	108.4	6.6	144.5	6.2	192.6	8.4
6분위	154.7	5.9	199.2	8.3	184.1	7.2	217.3	8.6
7분위	206.6	7.6	179.2	6.8	208.3	6.8	221.7	7.2
8분위	229.8	6.3	255.2	7.5	240.0	6.5	263.0	7.3
9분위	339.6	7.6	236.7	5.1	271.0	6.0	331.5	7.2
10분위	334.1	5.0	268.0	4.2	361.5	5.3	383.0	5.8
F	20.9***	4.4***	11.4***	0.9	18.7***	9.4***	29.9***	6.9***
10분위/1분위	3.4	0.4	4.2	0.5	3.2	0.4	3.8	0.5

주: \*\*\* p&lt; .001.

<표 II-3-14>는 기관 이용 비용에 대한 분석결과인데, 투입된 7개 독립변수 중 6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아동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득 10분위이고 다음이 아동연령, 모 취업, 도시거주, 모의 대학원, 대학 이상 학력이다. 이들 6개 변수의 비용에 대한 설명력 0.39로 비교적 높다. 누적 R<sup>2</sup> 조정치가 소득분위는 0.198로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의 1/2를 차지한다.

<표 II-3-14> 영유아 기관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B	표준오차	Beta	t	누적 R <sup>2</sup>
(상수)	-168.386***	10.933		-15.402	
소득10분위	26.105***	1.293	0.317	20.188	0.198
아동 연령	45.336***	1.898	0.334	23.888	0.322
모 취업	104.282***	7.269	0.210	14.346	0.362
도시 거주	65.052***	8.896	0.102	7.312	0.374
모 대학원 이상	103.304***	18.808	0.079	5.492	0.382
모 4년제대학	37.913***	7.757	0.076	4.888	0.386

주: \*\*\* p<.001. 제외된 변수는 모 3년제대학 변수임.

<표 II-3-15> 영유아 총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의 소득대비 비율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B	표준오차	Beta	t	누적 R <sup>2</sup>
(상수)	8.228***	0.403		20.416	
소득10분위	-0.590***	0.048	-0.287	-12.267	0.060
도시거주	2.851***	0.351	0.179	8.113	0.093
모 3년제대학	1.060***	0.278	0.089	3.817	0.100

주: \*\*\* p<.001. 제외된 변수는 아동연령, 4년제대학, 대학원, 모취업 변수임.

<표 II-3-15>는 기관 이용 비용의 소득 대비 비용 비율에 대한 분석결과는, 투입된 7개 독립변수 중 3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소득 대비 아동당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득 10분위이고 다음이 도시거주, 모의 3년제대학 이상 학력이다. 이들 3개 변수의 비용에 대한 설명력이 0.1로 낮다. 누적 R<sup>2</sup> 조정치가 소득분위는 0.060이고, 거주지, 모 대학 이상 학력변수가 포함되어 0.10으로 증가하였다.

### 3) 유아 사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다음은 유아 사교육 비용을 알아보려고 한다. 본 글에서는 유아 사교육은 ①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② 선교원, 반일제이상 학원, 미술학원, 문화센터 등 유사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③ 학원등 시간제 이용 비용, ④ 학습지 등 개별교육의 네 가지 교육서비스를 사교육으로 규정하였다.

<표 II-3-16>은 이러한 4가지 유형의 소득분위별 평균을 나타낸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은 평균 3만원, 선교원, 반일제이상 학원, 미술학원, 문화센터 등 유사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은 평균 24,500원, 학원등 시간제 이용 비용은 28,200원, 학습지 등 개별교육 서비스 비용은 18,200원으로 산출되었고, 이 네 가지 모두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용의 부담도 증가한다. 그러나 이 비용은 비용 부담이 없는 아동도 포함한 평균이므로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는 가구가 부담하는 비용과는 차이가 있다.

<표 II-3-16> 유아의 사교육유형 및 모취업여부별 사교육비 평균

단위: %(명)

취업	전체	사교육 유형			모의 취업여부별	
		유사 보육 교육기관	유치원, 보육시설 특별활동	학원 등	취업	미취업
전체	97.6	24.5	30.1	28.2	107.3	95.0
표준편차	152.5	118.1	51.4	37.7	155.2	154.2
(수)	(1,559)	(1,559)	(1,559)	(1,559)	(610)	(891)
1분위	48.4	3.3	12.5	22.4	61.6	47.8
2분위	62.5	8.5	23.4	20.6	58.7	67.7
3분위	57.3	10.1	22.4	24.0	76.0	52.7
4분위	66.9	12.3	21.5	26.8	70.4	65.7
5분위	82.9	12.8	21.1	34.7	82.1	85.4
6분위	86.3	10.4	32.3	31.7	78.7	92.5
7분위	90.7	14.6	35.8	24.4	67.9	102.6
8분위	116.7	33.8	31.5	33.9	111.2	124.1
9분위	160.9	63.7	40.0	27.6	148.0	181.7
10분위	186.7	68.1	52.2	37.6	168.6	254.3
F	15.6***	6.7***	8.2***	3.6***	5.2***	10.9***
10분위/1분위	3.9	20.6	4.2	1.7	2.7	5.3

\*\*\* p<.001

이와 같은 4가지 비용을 합한 평균은 <표 II-3-16>을 보면 총 비용은 총 97,600원으로 산출되었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가 48,400원부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여 10분위는 186,700원으로 산출되었다. 모의 취업여부별로 구분해보면 취

업모가 107,300원으로 미취업모 95,000원에 비하여 12,300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는 취업모나 미취업모 모두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1분위 61,600원, 10분위 168,600원으로 약 10만 7천원의 차이를 보인 반면에 미취업모는 1분위 47,800원, 10분위 254,300원으로 거의 20만원의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I-3-17>은 이러한 영유아 사교육 비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투입된 7개 독립변수 중 5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영유아 사교육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 연령이고, 다음이 소득 10분위이고 다음이 모의 대학교 이상 학력, 도시거주, 모의 대학원 이상 학력이다.

<표 II-3-17> 영유아 사교육 이용비용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구분	B	표준오차	Beta	t	누적R <sup>2</sup>
(상수)	-68.187***	6.109		-11.162	
아동 연령	28.213***	1.051	0.419	26.845	0.178
소득10분위	5.375***	0.694	0.132	7.749	0.206
모 4년제대학 이상	45.847***	10.503	0.071	4.365	0.212
도시 거주	19.321***	4.970	0.061	3.888	0.216
모 대학원이상	13.699**	4.334	0.055	3.161	0.219
(수)	(1,599)				

\*\* p<.01, \*\*\* p<.001.

주: 제외된 변수는 모 취업, 대학이상 변수임.

####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본 분석 결과, 전반적인 육아지원 이용과 비용 결정요인으로는 소득수준, 아동 연령, 모의 취업상태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고,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별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히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아동 부모의 소득수준 특성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요되는 비용 수준에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아동연령과 소득수준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2004년 분석결과와 비교해서 나타나는 특징을 기초로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득 수준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나타나는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차이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기보

습학원, 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에서 모두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제도권 육아지원서비스로 중요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자도 부모 특성별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즉, 보육시설은 저소득층이 선호하고 유치원과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다. 또한 유사기관도 있어서, 소득 4분위부터 유치원 이용이, 소득 7분위부터는 보육·교육유사기관 이용이 그 이전 소득계층과 차이있게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별로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부모 부담 완화 등의 정책으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보장되었으나 제공 받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적 수준에서는 격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소득층, 취업모가 많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가 주요 정책과제가 된다.

둘째,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비용에서도 부모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2004년 조사 자료 분석결과에 비하여 두 가지 변화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는 평균 비용의 변화로, 영아는 약 3만3천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유아는 3만8천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영아의 경우 정부 지원이 부모부담 감소로 연계된 데 비하여 유아는 비용 지원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 지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는 특기활동 등의 확대 결과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소득수준별 격차가 더욱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04년에는 1분위 대비 10분위 비용 비율이 영아는 2.5배, 유아는 1.9이었으나 2009년에는 4.2배, 3.6배로 격차가 더 커졌다. 즉, 이용에서도 소득별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용에 따른 비용에서도 차이가 나서, 기회 보장과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도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소득은 가구당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4.5%의 설명력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가 있다. 특기학원 등 유아 사교육은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소요되는 비용도 많아서, 유아 사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유사교육보육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1분위 대비 10분위가 20.6배이고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은 4.2배, 시간제 학원은 1.7배를 더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비용 수준에는 아동연령이 더 많을 설명력을 가져서, 이러한 사교육의 보편화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보육시설이 일정부분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령사회저출산대책본부(200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새로마지플랜 2010.
- 나정·서문희·이미화·김문정(2006). 「2004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 보건복지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0~2015.
- 서문희·나정·최혜선(200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 분담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가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조애저·김유경 외(2005).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Ⅲ. 취업모의 취업특성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김 은 설<sup>7)</sup>

#### 1. 분석 배경 및 내용

보육은 취업모라는 대상을 배제하고는 결코 논의될 수 없는 문제이다. 보육서비스의 시초가 영유아자녀를 두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취업한 직장 여성들에게 양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생각한다면, 현재 취업모 가정에서 보육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은 보육정책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구상하는데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취업모가 가진 특성에 따라 보육 또는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또한 비용 지불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들어 정부는 취업모가 있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보육료 지원 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게 혜택을 늘임으로써 그 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던 취업모에게 불리한 체계를 수정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10; 서문희 외 2008).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임에도 두 사람의 소득을 그대로 합쳐 총가구소득을 계산해 버림으로써 교육·보육료 지원대상이 되기는 어렵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을 부부 한 쪽의 소득을 일부(25%) 감해 주고 총소득 산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수혜 자격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토록 한 것은 복지제도의 선진화를 향한 한 걸음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모 연구라고 할 수 있는 「2009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서문희 외, 2009)에서는 취업모들의 육아 특징을 미취업모 집단과 비교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취업모라고 뭉뚱그려 말하기에는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취업모들은 너무도 다양한 삶의 형식들을 가졌다. 출퇴근 시각이 다르고 소득이 다르고 근무 요구시간이 다른 것이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그들의 육아 현실을

---

7)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모가 가진 직업적 특징들을 분류하여 취업특성을 밝히고 이에 따른 육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정책 수립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고려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취업모가 연령, 지역, 학력, 직업, 취업특성, 소득 등의 여러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집단인지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각 집단별로 자녀를 기르면서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행태,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취업모의 취업 특성에 따른 육아 현실의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분석 방법

### 가. 분석 자료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09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의 일부로서, 전체 2,459가구 데이터 중 영유아 자녀가 있고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취업모)를 선택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직이 아닌 경우, 즉 휴직 중이거나 학생인 경우 등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히 조사 시점에서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모인 경우만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866 취업모 가구가 본 연구 전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 나. 사용 변수 및 분석 방법

취업모의 취업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변인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 직업, 종사상위치, 근무형태, 일일근무시간 등 4 가지를 포함하였다. 직업은 2009 전국 보육실태조사(이하 원분석)의 '경제활동분야'로 구분했던 14개의 직업구분을 통합하여 분류하는 방식을 거쳐 총 6개로 구분하였다. 또한 종사상의 위치도 원 분석에서 사례수가 많지 않았던 고용주를 자영업자와 통합하여 하나의 구분으로 만듦으로써 전체적으로 5개의 위치로 구분되었다. 근무형태는 원분석과 동일하게 4가지를 취하였고 일일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3개의 급간으로 구분하여 급간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독립변수로 사용된 기복적인 변수들의 구분은 다음의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 취업모의 취업 특성을 보여주는 변수의 구분

변수	직업	종사상 위치	일일근무시간
하위 구분	1. (고위임원), 관리자, 전문가	1. 자영업자, 고용주	1. 4시간 이하
	2. 기술공, 준전문가	2. 상용근로자	2. 5~9시간
	3.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3. 임시근로자	3. 10시간 이상
	4.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4. 일용근로자	
	5. 농업, 임업, 어업 숙련 종사자	5. 무급가족종사자	
	6. 기능원, 단순노무종사자		

그 외, 취업모의 특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연령, 학력, 거주지역, 월소득 수준, 부부 합산소득이 가구소득 등이 필요한 경우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변수들에 따라 취업모의 응답들을 교차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보완적으로 소수의 경우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의 경우는 직업, 종사상위치, 학력, 근무형태 등을 하위구분에 따라 더미화하여 분석하였다.

### 3. 분석 결과

#### 가.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2009 보육실태조사에 포함된 영유아 부모인 취업모는 총 866명이다. 이들은 보육실태조사에서 영유아가구로 분류된 2,554가구 중 영유아의 어머니가 어떤 종류이든 일을 하고 있는 취업모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무직, 휴직, 주부 제외)로, 전체 영유아 가구 중 34%가량의 어머니가 일을 하는 가구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취업모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평균 연령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평균 연령은 33.9세(표준편차 4.2세)로 조사되었다. 즉 30대 초중반에 걸쳐 많은 여성들이 영유아 자녀를 기르면서 일을 하느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많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분포상에서 최소 연령은 22세였고 가장 연령이 높은 경우는 51세였다.

〈표 III-3-1〉 영유아자녀를 둔 취업모의 평균 연령

단위: 명, 세					
구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취업모 연령	866	22	51	33.86	4.220

## 2) 학력 및 거주 지역

영유아 자녀를 기르고 있으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학력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인 37.2%가 ‘고등학교 졸업’이었고 33.1%는 ‘대학교 졸업’, 21.6%는 전문대 등 ‘초급대학 졸업’, 그리고 ‘대학원 졸업’ 이상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의 분포를 보면, 대도시가 47.2%, 중소도시 35.9%, 읍면이 16.9%로 조사되어, 83%정도의 취업모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3-2〉 영유아자녀를 둔 취업모의 학력 및 거주 지역 분포

구분	사례수(명)	비율(%)	
학력	무학	2	0.2
	초등졸	3	0.4
	중졸	20	2.3
	고졸	322	37.2
	초대졸	187	21.6
	대졸	286	33.1
	대학원	45	5.3
	계	866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409	47.2
	중소도시	310	35.9
	읍면	146	16.9
	계	866	100.0

## 3) 취업모의 직업과 종사상의 위치 및 근로 형태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29.9%)이 사무종사자(공무원, 교사, 직업군인 등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26.1%의 비율을 보인 서비스업이나 판매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과반수 이상이 이 두 유형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순으로 기술공·준전문가(17%), 고위임원·관리자·전문가(12.7%) 직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종사상 위치로 구분해보면, 상용근로자가 51.8%정도이고 12.0%가 자영업자나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64%가량이 고용주나 안정적 위치의 근로자이고,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면 전체 영유아 자녀를 가진 취업모의 25.3%가 임시직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3〉 영유아자녀를 둔 취업모의 직업, 종사상 위치 및 근로 형태

구분		사례수(명)	비율(%)
직업	고위임원, 관리자, 전문가	109	12.7
	기술공, 준전문가	146	17.0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257	29.9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224	26.1
	농업, 임업, 어업 숙련종사자	18	2.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104	12.1
	계	859	100.0
종사상 위치	자영업자, 고용주	104	12.0
	상용근로자	449	51.8
	임시근로자	139	16.0
	일용근로자	81	9.3
	무급가족종사자	93	10.7
계	866	100.0	
근무 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718	82.9
	불규칙하게 출퇴근	106	12.2
	재택근무	24	2.7
	농어민	19	2.2
	계	866	100.0
일일 근무 시간	4시간 이하	82	9.5
	5~9시간	623	71.9
	10시간 이상	161	18.6
	계	866	100.0

근무형태별로 보면,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82.9%이고 재택근무는 2.7%에 지나지 않았다. 일일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5~9 시간이 71.9%로 가장 많았고, 4시간 이하는 9.5%, 10시간 이상은 18.6%로 조사되어, 10명 중 2명가량은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하는 취업모임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영유아인 점을 감안하면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 해결이 이들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 4) 취업모의 소득 수준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소득 수준을 조사해 보면, 100만원 미만이 23.0%로 가장 많고 100~15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이 각각 19.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50~200만원 미만이 15.2%였으므로, 100~200만원 미만 수준은 총 35.0%여서 백단위로 구분해 본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00만원 이상은 10.7%였고 가내 사업 등 무급 종사자는 1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4〉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월수입

구분	무급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계
사례수(명)	99	199	171	132	171	93	866
비율(%)	11.5	23	19.8	15.2	19.8	10.7	100

#### 5) 취업모 가구의 총 소득

〈표 III-3-5〉는 영유아를 둔 취업모 가구의 소득을 나타낸다.

〈표 III-3-5〉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 가구의 월 평균 가구소득

단위: 명, %, 천원

구분	사례수	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100만원 미만	14	1.8				
100~200만원 미만	94	12.4				
200~300만원 미만	164	21.6				
300~400만원 미만	169	22.3				
400~500만원 미만	127	16.8				
500~600만원 미만	88	11.7				
600~700만원 미만	47	6.3	384.5	210.4	0	2000
700~800만원 미만	23	3.0				
800~900만원 미만	9	1.2				
900~1000만원 미만	7	0.9				
1000만원 이상	15	2.0				
계	758	100.0				

영유아 자녀를 기르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가정 내 가구 소득(부부합산액)을 100만원 단위로 조사해 보면, 300~400만원 사이가 22.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온다. 다음으로 21.6%의 가구가 속해있는 200~300만원 미만 범위, 16.8%의 비율이 나왔던 400~500만원 범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체 취업모 가구의 60%정도가 200~500만원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500만원이 넘는 가구는 13.4%, 그리고 200만원 이하 가구는 14.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 평균은 384만 5천원(표준편차 210만 4천원)이었고 표집내 최대치는 2,000만원이었다.

## 나. 취업모 특성별 육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취업모가 종사하는 직업의 특성에 따라 육아에 대한 인식과 육아실태가 얼마나 다른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직업적 특성은 양육과 관련한 취업모의 현황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직종, 근로 시간과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

먼저 취업모들이 느끼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보면,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30.8%로 가장 높게 나왔다. 취업모들에게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이므로 이 항목을 번외로 두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는 '육아비용'이 21.2%였고 '맡길 곳이 없다'라는 응답도 20.1%로 조사되었다. 비용이 문제가 되는 취업모의 비율과 보육시설의 부족을 느끼는 취업모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육아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즉, 신뢰감을 갖고 편리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육아지원기관이 더욱 많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 다른 수요자는 육아비용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는 근로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대상임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석은 취업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먼저, 직업유형별로 보면, '시간이 없음'만 제외하면, 관리자나 전문가 직업 집단의 경우 '맡길 곳이 없다'는데 가장 높은 응답률(26.6%)을 보인 반면, 서비스종사자나 판매직 직업 집단은 '육아비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24.6%). 한편 특이한 점은 농어업, 임업 종사자들은 '어려움이 없다'에 42.1%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들 직업 집단의 경우 양육비용지원이 비교적 많고 도시에 비해 사교육 부담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육

아비용에 대해서는 10%가량만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21%가 넘는 수가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라는 의견도 보였다.

〈표 III-3-6〉 취업모가 느끼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육아 비용	맡길 곳 없음	이용 시간 부적절	시간 없음	도움 받을 곳 없음	어려움 없음	계(수)	X <sup>2</sup> (df)
전체	21.2	20.1	15.0	30.8	2.8	9.5	100(859)	
관리자, 전문가	18.3	26.6	12.8	29.4	2.8	10.1	100(109)	
기술공, 준전문가	21.9	19.9	21.9	28.1	0.7	7.5	100(146)	
직업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21.4	19.5	15.2	32.7	4.7	6.6	100(257)	61.3(25)**
유형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24.6	15.6	12.5	33.0	1.8	10.7	100(224)	
농업, 임업, 어업직	10.5	21.1	5.3	21.1	-	42.1	100( 19)	
기능원, 단순노무직	17.3	25.0	14.4	28.8	3.8	10.6	100(104)	
일일 4시간 이하	16.0	23.5	17.3	6.2	1.2	35.8	100( 81)	
근로 5-9시간	24.6	21.2	15.4	27.9	3.5	7.2	100(623)	36.4(10)**
시간 10시간 이상	10.6	13.7	11.8	55.3	1.2	6.2	100(161)	
무급	18.0	21.0	10.0	28.0	-	20.0	100(100)	
100만원 미만	29.6	17.1	17.6	22.1	1.5	12.1	100(199)	
수입 100-150만원 미만	25.1	18.1	16.4	28.1	5.3	7.0	100(171)	101.5(25)**
수준 150-200만원 미만	19.5	15.8	17.3	35.3	4.5	7.5	100(133)	
200-300만원 미만	15.6	19.7	15.0	39.9	3.5	6.4	100(173)	
300만원 이상	12.8	34.0	8.5	35.1	1.1	7.4	100( 94)	

주: \*\* p< .01, \*\*\* p< .001.

근로시간 유형별로 보면, 일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모는 ‘시간없음’을 55.3%가 선택한 반면, 육아비용이나 맡길 곳 없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4시간 이하 반일 근무를 하는 취업모의 경우는 35.8%가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을 하여 시간면으로는 비용면에서의 애로비율이 낮았다. 반면 근무형태 때문인지 맡길 곳이 없다고 느끼는 비율은 평균이상이었다.

수입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취업모의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이 육아비용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높고 수입이 높아질수록 이 비율은 낮아진다. 반면 ‘맡길 곳 없음’과 ‘시간 없음’은 수입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응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육아에 대한 조언을 얻는 대상

취업모들이 자녀의 육아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대상은 주로 친구나 동료(33.1%), 또는 부모나 친지 등 집안어른(28%)이었고 인터넷인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23.7%). 그 외에 전문가나 서적이 소수 비율을 차지하였고 조언을 주는 대상이 없는 경우는 1.2%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7〉 취업모가 의존하는 육아 조언자

단위: %(명)

구분	집안 어른	친구 동료	인터 넷	전문 가	서적	기타	없음	계(수)	X <sup>2</sup> (df)
전체	28.0	33.1	23.7	5.7	7.8	0.6	1.2	100(858)	
관리자, 전문가	23.9	21.1	33.9	6.4	12.8	-	1.8	100(109)	na
기술공, 준전문가	25.9	26.5	30.6	6.8	10.2	-	-	100(147)	
직업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27.8	31.8	28.2	3.9	6.7	0.4	1.2	100(255)	
유형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29.8	38.7	16.9	7.1	6.7	-	0.9	100(225)	
농업, 임업, 어업직	22.2	55.6	-	-	22.2	-	-	100( 18)	
기능원, 단순노무직	32.7	42.3	10.6	5.8	1.9	3.8	2.9	100(104)	
일일 4시간 이하	20.7	29.3	22.0	11.0	14.6	2.4	-	100( 82)	36.4(12) <sup>***</sup>
근로 5-9시간	26.5	33.1	26.0	5.1	7.4	0.2	1.8	100(623)	
시간 10시간 이상	38.5	34.2	16.1	4.3	5.0	1.2	0.6	100(161)	
무급	25.3	30.3	19.2	6.1	15.2	2.0	2.0	100(99)	44.7(30) <sup>*</sup>
100만원 미만	28.5	36.5	18.5	8.0	5.0	1.0	2.5	100(200)	
수입 100-150만원 미만	31.8	38.2	19.4	4.7	5.3	-	0.6	100(170)	
수준 150-200만원 미만	24.8	27.1	33.8	4.5	8.3	-	1.5	100(133)	
200-300만원 미만	26.7	31.4	29.1	3.5	8.7	-	0.6	100(172)	
300만원 이상	31.2	28.0	23.7	6.5	7.5	1.1	2.2	100( 93)	

주: \* p< .05, \*\*\* p< .001.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사무종사자나 서비스종사자 직업군, 그리고 농어업종사자,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취업모들은 비교적 친구나 동료에 많이 의존하고 집안어른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친지 등 인적자원보다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사례가 적기는 하지만, 농산어업에 종사하는 취업모들이 서적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능원이나 단순노무직인 취업모들은 육아문제 의논 대상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직업군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표 III-3-7 참조).



근로시간의 차이도 육아문제 의논 대상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바, 10시간 이상씩 장시간 근무하는 취업모는 집안어른이나 친구, 동료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고 5~9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인적자원 이용 이외에 인터넷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표 III-3-7 참조).

### 3) 육아 분담

부부간 육아 분담 정도를 살펴본 결과, 부부간 함께 한다는 응답이 39.7%, 대체로 부인이 한다는 응답이 32.8%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구분해보면 관리자나 전문가 집단,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및 직업군인, 서비스종사자나 판매직의 경우 대체로 부인이 한다는 응답보다 부부가 함께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으나, 농업, 임업 종사자들은 대체로 부인이 맡아서 하거나(55.6%),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의 경우 부인이 전담한다는 응답(32.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취업모 가구의 육아분담

단위: %(명)

구분	부인 전담	대체로 부인	부부 함께	대체로 남편	남편 전담	타인 전담	계(수)
전체	13.8	32.8	39.7	1.5	0.4	11.9	100(817)
직업 유형							
관리자, 전문가	11.1	39.8	40.7	0.9	-	7.4	100(108)
기술공, 준전문가	12.9	30.2	46.8	1.4	-	8.6	100(139)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7.3	35.1	43.1	2.4	-	12.1	100(248)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14.4	28.2	36.8	1.0	1.4	18.2	100(209)
농업, 임업, 어업직	22.2	55.6	22.2	-	-	-	100( 18)
기능원, 단순노무직	32.6	28.4	28.4	1.1	-	9.5	100( 95)
일일 근로 시간							
4시간 이하	20.8	46.8	29.9	-	-	2.6	100( 77)
5-9시간	13.9	31.6	42.9	0.8	-	10.8	100(595)
10시간 이상	9.7	30.5	31.8	5.2	1.9	20.8	100(154)
수입 수준							
무급	22.2	41.4	30.3	-	-	6.1	100( 99)
100만원 미만	22.7	34.3	32.6	1.1	-	9.4	100(181)
100-150만원 미만	12.3	32.1	43.2	1.9	-	10.5	100(162)
150-200만원 미만	8.5	34.9	41.9	0.8	-	14.0	100(129)
200-300만원 미만	6.7	33.3	44.8	1.8	1.2	12.1	100(165)
300만원 이상	11.0	17.6	44.0	4.4	1.1	22.0	100( 91)

주: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근로시간 유형별로 보면, 일일 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육아를 분담하지만 4시간 이하인 경우 대체로 부인이 맡아서 한다는 응답이 46.8%로 높게 나타났다. 수입수준별로 비교해보면 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부가 함께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체로 부인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아닌 타인이 육아를 전담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11.9%이었다. 취업모이기는 하나 육아를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육아분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항에서 타인이 전담한다는 응답을 보면 거의 100% 남의 손에 맡긴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서비스직, 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와 10시간이상이 근무시간인 경우,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정부의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

취업모의 52.6%가 정부의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농어업 및 임업 종사자,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종사자들만이 만족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그 외 직업군은 과반수 이상의 비율로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표 III-3-9〉 정부 육아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취업모의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모름	계(수)	$\chi^2(df)$
전체	15.5	37.1	32.0	11.8	0.6	3.0	100(859)	
직업 유형								
관리자, 전문가	22.7	41.8	18.2	12.7	-	4.5	100(110)	
기술공, 준전문가	14.5	44.8	31.7	6.9	0.7	1.4	100(145)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14.8	41.0	34.0	5.1	0.4	4.7	100(256)	743(2)**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16.9	33.8	32.0	16.0	0.4	0.9	100(225)	
농업, 임업, 어업직	11.1	16.7	38.9	33.3	-	-	100( 18)	
기능원, 단순노무직	8.6	22.9	41.0	21.0	1.9	-	100(105)	
일일 시간								
4시간 이하	12.2	37.8	20.7	28.0	1.2	-	100( 82)	
근로 시간								
5-9시간	15.9	37.8	32.3	9.8	0.5	3.7	100(622)	298(10)**
10시간 이상	15.4	35.2	35.2	11.7	0.6	1.9	100(162)	
수입 수준								
무급	18.0	32.0	29.0	20.0	1.0	-	100(100)	
100만원 미만	12.0	30.0	32.5	22.5	0.5	2.5	100(200)	
100-150만원 미만	12.3	33.9	38.6	9.9	1.8	3.5	100(171)	740(2)**
150-200만원 미만	15.8	37.6	34.6	8.3	-	3.8	100(133)	
200-300만원 미만	19.3	46.8	25.1	4.1	-	4.7	100(171)	
300만원 이상	19.4	45.2	29.0	3.2	-	3.2	100( 93)	

주: \*\* p< .01, \*\*\* p< .001.

근로시간에 따라 취업모를 분류한 경우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하는 '5~9시간 근로'집단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4시간 이하 근로자에서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사례수가 적어 비교가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다. 10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모의 경우 50.6%가 불만이라고 응답하였고 35.2%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불만도가 5~9시간 근로자보다 오히려 낮았다.

수입별로 비교해보면 '만족'이라 응답한 비율에서는 100만원 미만 소득자가 가장 높았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포함)의 소득을 가진 취업모가 불만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표 III-3-9 참조).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관련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사 변인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표 III-3-10 참조).

〈표 III-3-10〉 육아비용지원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구분	B	표준오차	β	t	누적 R <sup>2</sup>
상수	2.830	0.071	-	39.938	-
총보육비용	-0.002	0.000	-0.246***	-6.482	0.089
중사상위치(일용근로자)	0.513	0.122	0.155**	4.191	0.115
가구소득대비 보육비비율	0.001	0.000	0.127**	3.251	0.124
취업모 월소득	0.000	0.000	-0.093*	-2.424	0.132
3년제 이하 대학	-0.216	0.095	-0.080*	-2.176	0.138

주: \* p< .05, \*\* p< .01, \*\*\* p< .001.

초기 투입된 독립변인으로는 취업모 연령, 학력, 근로형태, 일일근로시간, 최초기 관이용시기, 이용기관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함하는 11개였으나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최종모형분석결과 총보육비용, 중사상위치 중 일용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보육비 비율, 취업모 월소득, 학력 등 5가지이었다. 즉, 총보육비용이 적을수록, 중사상위치가 낮을수록, 소득대비 보육비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취업모의 월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 이 때 설명량(adjusted R<sup>2</sup>)은 13.8%였다. 그 중에서도 총보육비용 지출과 만족도와의 연관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10 참조).

### 5) 아이돌보미 제도에 대한 인지

취업모의 61.1%가 여성가족부의 국고지원사업인 아이돌보미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모든 직업 유형의 절반이상이 아이돌보미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이돌보미 제도 인지가 가장 낮았던 유형은 농어업 및 임업 종사자들이었다(89.5%). 근로 시간에 따르면 일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67.9%), 수입 수준에 따르면 무급인 경우(70.7%) 아이돌보미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표 III-3-11 참조).

〈표 III-3-11〉 아이돌보미 제도에 대한 취업모의 인지도

단위: %(명)

구 분	잘 안다	대략 안다	모른다	계(수)	$X^2(df)$	
전체	13.2	25.7	61.1	100(861)		
관리자, 전문가	13.6	27.3	59.1	100(110)		
기술공, 준전문가	19.2	30.8	50.0	100(146)		
직업 유형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13.6	25.3	61.1	100(257)	18.5(10)*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11.6	24.6	63.8	100(224)	
	농업, 임업, 어업직	5.3	5.3	89.5	100( 19)	
	기능원, 단순노무직	8.6	23.8	67.6	100(105)	
일일 근로 시간	4시간 이하	12.3	19.8	67.9	100( 81)	2.6(4)
	5-9시간	13.8	25.8	60.4	100(623)	
	10시간 이상	11.8	28.0	60.2	100(161)	
수입 수준	무급	3.0	26.3	70.7	100( 99)	30.0(10)***
	100만원 미만	12.5	20.0	67.5	100(200)	
	100-150만원 미만	18.1	26.9	55.0	100(171)	
	150-200만원 미만	14.4	37.1	48.5	100(132)	
	200-300만원 미만	15.2	24.6	60.2	100(171)	
	300만원 이상	12.0	20.7	67.4	100( 92)	

주: \*  $p < .05$ , \*\*\*  $p < .001$ .

## 6) 가장 희망하는 육아지원 정책

취업모들이 가장 희망하는 육아지원 정책으로는 보육비 지원 확대가 38.1%로 가장 높았다. 직업유형별로 보면 농어업 및 임업 종사들의 경우, 수입 수준별로는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육비 지원 확대 정책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취업모가 원한 정책은 보육 다양성의 확대이다. 즉 연장보육, 주말보육, 야간보육 등 취업모의 상황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을 많이 요구하였으며, 이는 관리자 및 전문가 직업 집단, 10시간 이상 근로자, 소득수준에서는 100~150만원 미만 취업모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양육비현금지원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농·임업이나 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

직 취업모들이 비교적 많이 요구하였다(표 III-3-12 참조).

〈표 III-3-12〉 취업모의 희망 육아지원정책

단위: %(명)

구 분	국공 립시 설 확충	보육 비 지원 확대	양육 비 현금 지원	서비 스질 향상	육아 정보 제공	보육 다양 성 확대	육아 휴직 확대	탄력 근무	계(수)	X <sup>2</sup> (df)
전체	11.2	38.1	15.6	6.7	0.8	16.3	7.3	3.7	100(860)	
관리자, 전문가	11.9	28.4	11.9	5.5	1.8	22.9	13.8	2.8	100(109)	
기술공, 준전문가	1.9	36.7	15.0	8.2	-	16.3	7.5	5.4	100(147)	
직업 유형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15.6	33.1	14.8	7.8	0.4	16.0	7.0	5.1	100(257)	54(35)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7.6	44.2	15.2	7.1	1.3	14.3	6.7	3.6	100(224)	
농업, 임업, 어업직	5.6	50.0	27.8	-	-	16.7	-	-	100( 18)	
기능원, 단순노무직	8.6	47.6	21.0	3.8	1.0	14.3	3.8	-	100(105)	
일일 근로 시간 4시간 이하	11.0	36.6	20.7	12.2	3.7	9.8	4.9	1.2	100( 82)	
5-9시간	11.9	37.6	15.0	6.8	0.2	16.4	8.5	3.4	100(622)	373(14)*
10시간 이상	8.7	41.6	14.3	3.7	1.2	18.6	4.3	7.5	100(161)	
무급	6.0	44.0	20.0	9.0	2.0	12.0	4.0	3.0	100(100)	
100만원 미만	11.9	42.3	21.4	5.5	0.5	10.4	5.5	2.5	100(201)	
수입 수준 100-150만원 미만	8.9	40.8	16.6	5.3	0.6	20.7	5.9	0.6	100(169)	61.6(35)*
150-200만원 미만	11.4	35.6	10.6	6.8	2.3	18.9	8.3	6.1	100(132)	
200-300만원 미만	12.9	35.1	11.1	7.0	0.6	18.1	8.8	5.8	100(171)	
300만원 이상	16.3	29.3	9.8	7.6	-	16.3	13.0	7.6	100( 92)	

주: \* p< .05, \*\* p< .01 .

### 7) 주변에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수적 충분성에 대한 인식

주변에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수적 충분성에 대한 취업모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아이를 보낼만한 시설이 1~2곳 있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고, 보낼만한 시설이 없다는 응답은 20.4%로 나타났다. 직업유형별로는 농어업 및 임업,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의 경우, 일일 근로시간별로는 10시간 이상인 경우, 수입수준별로는 150만원 미만인 경우 아이를 보낼만한 시설이 1~2곳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취업모들 중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일수록 주변에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III-3-14>에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

변인으로는 취업모의 학력과 종사상 위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사상 위치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아이를 보낼만한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들 변인의 설명량( $R^2$ )은 1.4%에 불과하였다.

〈표 III-3-13〉 아이를 맡길 만한 주변 보육시설의 수적 충분성

단위: %(명)

구 분	없음	1-2곳 있음	많음	잘 모름	계	$X^2(df)$
전체	20.4	58.5	13.2	7.9	100(858)	
직업 유형						18.8(15)
관리자, 전문가	22.9	51.4	13.8	11.9	100(109)	
기술공, 준전문가	20.7	57.9	13.8	7.6	100(145)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21.8	54.5	12.8	10.9	100(257)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19.6	62.5	13.8	4.0	100(224)	
농업, 임업, 어업직	27.8	66.7	5.6	-	100( 18)	
기능원, 단순노무직	14.3	66.7	12.4	6.7	100(105)	
일일 근로 시간						5.5(6)
4시간 이하	23.2	58.5	13.4	4.9	100( 82)	
5-9시간	19.7	57.5	14.1	8.7	100(623)	
10시간 이상	21.1	63.4	9.3	6.2	100(161)	
수입 수준						46.8(15)***
무급	26.0	67.0	5.0	2.0	100(100)	
100만원 미만	15.0	60.5	20.0	4.5	100(200)	
100-150만원 미만	16.4	64.3	12.9	6.4	100(171)	
150-200만원 미만	18.9	53.8	15.2	12.1	100(132)	
200-300만원 미만	22.4	53.5	11.2	12.9	100(170)	
300만원 이상	31.2	51.6	8.6	8.6	100( 93)	

주: \*\*\*  $p < .001$ .

〈표 III-3-14〉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충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B	표준오차	Beta	t	$R^2$
(상수)	1.958	0.724	-	2.706	
종사상위치					0.014
임시근로자	0.279	0.099	0.186**	2.827	
일용근로자	0.227	0.113	0.122*	2.013	
학력					
중졸이하	0.342	0.183	0.105#	1.871	
고졸	0.211	0.127	0.178#	1.657	
4년제 대학 이상	0.213	0.120	0.166#	1.770	

주: #  $p < .10$ , \*  $p < .05$ , \*\*  $p < .01$ .

8) 낮 시간 동안 주로 돌보는 사람

낮 시간 동안 주로 돌보는 사람은 기관에 맡긴다는 응답이 33.4%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가 돌본다는 응답이 20.5%, 외조부모 18.1%, 친조부모 17.3%로 나타났다.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단순노무직,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경우 어머니가 돌본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표 III-3-15〉 낮시간 동안 주로 돌보는 사람

단위: %(명)

구분	부	모	아이의 형제	부모의 형제	친조 부모	외조 부모	친척	비혈연	기관에 맡김	계(수)	$\chi^2(df)$	
전체	2.0	20.5	3.4	0.9	17.3	18.1	0.7	3.5	33.4	100(860)		
관리자, 전문가	0.9	10.9	2.7	1.8	21.8	25.5	-	9.1	27.3	100(110)		
기술공, 준전문가	2.7	26.7	2.1	0.7	13.0	18.5	0.7	5.5	29.5	100(146)		
직업 유형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3.5	6.3	2.3	1.2	21.9	19.9	1.2	3.5	39.8	100(256)	137.4(40)***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0.9	28.9	4.0	0.4	16.9	17.3	0.4	0.9	30.2	100(225)	
	농업, 임업, 어업직	0	72.2	5.6	-	5.6	-	-	5.6	11.1	100( 18)	
	가능원, 단순노무직	1.0	29.5	6.7	1.0	10.5	10.5	1.0	-	40.0	100(105)	
일일 근로 시간	4시간 이하	2.4	73.5	1.2	1.2	3.6	7.2	-	1.2	8.4	100( 83)	178.8(16)***
	5-9시간	2.2	15.6	3.9	1.0	17.8	17.5	0.6	4.0	37.2	100(623)	
	10시간 이상	0.6	11.9	2.5	1.3	23.1	25.6	0.6	2.5	31.9	100(160)	
수입 수준	무급	1.0	57.6	3.0	-	14.1	9.1	-	1.0	14.1	100( 99)	264.1(40)***
	100만원 미만	1.5	35.0	5.5	1.0	8.5	11.5	-	0.5	36.5	100(200)	
	100-150만원 미만	3.5	11.7	5.3	0.6	17.0	15.2	1.2	1.8	43.3	100(171)	
	150-200만원 미만	2.3	12.1	1.5	-	25.0	20.5	0.8	4.5	32.6	100(132)	
	200-300만원 미만	0.6	5.3	1.8	0.6	21.6	26.3	1.2	4.1	38.6	100(171)	
	300만원 이상	3.2	4.3	2.2	4.3	21.5	29.0	-	14.0	21.5	100( 93)	

주: \*\*\* p< .001.

직업유형별로 보면 농어업 및 임업 종사자들은 제외하고는 기관에 맡긴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어머니,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돌본다는 응답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 및 임업 종사들의 경우 어머니가 돌본다는 응답이 72.2%로 매우 높았고, 기관에 맡긴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일일 근로시간에 따르면 4시간 이하인 경우 73.5%가 어머니가 주로 돌본다고 응답하였고, 5시간 이상인 경우 기관에 맡긴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친조 및 외조 부모가 돌본다는 응답비율도 높았다.

수입수준에 따르면 무급과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와 동일한 결

과가 나타났다. 무급인 경우는 57.6%가 낮 시간 동안 주로 어머니가 돌보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9%가 외조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다. 취업모 특성별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

### 1) 최초이용기관

육아지원기관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초이용기관으로는 어린이집이 68%로 가장 많았고, 기관 이용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22.3%로 나타났다. 최초 육아지원기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를 직업유형별로 비교해보면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입 수준별로는 100만원 미만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6〉 최초 이용 육아지원기관

단위: %(명)

구 분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학원	경험없음	계(수)	$X^2(df)$	
전체	68.0	7.6	0.8	1.0	22.3	100(860)		
직업 유형	관리자, 전문가	57.8	10.1	-	1.8	30.3	100(109)	36.0(20)
	기술공, 준전문가	68.5	3.4	0.7	1.4	26.0	100(146)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65.5	8.1	0.4	0.8	25.2	100(258)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71.0	9.4	1.3	0.9	17.0	100(224)	
	농업, 임업, 어업직	55.6	16.7	-	-	27.8	100( 18)	
	기능원, 단순노무직	80.0	3.8	1.9	1.0	12.4	100(105)	
일일 근로 시간	4시간 이하	67.1	8.5	-	1.2	23.2	100( 82)	4.5(8)
	5-9시간	68.1	7.1	0.8	1.3	22.4	100(624)	
	10시간 이상	68.3	8.7	1.2	-	21.7	100(161)	
수입 수준	무급	66.7	13.1	1.0	1.0	18.2	100( 99)	70.0(20)***
	100만원 미만	82.4	5.0	1.0	0.5	10.6	100(199)	
	100-150만원 미만	73.1	5.8	1.8	1.2	17.5	100(171)	
	150-200만원 미만	63.6	7.6	-	-	28.8	100(132)	
	200-300만원 미만	60.8	7.0	-	0.6	31.6	100(171)	
300만원 이상	49.5	10.8	1.1	4.3	34.4	100( 93)		

주: \*\*\* p< .001.

### 2) 최초이용시기

취업모 가정에서 육아지원기관을 처음 이용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평균 자녀가 25.7개월(표준편차 12.81) 정도일 때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최소값은 2개월로



생후 2개월시기부터 기관에 맡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직업이나 수입수준, 근로시간 등 모든 변인에 대해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결과를 여기에 실지는 않았다.

### 3) 현재 이용기관

현재 이용기관으로는 보육시설이 60.6%, 유치원 25.0%, 기타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영유아 전체 보육시설 이용률이 41.3%이고 유치원 이용률이 19.4%인 점에 비추어볼 때, 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전체 평균보다 32%p 가량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 중에는 민간보육시설 이용비율이 41%로 가장 높고 국공립시설 이용비율은 11.6%로 나타났다.

〈표 III-3-17〉 현재 이용 육아지원기관

단위: %(명)

구 분	보육시설						유치원		기타		계(수)	X <sup>2</sup> (df)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국공립	사립	학원	기타		
전체	11.6	7.2	41.0	7.7	2.8	0.3	7.8	17.2	3.3	1.1	100(653)	
관리자, 전문가	10.7	6.7	36.0	5.3	5.3	-	8.0	21.3	6.7	-	100( 75)	1739(30)**
기술공, 준전문가	12.7	7.8	44.1	15.7	1.0	-	2.9	9.8	4.9	1.0	100(102)	
직업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10.0	6.9	38.9	8.4	3.7	-	10.0	19.5	2.1	0.5	100(190)	
유형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12.0	6.5	38.0	6.0	1.1	-	9.2	21.7	4.3	1.1	100(184)	
농업, 임업, 어업직	15.4	-	46.2	-	-	15.4	15.4	7.7	-	-	100( 13)	
가능원, 단순노무직	13.5	10.1	51.7	3.4	4.5	-	4.5	9.0	-	3.3	100( 89)	
일일 4시간 이하	13.1	9.8	42.6	6.6	-	-	13.1	11.5	3.3	-	100( 61)	29.6(18)
근로 5-9시간	12.9	7.6	39.7	7.8	2.3	0.4	7.0	18.1	3.1	1.0	100(474)	
시간 10시간 이상	5.6	4.8	44.4	9.5	5.6	-	8.7	15.9	4.0	1.6	100(126)	
무급	10.5	7.9	34.2	7.9	-	2.6	9.2	22.4	3.9	1.3	100( 76)	928(40)**
100만원 미만	15.1	10.1	46.9	7.8	1.7	-	7.3	8.9	1.7	0.6	100(179)	
수입 100-150만원 미만	9.5	6.6	45.3	6.6	-	-	7.3	20.4	2.2	2.2	100(137)	
수준 150-200만원 미만	8.7	4.4	42.4	12.0	3.3	-	8.7	16.3	3.3	1.1	100( 92)	
200-300만원 미만	11.3	6.0	36.5	9.6	5.2	-	6.1	20.0	5.2	-	100(115)	
300만원 이상	11.7	6.7	28.3	1.7	8.3	-	11.7	23.3	6.7	1.7	100( 60)	

주: \*\* p< .01, \*\*\* p< .001.

직업유형별로 보면 모든 직업유형들이 현재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관리자 및 전문가 종사자, 사무종사자 및 직업군인 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들은 사립유치원을, 기술공 및 준전문가,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농어업 및 임업 종사자는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부모협동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높았다.

일일 근로시간에 따르면 4시간 이하인 경우 민간보육시설 다음으로 국공립보육시설과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5시간 이상인 경우 민간보육시설 다음으로 사립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수입수준별로 비교해보면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는 민간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순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100만원 미만의 경우 민간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 4) 서비스 이용 요일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일을 살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82%로 매우 높았고 격주로 토요일에도 이용한다는 비율은 9.2%였다(표 III-3-18 참조).

〈표 III-3-18〉 육아지원서비스의 주간 이용 유형

단위: %(명)

구 분	월~토 (매주)	월~토 (격주)	월~금 매일	일주일 에 3-4번	계(수)	$X^2(df)$
전체	8.3	9.2	82.0	0.5	100(651)	
관리자, 전문가	2.7	12.2	85.1	-	100( 74)	33.1(15)**
기술공, 준전문가	6.9	14.7	75.5	2.9	100(102)	
직업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6.9	9.0	84.1	-	100(189)	
유형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11.4	4.3	84.2	-	100(184)	
농업, 임업, 어업직	7.7	15.4	76.9	-	100( 13)	
기능원, 단순노무직	11.2	10.1	78.7	-	100( 89)	
일일 4시간 이하	13.3	-	83.3	3.3	100( 60)	29.2(6)***
근로 5-9시간	6.1	10.1	83.5	0.2	100(474)	
시간 10시간 이상	14.4	10.4	75.2	-	100(125)	
무급	5.2	6.5	88.3	-	100( 77)	14.1(15)
100만원 미만	11.8	10.1	77.0	1.1	100(178)	
수입 100-150만원 미만	8.8	10.9	80.3	-	100(137)	
수준 150-200만원 미만	8.6	8.6	81.7	1.1	100( 93)	
200-300만원 미만	8.8	7.0	84.2	-	100(114)	
300만원 이상	1.7	10.0	88.3	-	100( 60)	

주: \*\* p< .01, \*\*\* p< .001.

토요일 서비스 이용의 비율이 높은 직업은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나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기술공 또는 준전문가직종이었다. 각각 23.1%와 21.3%, 21.6%가 격주 또는 매주 토요일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일일근로시간에 따라 비교해보면 10시간이상의 경우에 토요일 이용률이 높았고, 수입수준에서는 100만원 미만 취업모집단의 20%이상이 토요일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이용기관의 시설설비 만족도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만족도를 취업특성별로 비교해보았으나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시설설비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III-3-19 참조).

〈표 III-3-19〉 육아지원기관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chi^2(df)$	평균
전체	0.4	6.8	29.9	51.7	11.1	100(458)		3.66
관리자, 전문가	2.1	10.6	27.7	44.7	14.9	100( 47)		3.59
기술공, 준전문가	1.2	8.3	25.0	59.5	6.0	100( 84)		3.62
직업 유형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	6.3	35.2	45.3	13.3	100(128)	21.7(20)	3.65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	7.6	31.4	49.2	11.9	100(118)		3.65
농업, 임업, 어업직	-	-	12.5	62.5	25.0	100( 8)		4.08
기능원, 단순노무직	-	2.7	27.4	61.6	8.2	100( 73)		3.76
일일 근로 시간								
4시간 이하	-	9.3	25.6	51.2	14.0	100( 43)		3.70
5-9시간	0.6	5.1	31.6	50.9	11.7	100(332)	9.8(8)	3.69
10시간 이상	-	12.6	24.1	55.2	8.0	100( 87)		3.59
무급	-	6.8	38.6	43.2	11.4	100( 44)		3.58
수입 수준								
100만원 미만	-	4.8	28.1	58.2	8.9	100(146)		3.71
100-150만원 미만	-	5.5	36.3	47.3	11.0	100( 91)	43.8(20)**	3.63
150-200만원 미만	-	7.4	27.9	58.8	5.9	100( 68)		3.63
200-300만원 미만	-	10.1	24.1	48.1	17.7	100( 79)		3.74
300만원 이상	5.7	11.4	20.0	42.9	20.0	100( 35)		3.63

주: \*\* p< .01.

전체적으로 시설설비 만족도는 만족이상이 62.8%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보통이 29.9%였고 7.2%는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1/3정도는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수입수준별 취업모 집단 의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월 수입이 200만원 이상 집단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취업모 집단에서 만족한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 2) 이용 기관 시간 운영에 대한 만족도

육아지원서비스 시간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시작시간의 경우 전체의 87.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관리자·전문가 집단과 기술공·준전문가 집단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농·임·어업 종사자들의 만족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3-20 참조).

〈표 III-3-20〉 육아지원기관 시작시간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계(수)	$X^2(df)$	
전체	87.4	4.9	7.7	100(652)		
직업 유형					22.6(10)*	
관리자, 전문가	81.1	9.5	9.5	100( 74)		
기술공, 준전문가	81.6	8.7	9.7	100(103)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88.8	0.5	10.6	100(188)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90.8	4.3	4.9	100(184)		
농업, 임업, 어업직	92.3	7.7	-	100( 13)		
기능원, 단순노무직	88.9	6.7	4.4	100( 90)		
일일 근로 시간					9.3(4)	
4시간 이하	85.5	11.3	3.2	100( 62)		
5-9시간	87.8	3.8	8.4	100(474)		
10시간 이상	85.6	7.2	7.2	100(125)		
수입 수준					13.3(10)	
무급	94.8	1.3	3.9	100( 77)		
100만원 미만	88.2	6.7	5.1	100(178)		
100-150만원 미만	82.5	5.8	11.7	100(137)		
150-200만원 미만	90.3	5.4	4.3	100( 93)		
200-300만원 미만	86.0	4.4	9.6	100(114)		
300만원 이상	86.7	3.3	10.0	100( 60)		

주: \* $p < .05$ .

시설이 보육을 마치는 종료시간에 대해서는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72%정도가 만족하고 있었다. 25.5%는 마치는 시간을 너무 이르다고 응답하였다. 비교적 서비스업이나 판매직 종사자, 10시간이상 근무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100~150만원 사이 수입수준을 가진 취업모들이 보육시설이 너무 빨리 끝난다는 의견을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21 참조).

〈표 III-3-21〉 육아지원기관 종료시간 만족도

단위: %(명)

구 분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계(수)	$X^2(df)$	
전체	72.0	25.5	2.4	100(654)		
직업 유형	관리자, 전문가	80.0	16.0	4.0	100( 75)	15.4(10)
	기술공, 준전문가	70.9	25.2	3.9	100(103)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74.1	23.2	2.6	100(189)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70.1	29.3	0.5	100(184)	
	농업, 임업, 어업직	92.3	7.7	-	100( 13)	
	기능원, 단순노무직	63.3	33.3	3.3	100( 90)	
일일 근로 시간	4시간 이하	73.8	26.2	-	100( 61)	3.4(4)
	5-9시간	72.8	24.7	2.5	100(474)	
	10시간 이상	66.9	29.8	3.2	100(124)	
수입 수준	무급	73.7	25.0	1.3	100( 76)	6.3(10)
	100만원 미만	71.5	25.7	2.8	100(179)	
	100-150만원 미만	68.6	28.5	2.9	100(137)	
	150-200만원 미만	78.5	19.4	2.2	100( 93)	
	200-300만원 미만	67.3	31.0	1.8	100(113)	
	300만원 이상	76.7	20.0	3.3	100( 60)	

## 라. 취업모 특성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현황

### 1) 보육료·교육비 국가보조금 수혜 여부 및 이유

#### 가) 수혜 여부

보육료·교육비 국가보조금 수혜 여부를 살펴본 결과, 취업모 가정 전체의 44.3%가 혜택을 받지 않았고, 일부 감면은 28.8%, 전액 면제는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별로 보면 농어업 및 임업 종사자,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전액 면제가 46.2%와 48.3%로 가장 높았다. 농어업 및 임업 종사자의 경우 일부 감면 대상까지 합치면 84.7%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일일 근로 시간별로 보면 4시간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가 38.3%로 높았다. 수입 수준별로 비교해보면 100~15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면제가 35%로 높았고, 100만원 미만은 전액 면제와 일부 감면이 39.9%의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표 III-3-22〉 국가보조금 수혜 현황

단위: %(명)

구 분	전액 면제	일부 감면	혜택 없음	계(수)	$\chi^2(df)$
전체	27.0	28.8	44.3	100(653)	
직업 유형					77.5(10)***
관리자, 전문가	2.7	24.3	73.0	100( 74)	
기술공, 준전문가	20.4	35.0	44.7	100(103)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22.8	24.3	52.9	100(189)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33.0	28.6	38.4	100(185)	
농업, 임업, 어업직	46.2	38.5	15.4	100( 13)	
기능원, 단순노무직	48.3	33.7	18.0	100( 89)	
일일 근로 시간					8.7(4)
4시간 이하	38.3	26.7	35.0	100( 60)	
5-9시간	23.8	28.9	47.3	100(474)	
10시간 이상	32.3	28.2	39.5	100(124)	
수입 수준					122.5(10)***
무급	31.2	28.6	40.3	100( 77)	
100만원 미만	39.9	39.9	20.2	100(178)	
100-150만원 미만	35.0	32.1	32.8	100(137)	
150-200만원 미만	19.4	24.7	55.9	100( 93)	
200-300만원 미만	8.8	18.4	72.8	100(114)	
300만원 이상	8.5	13.6	78.0	100( 59)	

주: \*\*\* p&lt; .001.

## 나) 수혜 이유

보육료·교육비 국가보조금 수혜 이유를 살펴본 결과, '기타저소득층지원'에 해당된다는 이유가 전체의 22.2%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소득에 따른 지원 제도들의 수혜자가 많이 여기에 응답한 듯하다.

직업유형별로 보면 기술공 및 준전문가 종사자,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일일근로시간별로는 4시간 이하인 경우, 수입수준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기타저소득층'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취업모 가정의 경우는 57% 가량이 농어민 보육료지원의 혜택자로서 지원을 받고 있었고, 14.3%가 전혀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았다. 서비스직 및 판매직 종사자의 경우는 특이하게 5세 무상 교육·보육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득에서는 취업모가 100만원 미만 수입을 가진 경우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3-23〉 국가보조금 수혜 근거

단위: %(명)

구 분	기초생활	모·부자가정	차상위	기타저소득	만5세아무상	세번제자녀	두자녀	장애아동	농어민자녀	기타	비해당	계(수)	X <sup>2</sup> (df)
전체	2.5	2.1	8.6	22.2	8.9	3.1	4.6	0.5	1.8	1.5	44.3	100(653)	
관리자, 전문가	-	-	2.7	10.8	5.4	5.4	1.4	-	-	1.4	73.0	100( 74)	358.5(50)***
기술공, 준전문가	1.0	2.9	3.9	32.0	5.8	1.9	3.9	-	-	3.9	44.7	100(103)	
직업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1.1	2.6	6.3	20.1	6.9	1.1	6.9	0.5	0.5	1.1	52.9	100(189)	
유형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4.3	1.1	9.7	19.5	14.1	3.8	5.4	1.1	1.6	1.1	38.4	100(185)	
농업 임업 어업직	-	-	7.1	21.4	-	-	-	-	57.1	-	14.3	100( 14)	
가능원 단순노무직	5.7	4.5	21.6	30.7	10.2	5.7	2.3	-	-	1.1	18.2	100( 88)	
일일 4시간 이하	11.7	1.7	10.0	25.0	8.3	1.7	1.7	-	5.0	-	35.0	100( 60)	49.6(20)***
근로 5-9시간	1.5	2.7	6.5	21.9	8.0	2.7	5.5	0.4	1.3	2.1	47.3	100(474)	
시간 10시간 이상	1.6	0.8	15.4	21.1	11.4	4.1	2.4	-	2.4	0.8	39.8	100(123)	
무급	2.6	-	2.6	24.7	13.0	3.9	2.6	-	9.1	1.3	40.3	100( 77)	216.0(50)***
100만원 미만	6.7	3.9	15.7	33.1	8.4	3.4	6.2	1.1	0.6	0.6	20.2	100(178)	
수입 100-150만원 미만	1.5	4.4	11.9	22.2	15.6	3.0	7.4	-	-	0.7	33.3	100(135)	
수준 150-200만원 미만	-	2.2	4.4	20.9	8.8	1.1	3.3	-	1.1	1.1	57.1	100( 91)	
200-300만원 미만	-	0	3.5	13.0	3.5	0.9	1.7	0.9	-	4.3	72.2	100(115)	
300만원 이상	-	-	1.7	6.8	-	6.8	1.7	-	3.4	1.7	78.0	100( 59)	

주: \*\*\* p< .001.

## 2) 보육·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 체감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 대해 체감하는 부담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57.3%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직업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일일 10시간이상 근무해야 하는 직업인 경우의 취업모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비교해보면, 월 150~200만원 미만의 수입이 있는 취업모의 경우 66.7%가 비용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전체 57.3%보다 9.6%p가 높고 집단별로도 가장 높은 부담체감도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소득수준과 부담감 정도는 일관적인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3-24〉 보육·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감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부담	부담되는 편	적당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 안됨	비해당	계(수)	$\chi^2(df)$
전체	14.4	42.9	20.7	10.9	5.1	6.0	100(651)	
직업 유형	관리자, 전문가	14.9	45.9	20.3	10.8	6.8	100( 74)	34.8(25)
	기술공, 준전문가	9.8	52.0	18.6	12.7	2.9	100(102)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14.8	39.7	24.3	12.2	3.7	100(189)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17.4	40.8	19.0	8.7	6.5	100(184)	
	농업, 임업, 어업직	28.6	28.6	-	7.1	7.1	100( 14)	
	기능원, 단순노무직	10.2	43.2	22.7	11.4	5.7	100( 88)	
일일 근로 시간	4시간 이하	9.8	45.9	13.1	19.7	4.9	100( 61)	23.9(10)**
	5-9시간	14.3	43.0	22.8	11.2	4.2	100(474)	
	10시간 이상	16.1	40.3	16.9	6.5	8.1	100(124)	
수입 수준	무급	24.0	42.7	14.7	10.7	2.7	100( 75)	37.7(25)*
	100만원 미만	11.8	45.5	18.0	9.6	6.7	100(178)	
	100-150만원 미만	15.9	36.2	23.9	14.5	1.4	100(138)	
	150-200만원 미만	17.2	49.5	17.2	6.5	5.4	100( 93)	
	200-300만원 미만	12.3	43.0	25.4	9.6	5.3	100(114)	
300만원 이상	5.0	40.0	26.7	18.3	8.3	100( 60)		

주: \*p&lt; .05, \*\* p&lt;.01.

### 3) 취업특성별 육아지원기관이용 비용 비교

취업을 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은 월평균 216,200원(표준편차 168,400원)으로 나타났다. 최대값은 1,848,000이었다.

취업 특성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관리자나 전문가직업 유형은 297,800원으로 가장 비용이 높았고 농업어업 종사자는 115,200원으로 가장 낮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근로시간별로는 하루 5~9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취업모가 228,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육아지원기관이용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준별로는 무급집단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많을수록 더욱 많은 비용을 기관이용에 지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입이 월 300만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 교육·보육 비용은 315,900원(표준편차 182,300원)으로 가장 높았다(표 III-3-25 참조).



〈표 III-3-25〉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F	
전체	216.2	168.4	0	1,848	659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297.8	179.7	0	1,080	74	10.33***
	기술공, 준전문가	217.7	138.6	0	600	103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237.4	155.4	0	841	189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205.7	196.3	0	1,848	185	
	농업, 임업, 어업직	115.2	123.7	0	364	13	
	기능원, 단순노무직	132.4	105.2	0	466	90	
일일 근로 시간	4시간 이하	154.6	157.3	0	1,000	61	6.17**
	5-9시간	228.8	171.3	0	1,848	474	
	10시간 이상	198.5	154.8	0	619	124	
수입수준	무급	204.5	149.8	0	740	77	20.13***
	100만원 미만	151.9	178.3	0	1,848	178	
	100-150만원 미만	175.7	129.0	0	610	137	
	150-200만원 미만	235.7	140.7	0	730	93	
	200-300만원 미만	304.6	157.1	0	1,000	114	
	300만원 이상	315.9	182.3	0	1,080	60	

주: \*\* p< .01, \*\*\* p<.001.

#### 4) 가구소득 대비 육아서비스 이용 비용의 비율

취업모 가구의 총소득 대비 영유아 자녀의 육아서비스 이용 비용을 보면, 평균 7.1%(표준편차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별로는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취업모 가구가 9%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종사직이나 판매직이 8%로 다음 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 의미는 없는 정도였다.

취업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소득 대비 육아서비스비용의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만원 미만 집단이 6.8~7.3%로 비교적 높았고(무급집단 제외) 표준편차를 고려해 보았을 때 200~300만원 미만 집단이 6.5%로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 집단의 경우는 4.6%로 현저히 낮았다. 즉,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수입이 많은 가구일수록 가구소득대비 육아지원기관 이용료의 비율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III-3-26〉 가구소득 대비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의 비율

단위: %, 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F	
전체	7.1	5.8	0	58	635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6.5	5.0	0	24	73	1.8
	기술공, 준전문가	6.8	4.5	1	25	101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6.5	4.2	0	29	182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8.0	7.5	0	58	177	
	농업, 임업, 어업직	9.0	5.8	0	16	11	
	기능원, 단순노무직	7.5	6.4	0	29	87	
일일	6.4	5.3	0	23	59	0.61	
근로	7.1	5.7	0	58	459		
시간	7.4	6.2	0	31	117		
수입수준	무급	10.0	8.7	0	58	72	6.40***
	100만원 미만	7.1	6.3	0	34	170	
	100-150만원 미만	6.8	4.9	0	31	131	
	150-200만원 미만	7.3	5.2	0	25	92	
	200-300만원 미만	6.5	3.9	0	29	113	
	300만원 이상	4.6	3.1	1	21	58	

주: \*\*\* p &lt; .001.

####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의 원 자료를 재분석하여 취업모의 특성별로 육아실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영유아 자녀를 둔 우리나라 취업모들의 특성을 보면, 평균연령은 33.9세이고, 37.2%가 고졸, 54.7%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종사하는 직업은 군인, 교사를 포함한 사무직이 30%, 서비스 및 판매직이 26%로 가장 많고 전문직·관리직은 13%정도이다. 종사상 위치로 볼 때, 상용근로자가 51.8%이고 임시직인 16%이며, 고용주나 자영업자는 12%정도였다. 일일근무시간은 5~9시간이 71.9%였으나 10시간 이상도 18.6%로 상당히 많았다. 취업모의 월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35%로 가장 많고 100만원 미만도 23%를 차지했으며, 취업모 가정 평균 가구소득은 384.5만원이었다.

자녀 양육 실태를 취업모 특성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이 크고, 육아비용의 어려움에 대한 반응은 소득과 반비례하였다. 가정내 육아분담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전문·관리직에 가까

울수록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육아비용지원 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52.6%가 불만이었던 바, 소득이 높고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불만율이 높았다. 아이돌보미 제도에 대해서 농·임·수산업 종사자나 단순노무직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고, 앞으로서의 육아지원정책으로 소득이 높은 취업모일수록 국공립 시설 확충과 보육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소득이 낮은 경우일수록 보육비지원 확대와 양육비 현금지원에 대한 희망이 컸다. 소득이 높고 전문직일수록 자녀를 맡길만한 곳이 없다는 인식이 많았고 조부모에 양육을 의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취업모들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을 보면, 평균 25.7개월에 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소득이 낮고 근로시간이 길며 단순노무직에 가까울수록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였다. 취업모의 18% 정도가 토요일에도 교육·보육을 이용하고 있고, 수입이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육아지원기관의 시설설비에 대해 불만족이 컸고, 단순노무직·기능원 가구, 그리고 10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모 가구가 저소득층 교육·보육 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대한 비용은 평균 216,000원 정도이고 직업이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은 더 커졌다. 가구소득대비 육아서비스 이용 비용의 비율에서는 평균 7.1%였고, 직업유형 중 농·임·어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분석 내용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크게 세 가지만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보육료 자율화 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소득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가까운 직업일수록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크고 보육시설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낮다. 같은 맥락에서 보육서비스가 다양화되기를 원한다. 이같은 의식은 자녀가 연령이 높아지면 유치원을 보내는 쪽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도 나왔다시피 소득이 높은 직업군이 유치원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므로, 보육시설 이용률을 유아에게서도 높이고 중산층 이상의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보육료 및 프로그램의 자율화를 도입해 볼 만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정의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전체 확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보육료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맞벌이 자녀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해 수당을 제공하고자는 정책 방안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가정내 육아를 지원하는 아이돌

보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취업모 중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전문직, 관리직 취업모일수록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비율이 높다. 오히려 소득이 낮은 경우나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본인이 일을 하면서 직접 육아를 책임지거나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조부모 이용 비율이 낮다. 최근 정부는 일하는 자녀 대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육아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서 논의한 바 있는 보육시설 다양화를 통한 질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중산층 이상의 시설 이용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조부모 노동력 이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많이 있는 조부모 의지 현상에 대해 정부가 특별히 비용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져 보인다.

반면, 조부모 노동력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취업모에 대해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질 좋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보듯이 저소득층의 아이돌보미 인지도가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보육료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을 겨냥한 아이돌보미 지원이 필요하다.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아이를 돌보면서, 또는 방치하면서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있다.

셋째, 상업지역, 관광지 등의 보육시설에는 서비스업 종사자 및 이용자를 위하여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는 주말 및 야간 보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대체교사 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보면, 취업모 중 서비스종사자나 판매직,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거나, 10시간이상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최근 수행된 연구(김은설 외, 2010)에 의하면, 관광지역에 세워진 보육시설에서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많아 주말보육 수요가 매우 높았으나 시설 사정상 휴일보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아예 보육시설 이용을 포기하는 취업모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지역 및 수요자 사정에 따라 주말보육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대체교사를 집중 투입하여 보육시설 이용에 편리함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http://www.mest.go.kr/>.

보건복지부(2010). 보육사업안내.

- 김은설·이윤진·최진·조혜주(2010).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김은설·장혜경·박수연(2008).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 고용노동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IV. 취약가정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최 윤 경<sup>8)</sup>

### 1. 분석 배경 및 내용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단계와 가정환경에 의해 영유아기 보육·교육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취약가정 내에서도 해당 영유아가 처한 가정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양육과정을 보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약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대개의 경우 저소득층의 빈곤에 초점을 두는 등, '소득수준'에 근거한 계층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Ackerman, Brown, & Izard, 2004a, 2004b; McLoyd, 1990). 그러나 경제적 취약성이라는 단일요인 외에 개별가정이 처한 고유한 생태학적 환경요소로 인해 취약성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Garcia Coll et al., 1996). 대표적인 예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가족해체의 증가로 늘어나는 한부모 가정, 그리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구성원을 두어 가족내 돌봄기능에 대한 요구도가 크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과 생활력, 기본적인 자녀양육의 기능을 저해당하는 장애·질환 가정 등 다양한 유형과 양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양적으로 증가하는 취약가정의 비율과 함께 취약가정내에서도 다양한 요구와 어려움을 갖고 있어 그 변이와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 분석은 동일하지 않은 양육과정과 요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가정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과 비용 현황을 가구특성에 근거하여 가정 유형별로 비교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현재 영유아자녀 양육현황에 대한 것으로, 가족내 돌봄과 양육의 현황은 어떠한지, 비모성 양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그 이용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둘째, 양육지원을 받거나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각 취약가정이 지불하는 비용과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구소득 및 지출과 같은 가구경제지표 대비 유아교육·보육의 이용 비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셋째,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에의 인지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육

---

8)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아지원 및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정부의 보육료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관한 객관적 지표 외에 각 취약가정이 인지하고 체감하는 주관적 지표를 통해 현재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육아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취약가정 지원시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해야할 요소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취약가정간의 차이점 및 비형평적 요소 등을 파악하여, 향후 취약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 간 보육·교육 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해 온 취약가정의 보육·교육 지원 정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약가정의 만족도와 요구도는 어떠한지, 또한 취약계층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의 수혜에서 저조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2. 분석 방법

### 가. 분석 자료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 중 영유아가 있는 2,459가구에 대한 가구조사 자료와 3,303명의 영유아 개별조사 자료이다(서문희 외, 2009). 이 연구에서는 취약가정을 ① 다문화가정, ② 한부모가정, ③ 농어촌가정, ④ 가구주 질환장애 가정, ⑤ 질환장애아 가정의 5가지로 구분하였으며<sup>9)</sup>, 취약가정 유형에 해당하는 480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 나. 사용 변수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분류한 취약가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결혼이민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둘째, 한부모가정은 가족유형에서 한부모 가정으로 응답한 경우, 셋째, 농어촌가정은 가구주의 직업이 농어민인 경우로 하였다. 넷째, 가구주 질환장애 가정은 가구주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

9) 이 연구에서 규정하고 분석한 '취약가정'은 본 연구설계에 의해 임의로 분류한 연구대상으로, 사전적 의미의 취약가정과 동일한 의미가 아님을 밝혀둠.

문에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로 하였으며, 다섯째, 질환장애아 가정은 최연소자녀가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분류하였다<sup>10)</sup>. 가구특성을 기준으로 취약가정을 유형화하여, 선별된 취약가정의 영유아 자녀 양육의 전반적인 현황과 비용 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및 정책 인지도와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육아지원정책이 취약가정에 미치는 효과와 인식을 살펴보고, 향후 취약가정 육아지원 정책에 근거가 되는 데이터 제공과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분석에 이용된 종속변인은 아동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리고 정부정책 인지도 및 보육·교육 서비스 만족도이다. 독립변수는 취약가정 5개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외 취약가정의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특성 등이 있다. 5개 취약가정별로 상호 비교하는 형식으로 조사하였으며,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서의 취약가정 집단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변량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기관 이용 만족도와 비용 부담 정도, 정부정책만족도 등에 대해 취약가정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균 비교를 하였다.

### 3. 분석 결과

#### 가. 취약가정 유형 및 가구특성

##### 1) 취약가정 유형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질환장애, 질환장애아동 가정의 취약요건에 해당하는 480사례의 분포는 <표 IV-3-1>과 같다.

<표 IV-3-1> 취약가정 유형 분류

단위: %(명)

구분	취약 가정					비취약 가정	계	
	취약가정 전체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농어촌 가정	가구주 질환장애 가정			질환 장애아 가정
%	14.5	24.5	29.5	10.1	28.4	7.5	85.5	100.0
(수)	(480)	(118)	(142)	(49)	(136)	(36)	(2,823)	(3,303)

10) 2개 이상의 취약가정에 중복 해당(56사례)되는 경우, 다문화·한부모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어 한 유형에 속하도록 분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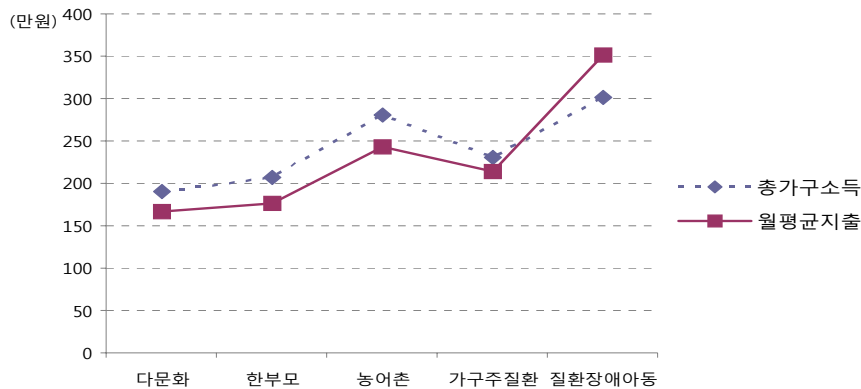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표집된 5개 유형 취약가정의 비율은 전체 영유아 사례 중 14.5%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가구주질환장애 가정의 경우가 많았다.

## 2) 취약가정 특성

### 가) 취약가정의 경제적 특성

취약가정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요인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경제적 요인으로 월 평균가구소득을 살펴본 결과, 영유아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297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취약가정 전체 평균 224만원, 비취약가정 전체 평균 307만원으로 취약가정의 가구소득이 낮았다. 월 평균가계지출 면에서도 취약가정 204만원으로 비취약가정 245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취약가정내에서는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이 가구소득과 가계지출의 측면에서 경제적 취약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2, 그림 IV-3-1 참조).



[그림 IV-3-1] 취약가정 유형별 월 가구소득 및 지출

자녀에게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질환장애아 가정은 취약가정내에서 가구소득과 지출면에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소득대비 지출이 큰 적자구조를 갖고 있어, 비취약가구 일반과 비교할 때 평균 가구소득수준은 낮고 지출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장애아 가정이 자녀를 돌보고 재활치료를 하는데 드는 양육비용의 부담이 커 소득대비 지출이 많은 적자규모의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3-2〉 취약가정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구 분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 질환장애	질환장애 아동	X <sup>2</sup> (df)/F	비취약 가정
월 가구소득 분포							
200만원이하	70.3	69.0	49.0	51.1	30.6	34.45(8) <sup>***</sup>	34.1
201~500만원	27.1	23.9	40.8	43.8	61.1		54.5
500만원이상	2.5	7.0	10.2	5.1	8.3		1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월평균가구소득	190	207	280	230	302	5.59 <sup>***</sup>	307
월평균지출	167	176	243	214	351	9.03 <sup>***</sup>	245
기초수급자비율	10.2	15.5	-	15.3	2.8	13.34(4) <sup>*</sup>	0.9
모 취업률	25.4	50.0	56.3	27.9	38.9	165.94(8) <sup>***</sup>	31.7
(수)	(118)	(142)	(49)	(136)	(36)	-	(2,823)

주: \* p&lt; .05, \*\*\* p&lt; .001.

기초수급자 비율과 월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비율도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취약성이 컸다. 그러나 취약가구별로 월가구소득 200~500만원과 500만원 이상의 비율도 적지 않아 각 취약가구내에서도 경제력의 범위가 다르다. 특히 농어촌가정과 가구주질환가정, 질환장애아 가정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 201~500만원의 중산층 가정이 4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동일한 취약가정의 유형내에서도 경제적 취약성이 동질적이지 않음을, 그리고 소득수준과 지출규모가 취약가정의 취약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모 취업률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가정과 가구주질환장애 가정을 제외한 한부모, 농어촌, 질환장애아의 취약가정에서 비취약가정 모에 비해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약 25% 모가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의 미취업이유로는 1순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기 위해, 2순위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로 취약·비취약 가정 통틀어 공통된 모 미취업 사유로 나타난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률이 다른 취약가정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모 취업의 요구도 대비 구직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 나) 취약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취약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정과 농어촌가정의 경우 부의 나이가 평균 41세, 39세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연령은 다

문화가정에서 가장 낮아 부부간 연령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원수의 경우, 비취약가구 일반에 비해 취약가정의 가구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대체로 자녀수가 많아서라기보다는 3세대 동거의 비율이 높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가정의 경우는 자녀수가 비취약일반과 다른 취약가정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0~만2세 영아자녀를 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거주지역을 살펴본 결과, 읍면지역 거주율이 농어촌가정을 제외하고 다문화가정의 경우 약 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다문화가정과 농어촌가정의 경우 중졸이하의 저학력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리고 부모 중 특히 부의 저학력 비율이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취약가정의 학력수준이 비취약가정에 비해 낮은 편이며, 취약가정내 부부간 연령 및 학력의 격차가 있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57%에 해당하는 가정이 어머니가 가구주인 편모가정인 것으로 나타나 편부가정의 비율 또한 43%로 적지 않았다. 다문화가정<sup>11)</sup>과 가구주 질환장애 가정에 모 가구주가 소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취약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세, 명, %

구 분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 질환장애	질환장애 아동	X <sup>2</sup> (df)/F	비취약 가정
부 연령	41.4	33.3	38.8	36.2	35.6	29.62 <sup>***</sup>	35
모 연령	31.3	33.3	35.7	33.0	33.3	5.53 <sup>***</sup>	33
가구원수	4.3	3.8	5.0	4.4	4.5	8.72 <sup>***</sup>	4.1
자녀수	1.7	1.6	2.2	1.9	2.0	8.41 <sup>***</sup>	1.8
3세대가족비율	36.4	-	28.6	17.6	29.7	488.19(12) <sup>***</sup>	12.2
읍면지역 거주율	25.4	17.7	70.8	17.5	16.7	71.89(8) <sup>***</sup>	15.3
부학력중졸이하비율	18.1	4.1	16.7	4.5	2.8	91.83(20) <sup>***</sup>	1.8
모학력중졸이하비율	8.8	2.9	4.2	1.6	-	81.23(24) <sup>***</sup>	0.4
배우자비율	94.8	-	100.0	94.7	100.0	340.23(16) <sup>***</sup>	99.9
영아자녀비율	66.1	31.2	49.0	41.9	29.7	36.42(4) <sup>***</sup>	54.2
모 가구주 비율	3.4	57.0	-	4.4	-	191.58(4) <sup>***</sup>	0.7
(수)	(118)	(142)	(49)	(136)	(36)	-	(2,823)

주: \*\*\* p< .001.

11) 다문화가정(N=113)의 경우, 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가 112사례(95%)이고 부가 결혼이민자인 경우는 6사례(5%)로 사실상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어머니가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온 경우에 해당됨.

요약하면, 취약가정은 비취약가정 대비 경제적으로 저소득-저지출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취약가정 내 소득-지출 규모, 학력 등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면에서 (부 기준) 만혼으로 인한 부부간 연령의 격차, 저학력이 취약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3세대 가족비율을 보였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장 큰 부부간 연령차이, 부모의 저학력, 높은 3세대거주, 그리고 높은 영아자녀비율을 특징으로 하였다.

## 나. 취약가정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 1) 보육·교육 서비스의 유형별 이용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질환장애, 질환장애아동의 취약요건에 해당하는 취약가정의 전반적인 광의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1)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2) 개인 양육지원, (3) 개인 사교육으로 구분하여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취약가정 영유아기 자녀의 보육·교육 서비스의 이용은 혈연·비혈연을 통한 개인 양육지원과 개인 사교육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 개인양육, 사교육의 세가지 유형을 통틀어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취약가정 전체 평균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 26.2%, 유치원과 방문학습지 각 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연령대 유아기에 국한하여도 보육시설 58.6%, 유치원 33.6%로 비취약 일반 가정에 비해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취약가정별로 보육·교육 이용률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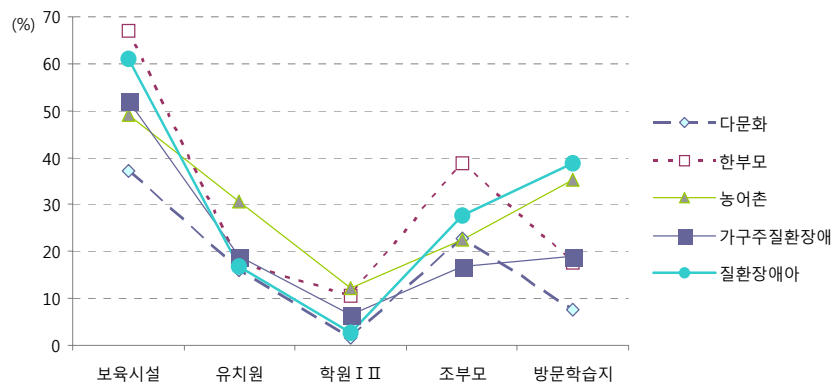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을 비교하면, 영유아기에 걸쳐 비취약가정 대비 취약가정의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유아기 유치원 이용률에 취약·비취약 가정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오히려 취약가정내 이용률에 차이가 있어, 보육시설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영유아기 모두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질환장애아의 경우 영아기의 이용률은 저조하다가 유아기에 이르러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취약가정내에서 영아기 보육시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적고, 유아기 유치원 이용률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취약가정의 영아기 자녀에 대한 기관서비스 이용률과 수요가 비취약가정 대비 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취약가정 유형별로 이용률에 차이가 있었다.

〈표 IV-3-4〉 취약가정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 (중복응답)

단위: %

구분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 질환장애	질환 장애아	X <sup>2</sup> (df=4)	취약가정 전체	비취약 가정
기관								
보육시설	37.3	66.9	49.0	52.2	61.1	24.02***	53.2	38.1
영아	29.5	65.9	58.3	51.7	27.3	19.37**	46.0	27.2
유아	52.5	67.0	40.0	51.9	76.0	11.59*	58.6	49.1
유치원	16.1	17.7	30.6	19.1	16.7	5.22	19.0	18.7
영아	-	-	4.2	-	-	7.95#	0.4	0.1
유아	47.5	25.8	54.2	33.3	23.1	11.97*	33.6	38.5
반일제이상학원(I)	-	2.1	-	0.7	-	4.56	0.8	2.5
특기보습학원(II)	1.7	8.5	12.2	5.8	2.8	9.42*	6.0	6.5
지역아동/주민센터	-	-	-	-	5.6	24.83***	0.4	0.8
문화센터 등	-	4.2	-	3.6	5.4	7.42	2.7	7.0
개인양육지원								
동거조부모	19.5	26.8	20.4	10.2	16.7	12.69*	18.9	7.2
비동거조부모	3.4	12.0	2.1	6.6	11.1	10.01*	7.3	13.8
동거친인척	-	2.8	-	0.7	-	6.62	1.0	0.5
비동거친인척	-	5.6	-	2.2	5.4	10.49*	2.7	1.7
기타비혈연	0.9	3.5	2.1	0.7	2.8	3.88	1.9	1.5
개인사교육								
육아전문파견인력	-	-	2.1	-	-	9.02#	0.2	0.4
교재교구방문	-	1.4	-	2.9	2.8	4.99	1.5	3.4
(방문)학습지	7.6	17.6	35.4	19.1	38.9	27.80***	19.0	24.3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3-2] 취약가정 유형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비율

둘째, 취약가정의 반일제 학원(I)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였다. 시간제 특기 및 보습학원(II)의 이용률은 취약·비취약 가정 간 비슷한 수준의 이용률을 보였으나, 취약 가정내에 이용률 차이가 있어 농어촌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서 평균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지역아동센터 및 주민센터의 이용률은 질환장애아가정에서 응답되었으며, 사설 문화센터의 이용률은 비취약가정보다 낮게 나타났다.

셋째, 개인 양육지원의 경우 취약가정에서는 동거 조부모(18.9%)의 지원이, 비취약 가정에서는 비동거 조부모(13.8%)의 도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정(38.8%)과 질환장애아(27.8%) 가정의 동거 및 비동거 조부모 양육지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질환장애 가정(16.8%)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 한부모와 농어촌, 다문화가정에서는 동거조부모의 지원이 높았다.

넷째, 개인 사교육의 이용은 전반적으로 취약가정 이용률이 비취약가정보다 낮은 가운데, (방문) 학습지의 경우 취약가정의 이용률도 적지 않았다. 특히 농어촌 가정과 질환장애아의 학습지 이용률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의 영유아자녀에 대한 방문학습 형태의 개인교육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개인교육 학습지 이용률이 가장 저조하여 이로 인한 취학전 학습준비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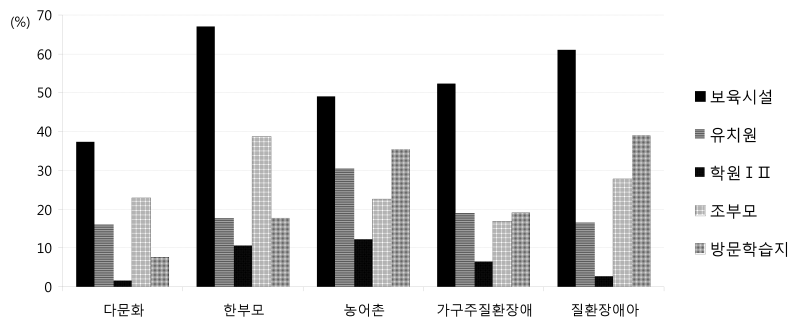
## 2) 취약가정 유형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양육현황

앞서 살펴본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을 취약가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미취학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취약가정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영아의 비율이 높았던 다문화가정의 표집특성을 고려하여 영아와 유아로 구분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취약가정 내에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이는 비취약가정의 이용률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이용률과 영아기 동거조부모의 양육지원은 취약가정 평균대비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보육시설 이용률은 영아 분포가 많은 특성과 3세대 주거로 인한 조부모세대의 양육지원, 읍면지역 거주에 따라 유아기 유치원 이용률이 높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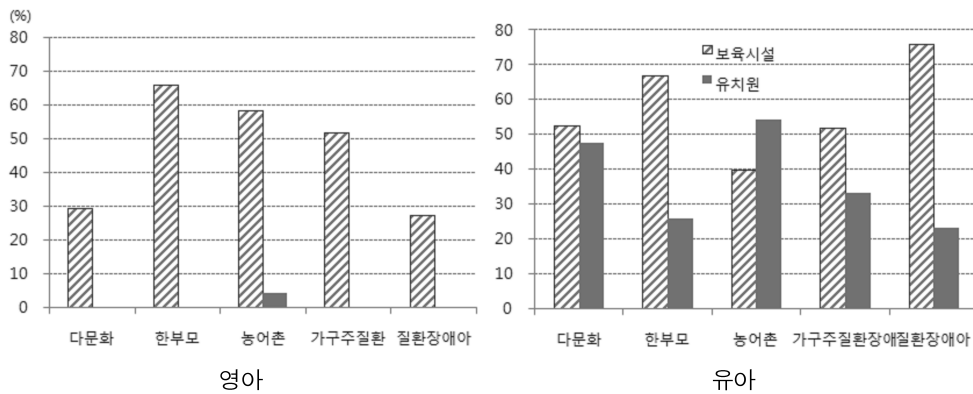
둘째, 한부모가정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보육시설 이용률을 보였는데, 이는 영유아 구분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높은 비율이었다. 한부모가정의 유아기 유치원 이용률은 낮았다. 또한 동거 및 비동거 조부모(38.8%)와 학원(10.6%) 이용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한부모 가정의 영유아기 자녀 대상 보육·교육 서비스 수요와

양육지원 요구도가 취약가정 내에서도 큼을 알 수 있다.

셋째, 농어촌가정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49.0%, 유치원 30.6%로 나타난 가운데, 다른 취약가정 대비 유아기 유치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보습학원 및 방문학습지의 이용률도 높았다.



[그림 IV-3-3] 취약가정 유형별 기관서비스 이용 비율



[그림 IV-3-4] 영유아 취약가정 유형별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비율 비교

넷째, 질환장애아는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높는데 이는 주로 유아기 이용에 기인하며, 유아기 유치원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른 취약가정에 비해 지역 센터 및 문화센터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질환장애아의 영아기 서비스 이용과, 유아기의 유치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낮시간에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 양육자에 관한 '가족내 양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부모가정을 제외하고는 영유아기 모에 의한 양육이 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모에 의한 양육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부모가정의 기관 이용률이 가장 높고 가구주질환장애 가정 아동의 기관 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대체로 비취약가정에 비해 취약가정의 모의 주 양육자 비율이 낮고 기관서비스 이용과 조부모 양육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3-5〉 낮시간 동안 주로 돌보는 사람

단위: %

구분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 질환장애	질환 장애아	X <sup>2</sup> (df)	취약가정 전체	비취약 가정
모	<b>83.8</b>	19.7	69.4	58.8	62.2	160.46(36) <sup>***</sup>	54.7	70.7
기관에맡김	3.4	<b>35.9</b>	6.1	22.1	13.5		19.3	13.5
친조부모	6.8	17.6	12.2	11.8	10.8		12.3	5.8
외조부모	0.9	17.6	6.1	5.9	2.7		7.9	6.1
(수)	(117)	(142)	(49)	(136)	(37)		(480)	(2,823)

주: \*\*\* p< .001.

요약하면, 보육시설의 경우 취약가정의 자녀 돌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기반특성을 보이긴 하나, 취약가정내의 이용률과 수요에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약특성에 따라 취약가구유형간의 기관이용 동기와 선호도를 파악하여 그 편차를 해소하고 수요도를 파악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고 유치원, 특기보습학원 및 (방문)학습지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농어촌 지역의 요구도 대비 보육시설의 확충이 미비한 결과인지 혹은 그들의 고유한 육아지원 서비스 수요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높은 보육시설 이용률이 한부모 가정의 보육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킨 결과인지, 질환장애아의 상대적으로 낮은 영아기 기관이용률과 유아기 유치원 이용률이 어떤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등,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 3) 설립유형별 보육·교육 서비스<sup>12)</sup> 이용 및 선택 이유

개별 아동조사 문항을 통해 현재 어떤 설립유형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

12) 앞에서 살펴본 〈표 IV-3-4〉 광의의 보육·교육 서비스 분류와는 다른 조사문항임. 설립유형에 근거함.



한 결과, 전체적으로 민간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농어촌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취약가정에서 민간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립유치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어촌 가정은 다양한 유형의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유치원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체로 국공립 기관(유치원·보육시설)의 이용률이,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질환장애아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주 질환장애아동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은 낮았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다문화가정과 가구주질환장애아 가정 아동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원 및 복지기관 이용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가정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서비스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표 IV-3-6 참조).

〈표 IV-3-6〉 현재 아이가 다니는 보육·교육 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 질환장애	질환 장애아	X <sup>2</sup> (df)	취약가정 전체	비취약 가정
보육시설						77.49(48)**		
국공립	7.9	12.8	19.5	8.0	21.4		12.0	10.2
법인	8.0	12.8	12.2	11.0	14.2		11.5	7.6
민간	46.0	50.4	19.5	42.0	35.7		42.6	38.3
가정(놀이방)	9.5	-	4.9	11.0	3.6		5.6	6.3
부모협동	-	-	4.9	-	3.6		0.8	0.1
유치원								
국공립	9.5	5.6	26.8	11.0	7.1		10.4	6.6
사립	19.0	14.4	12.2	14.0	14.3		14.8	24.3
학원/기타								
반일제영어	-	-	-	3.0	-		0.8	1.4
반일제이상미술	-	1.6	-	-	-		0.6	2.8
문화센터 등	-	0.8	-	-	-		0.3	-
복지기관								
선교원	-	0.8	-	-	-		0.3	0.9
지역아동/주민센터	-	-	-	-	-		-	-
(수)	(63)	(125)	(41)	(100)	(28)		(357)	(1,601)

주: \*\* p< .01.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 1순위를 조사한 결과, 집으로부터의 거리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

약가정의 경우는 프로그램 내용과 비용을 그 다음 중요 요소로 응답하였다. 반면 비취약가정은 프로그램 내용과 주변 평판을 그 다음 요소로 응답하였으며, 비용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IV-3-7 참조).

〈표 IV-3-7〉 현재 이용기관 선택 이유: 1순위

단위: %

구분	취약가정(수=355)	비취약가정(수=1693)	X <sup>2</sup> (df)
1위	집으로부터 거리 (27.0%)	집으로부터 거리 (22.3%)	39.85(16)**
2위	프로그램 (12.1%)	프로그램 (16.8%)	
3위	비용때문 (11.5%)	주변의 평판 (11.1%)	
4위	원장 (9.9%)	원장 (8.5%)	
5위	주변의 평판 (7.6%)	교사 (8.1%)	

주: \*\* p< .01.

선호하는 보육·교육시설 유형으로는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 국공립 시설의 순으로 나타나 공급면에서 월등히 많은 민간시설의 용이한 이용과 접근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변에서 선호할 수 있는 국공립시설의 수가 많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유치원의 경우 취약가정은 학교병설 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사립유치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농어촌 가정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였다.

〈표 IV-3-8〉 선호하는 보육·교육 시설 유형

단위: %(명)

구분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 질환장애	질환 장애아	X <sup>2</sup> (df)	취약가정 전체	비취약 가정
보육시설						52.71(28)**		
국공립	32.2	23.9	26.5	20.6	32.4		25.9	27.2
비영리법인	4.2	6.3	10.2	11.8	13.5		8.3	5.0
민간	31.4	43.7	20.4	37.5	24.3		35.1	31.1
가정	2.5	-	2.0	2.2	2.7		1.7	3.5
(수)	(118)	(142)	(49)	(136)	(37)		(481)	(2,823)
유치원						39.94(12)**		
학교병설	48.7	19.9	38.3	26.5	25.0		31.0	30.8
공립단설	6.0	9.2	6.4	8.8	8.3		8.0	11.8
사립	17.9	15.6	21.3	25.0	11.1		19.1	31.4
(수)	(63)	(125)	(41)	(100)	(28)			(477)

주: \*\* p< .01, \*\*\* p< .001.

국공립시설 선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통적으로 ‘비용이 저렴해서’(보육시설: 취약 62.1%, 비취약 49.9%; 유치원: 취약 59.3%, 비취약 50.4%)와 ‘신뢰가 가서’(보육시설: 취약 30%, 비취약 39.5%; 유치원: 취약 28.7%, 비취약 34.3%) 라는 이유가 1, 2 순위로 나타났다. 보육·교육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취약가정 부모가 특정유형의 기관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과 ‘신뢰도’의 2가지로 동일하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취약가정에 비해 취약가정의 경우가 많았다.

#### 다. 취약가정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비용

취약가정의 영유아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서비스 비용의 현황을 지불비용과 정부 지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표 IV-3-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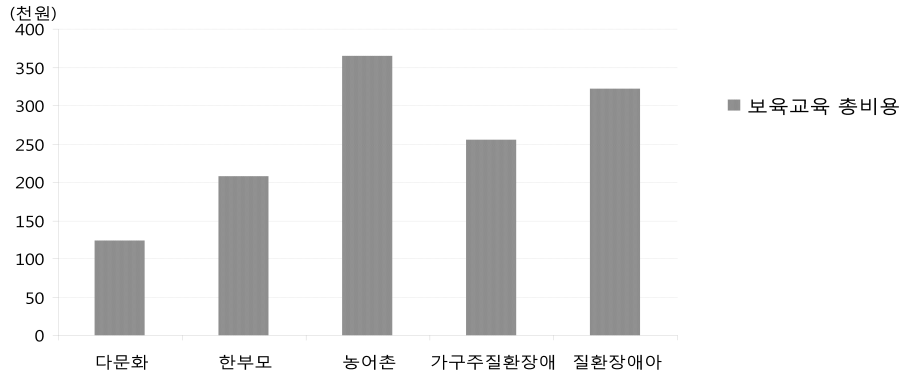
〈표 IV-3-9〉 보육·교육 비용 현황

단위: 천원, %(명)

구 분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 질환장애	질환장애 아동	X <sup>2</sup> (df)/F	취약가정 전체	비취약 가정
가구 보육·교육 총비용	124	208	366	255	322	10.25***	226	366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용	72	145	145	154	155	4.17**	130	200
자녀 1인당 정부지원금	91	151	114	107	186	8.71***	123	58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6.4	11.7	12.6	12.7	10.8	7.05***	10.7	12.0
가구지출 대비 총비용 비율	7.4	12.8	12.8	12.6	12.8	5.84***	11.4	14.1
기관보육·교육비 감면 가정 비율	88.9	85.7	92.5	75.0	92.9	11.46(4)*	84.6	56.3
기관이용 1인당 감면액	188	196	147	191	250	7.31***	192	168
자녀1인당 보육·교육비 부담률	34.6	36.3	46.0	38.4	35.0	1.71	37.4	50.7
(수)	(118)	(142)	(49)	(136)	(36)		(480)	(2,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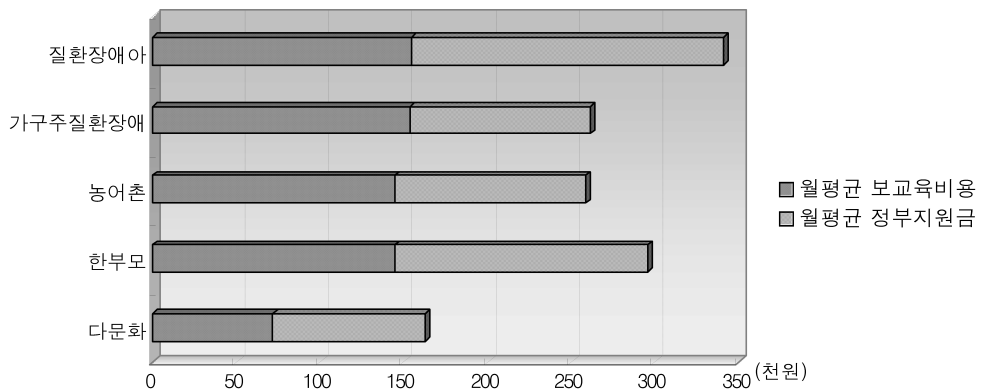
주: \* p< .05, \*\* p< .01, \*\*\* p< .001.

초등이하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 보육·교육 및 비모성 개인 양육지원, 개인 사교육 전반에 지불하는 보육·교육 총비용을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정에서 월 12만4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해당 자녀 1인당 비용으로도 월 7만2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농어촌가정과 질환장애아의 경우 보육·교육 비용이 각 월 36만6천원, 32만2천원으로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3-5] 취약가정 유형별 보육·교육 총 비용

최연소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당 보육·교육 비용과 정부지원금을 비교한 결과, 다문화, 한부모, 질환장애아 가정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부모의 지불 비용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농어촌가정과 가구주질환장애 가정의 경우는 지불비용보다 적은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약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료 지원이 다문화·한부모·장애아동 등의 취약요건에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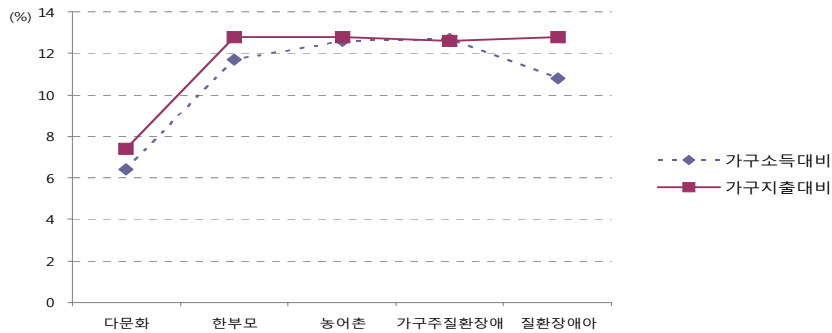


[그림 IV-3-6] 취약가정 유형별 월 평균 보육·교육비 및 정부 지원금

가구 보육·교육 총비용의 가구소득대비 비율에서는 취약가정이 평균 10.7%로 (범위 6~13%), 다문화가정(6.4%)을 제외하고는 비취약가구(12.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취약가정의 낮은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가계운영의 비용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어촌가정과 가구주질환장애 가정의 경우 가구소득 대비 부담비중이 비취약가구 일반과 별 차이가 없어 취약가구 내에서는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가정의 가구 보육·교육 총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취약 가정내에서 6%대로 가장 낮았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아동을 단위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경우 기관이용에 영유아 자녀 1인당 평균 월 11만2천원을 지불하고 약 18만8천원에 해당하는 비용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이용아동에 대한 평균 비용감면액은 각 가정이 실제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다소 많아 취약가정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관이용 중심의 비용지원은 수요자 지불 비용 대비 6~70%대, 평균 62.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부모부담률 평균 37.4%). 그러나 농어촌가정의 경우 기관이용에 대한 비용감면액수가 취약가구내에서 가장 낮아 기관이용비용 부담비율이 높은 수준이었다. 기관이용 영유아에 대한 비용감면 여부의 수혜율은 8~9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가구주질환장애 가정에 대한 비용감면 수혜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림 IV-3-7] 취약가정 유형별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총 비용 비율

한편, 취약가정에 기관이용시 정부가 부담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을 물어본 결과, 90%이상의 정부부담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34.7%로 약 1/3에 해당하는 취약가정 부모들이 무상 보육·교육에의 기대감을 나타냈고, 나머지 2/3의 부모들은 40~80%대의 지원비율에 대해 비교적 고른 응답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구체적 지원 요구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컸다.

기관이용비용에 한정하지 않고 기관이용과 개인 양육지원 등 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한 비용을 고려했을 때 월평균 가계지출 대비 몇 %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 물어본 결과, 10% 미만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4.1%, 10%대가 23.4%로 나타났다. 실제 가계지출대비 가구당 지불하는 보육·교육비 비중은 취약가정의 경우 평균 11.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취약가정의 보육·교육 총비용은 액수면에서는 비취약가구 평균에 못 미치는 적은 수준이나 가구소득대비 비중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객관적 지표가 아닌 주관적인 보육·교육비 부담은 취약가정의 가계에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 라. 취약가정의 보육교육 비용 지원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 1) 정부의 보육교육비용 지원 정책 인지도

취약가정의 영유아자녀 양육 및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비용지원에 대해서는 취약가정 전체 평균 인지도 92.1%로 대부분의 취약가정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민간 영아 보육시설의 기본보육료 지원과 만5세무상, 두자녀 이상 감면에 대해서는 약 50~70% 내외의 인지도를 보였고, 양육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취약가정 전체 평균 16.8%로 낮게 나타났다. 취약가정별로 비교하면 다문화가정의 정부정책인지도가 가장 낮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 정책의 홍보 및 정보 제공과 안내의 중요성이 제기된다(표 IV-3-10 참조).

〈표 IV-3-10〉 취약가정 정부지원정책 인지도

단위: %

구분	양육수당	차등비용지원	기본보육료	만5세무상	두자녀감면	장애아무상
다문화	9.3	84.1	49.1	50.9	45.7	24.6
한부모	18.4	97.1	59.8	60.6	69.5	45.0
농어촌	8.2	89.8	68.8	61.2	85.7	42.8
가구주질환장애	19.1	93.4	54.4	52.2	64.8	47.8
질환장애아	25.8	89.2	61.1	80.5	83.3	77.8
전체	16.8	92.1	57.2	59.6	66.3	44.4
$X^2(df=8)$	21.15 <sup>***</sup>	33.76 <sup>***</sup>	14.06 <sup>#</sup>	15.91 <sup>**</sup>	54.03 <sup>***</sup>	44.45 <sup>***</sup>

주: # p< .1, \*\* p< .01, \*\*\* p< .001.

한편, 다문화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매우 어렵다 또는 어렵다로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양육비 등 경제적 어려움(72.6%), 학습지도(52.5%), 양육방식에 관한 가족내 갈등(44.0%), 언어소통능력(38.2%), 외국인 부모라는 선입견(33.1%),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나 보육시설이 없음(30.5%), 아이의 외모 차이로 인한 사회적 적응(12.7%) 등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자녀 학습지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정부가 지원을 바라는 점은 양육비지원(31.1%),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이용(25.7%), 한글 및 언어교육(20.0%) 등으로 비용 지원에 관한 요구도(56.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정부의 보육·교육 비용 지원정책 및 서비스 만족도

취약가정의 현재 이용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기관 만족도와 도움정도에 비해 구체적인 기관 서비스의 만족도와 도움정도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표 IV-3-11〉 기관 및 정부정책 만족도

단위: 점

구분	기관 만족도 <sup>1)</sup>	기관 도움정도 <sup>2)</sup>	기관서비스 만족도 <sup>3)</sup>	기관서비스 도움정도 <sup>4)</sup>	보육교육서비스 비용 부담 정도	보육료지원정책 만족도
다문화	3.68	3.67	4.48	4.55	3.45	2.92
한부모	3.66	3.70	4.47	4.51	3.44	2.91
농어촌	3.82	3.81	4.78	4.80	3.14	2.65
가구주질환장애	3.69	3.65	4.43	4.48	3.72	2.81
질환장애아	3.70	3.45	4.37	4.39	2.92	2.99
취약가정 전체	3.69	3.68	4.49	4.53	3.45	2.86
비취약가정	3.69	3.62	4.37	4.44	3.63	2.55
F (취약가정내)	0.96	1.64	1.14	1.12	3.05*	0.75
F(취약가정 대비 비취약)	0.13	1.62	2.35*	1.90	-2.77**	5.51***

주: \* p< .05, \*\* p< .01, \*\*\* p< .001.

- 1) 원장, 교사, 주변환경, 비용, 교육내용 등 13개 항목에 대한 5점 척도 만족도 평균
- 2) 취업/구직, 업무/가사, 육아기술·지식 확대 등 6개 항목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5점 평정 평균
- 3) 가정통신문 제공, 식단 제공, 자녀발달평가 통지, 부모상담 등 5개 항목의 기관서비스에 대한 5점 척도 만족도 평균
- 4) 가정통신문 제공, 식단 제공, 자녀발달평가 통지, 부모상담 등 기관서비스 5개 항목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5점 평정 평균

농어촌가정의 기관 및 기관서비스 만족도와 도움정도가 높은 편이나, 취약가정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취약·비취약 가정의 기관 및 기관서비스 만족도와 도움정도를 비교하면 두 집단간에 만족도 체감에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구체적 기관서비스 만족도에서 취약가정이 비취약가정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보육·교육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과 정부의 보육료지원정책 만족도를 5점 척도 단일항목으로 물어본 결과, 취약가정의 경우 비취약가정에 비해 비용부담정도는 적게, 지원정책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게 조사되었다. 취약가정 내에서는 질환장애아 가정의 부담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구주질환장애 가정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 가정의 경우 부담도 평균에 의한 수치는 낮은 편에 속하나, 자녀 기관이용비용이 '전혀' 부담이 안된다는 항목과 '매우' 부담된다는 양극에 대한 응답율이 높아 농어촌 가정내 기관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의 변이가 크며 현재 그 취약성과 요구도가 농어촌 가정내에서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각 가정이 느끼는 주관적 부담도를 고려했을 때에도, (비용 감면수혜율과 미찬가지로) 가구주질환장애 가정의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장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농어촌 가정의 경우 현재 다양한 요구도와 (비용)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지원요구도가 높고 지원체계에서 빠져있는 농어촌가정내 실질적 취약층 내지는 지원수혜의 사각지대를 선별, 파악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전반적으로 취약가정과 비취약가정을 비교했을때, 비용부담의 체감은 보육·교육비용의 지불을 많이 하는 비취약가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보육료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취약가정에서 3점 미만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IV-3-12〉 만족도 개선 사항 (1순위)

단위: %

구분	취약가정 (수=358)	비취약가정 (수=1,693)	X <sup>2</sup> (df)
1위	비용 (20.1%)	비용 (25.6%)	
2위	주변환경 (17.3%)	주변환경 (15.2%)	
3위	시설설비, 실내환경 (14.2%)	시설설비, 실내환경 (13.7%)	29.29(14)*
4위	부모참여 (11.2%)	교재교구 및 장비 (8.3%)	
5위	급간식관리 (5.9%)	부모참여 (6.6%)	
6위	안전관리 (5.6%)	급간식관리(6.2%)	

주: \*\* p< .01.



한편, 현재 다니는 기관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개선을 바라는 사항은 취약·비취약 가정 공통적으로 비용과 주변 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의 순으로 나타나 기관 서비스 제공에의 요구 내용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문에 대한 비취약 가정의 1순위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취약가정의 부모참여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만족도 개선을 위해 비용 지원의 기관의 대내외 물리적 환경 요인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본 분석 결과, 취약가정의 영유아자녀 보육 및 교육 이용 현황은 비취약가정 대비 차이가 나는 동질적인 측면과 함께, 취약가정 내에서도 가구유형 및 특성에 따라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비용, 구체적인 양육현황, 그리고 체감 만족도와 요구도 등에서 다른 차이가 존재하였다.

첫째, 보육·교육 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발달 시기적으로 취약가정의 ‘영아기’ 이용률이, 기관유형별로 ‘보육시설’ 이용률이 비취약가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과 유아기 질환장애아 가정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보육시설에 비해 유치원의 취약가정 아동의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며, 다문화 가정과 농어촌 가정의 경우 유아기 유치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농어촌 가정과 질환장애아 가정의 방문학습지 이용률이 높았고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가장 낮은 등, 취약가정의 자원특성, 지역 인프라 및 정부지원체계, 이용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가정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동거 및 비동거 조부모의 양육지원이 취약가정의 자녀양육에 주요한 조력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육 서비스 비용에 있어 다문화 가정의 부담 비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 가정은 다양한 소득수준에 의해 평균 부담 비용은 취약가정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평균 순수 보육·교육 비용의 약 60% 이상, 총 보육·교육 비용의 약 50%이상 취약가정의 아동에게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약가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율이나, 3세 미만 아동 서비스에 대한 OECD 국가들의 25-30%에 해당하는 부모 부담률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가구소득대비로는 6~13%의 부담률을 보였다.

셋째, 만족도에 있어 전반적인 기관만족도보다는 구체적인 기관서비스의 효용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비취약가정에 비해 취약가정의 비용부담에 대한 체감도는 낮고 정부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서비스 이용을 통한 취약가정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비용부담 및 정책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취약가정내 영유아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비용의 지불 수준과 부담감,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 체감은 소득수준과 같은 전통적인 취약 변인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약가정의 '유형', 즉 환경적 요인에 의한 구체적 취약요인과 요구도에 근거한 취약가정의 지원 설계는, 소득수준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사료된다. 한편 취약가정 내에서도 경제적·비경제적 취약요인에 대응하는 나름의 가족지원체계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취약가정의 육아지원은 비용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과 내용, 지원방법을 다양화 해 취약가정의 요구 대비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맞춤형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취약가정 유형별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경우, 취약가정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육시설 이용률과 높은 조부모양육지원율이 다문화가정의 실수요에 근거한 구체적 양육행태의 차이라면, 기관이용을 통한 지원 외 가족체계지원과 학습지 등의 개인서비스이용권의 지급 등, 향후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설계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둘째, 한부모 및 질환장애아 가정의 경우 '양과 질'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지속적인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지원서비스의 제공(내용, 방법, 전달)을 통해 자녀양육의 물리적·경제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농어촌가정과 가구주질환가정의 경우 다문화, 한부모 등의 취약가정에 비해 영유아자녀 양육의 지원 및 이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구체적으로 농어촌가정 내의 변이가 크며, 가구주질환장애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비용 감면수혜율이 유의하게 낮고 국공립시설 등의 기관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어촌가정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여 서비스 우선필요층을 선별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가구주질환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서비스이용률과 비용지원을 제고를 위해 취약가정 지원체계로의 편입이 요구된다 하겠다.

넷째,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에 비해 다소 낮은 유치원 이용률을 통해, 유치원의 취약가정 아동 대상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기반특성을 드러냈다. 따라서 취약가정별로 지원 수준과 방법 등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의 다양화와 확대를 통해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제고가 요구된다.

다섯째, 전반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에 있어 조부모를 통한 양육지원이 여전히 자녀양육에 중요한 조력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가족체계내 양육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조부모 조력의 보육·교육지원 정책에의 편입을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취약가정과 비취약가정을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비취약가정에 대한 보육·교육료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비취약가정이 느끼는 비용부담은 크고 보육·교육 기관만족도 및 수혜감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저출산 대응 및 적극적·보편적 복지로의 정책적 전환을 고려하여, 비취약가정의 비용부담과 낮은 기관만족도를 정책에 반영하는 비취약가정 대상 정책설계가 함께 요구된다 하겠다.

## 참고문헌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가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Ackerman, B., Brown, E. & Izard, C. (2004a). The relations between contextual risk, earned income,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0, 204-216.
- Ackerman, B., Brown, E. & Izard, C. (2004b). The relations between persistent poverty and contextual risk and children's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40, 367-377.
- Garcia Coll, C., Lamberty, G., Jenkins, R., McAdoo, H. P., Crnic, K., Wasik, B. H., & Garcia, H. V. (1996). An Integrative Model for the Study of Developmental Competencies in Minority Children. *Child Development*, 67, 1891-1914.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African American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V. 보육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최 유 진<sup>13)</sup>

### 1. 분석 배경 및 내용

#### 가.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은 서비스 수요자를 수동적인 소비자로 접근하던 방식으로부터 적극적인 고객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활성화되었고, 여기서 최상의 서비스는 고객지향 서비스로 정의되고 있다. 고객지향 공공서비스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들의 요구에 적합하고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서비스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수요자의 만족 정도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보육서비스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수요자인 부모의 만족도는 보육서비스 제공의 성과를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더불어 고객 지향적 공공 서비스 체계 하에서는 고객만족으로 표현되는 보육서비스의 성과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존립 및 공적 지원을 정당화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고객지향적인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만족 현황을 파악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점검하는 일은 현재의 보육 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된다. 어떤 요인이 보육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가 선차적으로 분석되어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적절하게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객만족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서비스 만족과 서비스 질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보육 서비스 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 서비스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나. 선행 연구 검토

### 1) 보육서비스 만족도 영향요인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차별적인 결과를 내어 놓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보육시설의 위치나 거리보다는 보육의 질적 수준을 중요시한다는 결과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전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또한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었는데, 편리한 위치, 환경 설비, 안전,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준이다(Cryer & Burchinal, 1997). 또한 우리나라 연구의 가장 특징적인 경향은 보육시설의 설치 유형에 따라서 보육 환경과 운영 관리,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질적 구성 요소 및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 종사자의 전문성의 차이로 만족도의 차이를 설명해 온 경향이 있다.

한편 부모의 만족도는 자녀가 다니는 보육 시설에 대한 부모의 통제력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도 있다(Fuqua & Labemspim, 1986). 부모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 및 만족도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시간 경과에 따라 실내외 환경, 면적 및 구조와 같은 구조화된 영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구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비구조화된 영역인 프로그램, 교사의 질, 건강 및 영양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부모의 요구가 점점 증가되고 다양화되어 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정인숙, 1998). 최근에는 보육시설의 선택이유 등과 같은 보육인지도 요인이 만족도 요인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되었다(김경화, 2008)

보육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일관된 연구 결과를 얻을 수는 없으나,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육의 질과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기대 및 태도 등에 따라서 부모의 보육서비스 만족 수준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서비스 질

서비스 질 역시 만족의 개념과 같이 단일한 개념 정의가 어려운 개념이다. 서비스는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서비스 고유의 무형성과 소멸

성으로 인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의 목표로 정의되었다. 이에 대해 보육서비스 질의 평가 영역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와 협력 등 7개 영역으로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김온기 2008).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 변인을 보다 넓은 범위 전달체계나 만족도 등에서 찾고 있거나 타 학문영역에서 서비스 질을 측정하는 요소들을 원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비스 질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는 측면보다는 이용자 개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평가가 강조되고 이용자의 가치가 반영되며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자들마다 서비스 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비스 질은 내·외부 고객에 의해서 행해지는 판단이며 그 평가가 결과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전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점은 학자들간의 공통된 인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의료, 복지전달기관의 질과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박종무 송창현, 2000; 이영희, 2000; 차수련 채연수, 1999). 먼저, 교육서비스 질이 고객인 학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질의 영향을 밝힌 연구와 장애인의 주간보호 시설 이용아동 부모의 만족도에 교사의 학부모를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가 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질 모델인 서비스 측정기준(SERVQUAL)을 이용한 연구들 역시 지역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질, 의료서비스 품질,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질이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주장하였다(박주성·김중호·신용섭, 2002; 윤기찬, 2004). 이들 연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역사회복지관의 유형성, 확신성, 공감성이라는 서비스 질과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질 중 신뢰성, 보증성, 공감성, 신뢰성이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비스 질을 고객의 전체적인 평가와 태도의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서비스 질은 보육시설의 서비스 과정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전반적인 서비스의 우수성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고객만족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 2. 분석 방법

### 가. 분석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250개 표본조사구 15,000가구에서 실시되었으나, 보육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있는 1,343명의 영유아 개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통계분석방법으로는 교차분석,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요인분석, 그리고 서비스 질 요인이 보육서비스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나. 분석 모형

#### 1) 개념 정의 및 분석 수준

##### 가) 서비스 질

고객 만족을 측정하려면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기준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Parasuraman et al.(1985, 1991, 1994)이 제시한 서비스 측정기준(SERVQUAL)이 유용한 준거틀로 평가받고 있다. 서비스 측정기준인 서브퀄은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틀이라고 정의된다.

서비스 측정기준을 이루는 범주는 다음의 10가지이다. 물리적 시설이나 장비의 유형성(Tangibles), 약속된 서비스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제공하는 능력인 신뢰성(Reliability)<sup>14</sup>, 고객을 도우려는 의지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응성(Responsiveness),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의 보유를 의미하는 능력(Competence), 정중함, 사려 깊음, 정직함은 예절(Courtesy),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14) 정보 제공이라는 서비스 질 기준은 서비스 측정기준의 약속된 서비스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제공하는 능력인 신뢰성(Reliability)의 일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의 한계상 신뢰성 전반에 대한 측정이 어려워 신뢰성의 일 부분인 적절한 정보 제공으로 제한하여 분석함.

신용, 믿음, 정직함은 신용도(Credibility), 위험 등에 대한 안전성(Security), 접근과 접촉의 용이성인 접근가능성(Access),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고객과 고객의 요구를 알리는 노력을 의미하는 고객 이해(Understanding-Customer)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표 V-2-1>에서와 같이 정보제공, 대응성, 안전성, 접근성의 4가지 서비스 질 기준을 활용하여 보육 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다.

<표 V-2-1> 서비스 질 평가 기준

기준	내용
정보 제공	약속된 서비스의 일관된 제공
대응성	서비스 제공의 자발성, 적시성
안전성	위험, 의심으로부터의 자유
접근성	접근가능성 및 접근용이성

자료 : Parasuraman et al. (1985), 행정자치부(2006)

#### 나) 서비스 만족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비스 만족의 차원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서비스 만족의 차원에 대한 연구들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제공하는가에 따라 서비스 만족의 차원을 구분해 왔다. 즉, 무엇을 주로 서비스가 충족시키고자 하는 핵심 서비스를 포함하는 기술적 차원을 의미하며, 어디에서의 차원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을 포괄하며, 그리고 어떻게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사회적·심리학적 반응을 포함하는 서비스 관계로서 비기술적 차원을 의미한다(Donabedian, 1983; Kim, 199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육 시설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서비스의 질을 기술적 차원, 비기술적 차원, 환경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만족도 측정 수준은 보육시설의 기술적 차원으로 '프로그램 서비스 질'을, '비기술적 차원'으로 '직원서비스 질'을, 환경적 차원으로 보육시설의 '시설 환경서비스 질'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2) 측정지표

본 연구에서는 육아지원 기관 이용자가 지각하는 서비스 질이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분석에 활용될 변수는 다음의 <표 V-2-2>와 같다.



〈표 V-2-2〉 주요 측정지표

구분		변수
서비스 질	정보제공	급간식식단 제공, 보육계획표 제공, 가정통신 제공
	접근성	보육시설 일반적 설치, 보낼만한 보육시설
	대응성	끝나는 시간 만족, 시작시간 만족
	안전성	운영위원회 구성, 평가인증 시설
만족	시설·환경서비스	주변환경, 시설설비·실내환경, 내부분위기, 교재교구 및 장비
	프로그램 서비스	교육내용, 건강관리,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직원 서비스	원장, 교사,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
지속적 이용		보육시설 지속이용여부

### 3. 분석 결과

#### 가. 보육 서비스 질 영역별 부모 만족도

전반적으로 보육 서비스 만족도는 부모가 어떤 보육시설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와 보육 서비스 이용 이유 등의 판단 기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 1) 영역별 만족도

먼저, 전반적으로 보육 서비스의 만족도를 시설 환경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보육 서비스 제공자의 인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의 서비스 만족도는 보육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인적 수준, 시설 환경에 대한 만족도 순이다. 시설 환경은 보육시설이 위치한 주변환경, 보육 시설 내부의 시설설비, 교재교구 및 장비와 전반적인 내부 분위기 등을 의미하는 바,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의 시설 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은 100점 만점에 72.6점 수준이다(5점 만점에 3.63점). 다음으로 프로그램 만족도란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내용, 급·간식관리와 건강 및 안전 관리를 의미하는 바,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의 시설 환경에 대한 만

족 수준은 100점 만점에 75.4점 수준이다(5점 만점에 3.77점). 마지막으로 인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육 종사자인 원장과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과 보육 종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모 참여 및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4.4점 수준이다(5점 만점에 3.72점).

〈표 V-3-1〉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의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시설환경		프로그램		인적서비스		(수)
	5점 척도	100점 환산	5점 척도	100점 환산	5점 척도	100점 환산	
전체	3.63	72.6	3.77	75.4	3.72	74.4	(1,341)
모 취업여부							
취업	3.67	73.4	3.81	76.2	3.75	75.0	( 575)
미취업	3.61	72.2	3.73	74.6	3.70	74.0	( 716)
부재	3.64	72.8	3.81	76.2	3.72	74.4	( 50)
F	1.825		3.463*		1.068		
지역							
대도시	3.60	72.0	3.76	75.2	3.69	73.8	( 491)
중소도시	3.64	72.8	3.74	74.8	3.70	74.0	( 602)
읍면	3.67	73.4	3.86	77.2	3.82	76.4	( 249)
F	1.286		4.264*		4.797**		

주: \* p< .05, \*\* p< .01.

〈표 V-3-2〉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의 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시설환경	프로그램	인적서비스	(수)
전체	3.63	3.77	3.72	(1,341)
국공립	3.62	3.84	3.77	( 215)
사회복지법인	3.63	3.78	3.76	( 117)
기타법인	3.87	4.01	3.94	( 53)
민간	3.59	3.70	3.66	( 800)
가정	3.78	3.86	3.81	( 126)
직장	3.85	4.11	4.05	( 25)
부모협동	3.63	3.77	3.72	( 4)
F	4.431	7.543***	6.782***	

주: \*\*\* p< .001.

상대적으로 만족 수준이 낮은 시설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이나 보육시설 설립 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설립 유형 및 영유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표 V-3-2 참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미취업모 보다는 취업모가, 대도시 보다는 읍·면 지역과 같은 소규모 지역 거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국공립 시설의 프로그램이나 종사자의 인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자들보다 가정 보육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 2)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은 전반적인 감정 상태로 투입 대비 산출된 결과의 적절함에 대한 반응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실제적인 성과 간의 차이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반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만족도가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와 일정 부분 연관된 평가라는 점을 유추하게 하는 지점이다. 다음에서는 부모의 선호도와 보육 서비스 이용 이유 등의 판단 기준 등을 활용하여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기대 형태별 만족도의 차이를 측정된 결과이다.

부모들은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부모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영역별 서비스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시설환경 요인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선택한 집단은 보육시설의 내부 분위기, 시설설비, 시설 규모, 주변 입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경우이다. 프로그램을 주되게 고려한 경우는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고려한 경우이다. 인적자원을 주되게 고려한 경우는 원장과 교사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되게 판단한 경우이며, 질관리 등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한 집단은 일반적으로 우수한 보육시설이라고 인식되는 국공립 보육시설 인가의 여부, 주변사람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평판, 보육 시설 질관리 제도인 평가인증 통과 여부 등 일반적으로 우수한 시설임을 나타내는 주·객관적 평판을 주되게 고려한 경우이다. 접근성은 운영시간과 집과의 거리를 의미하며 이 밖에 비용을 고려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보육시설 선택시 면밀히 고려한 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선택시 시설 환경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집단은 다른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한 집단보다 보육시설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전체 평균 3.64점에 비해 3.77점).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한 집단은 전체 집단 평균 프로그램 만족도 3.77점에 비해 높은 수준인 3.85점이며, 원장과 교사 등의 인적자원을 높게 평가한 경우의 집단은 전체 집단 평균 인적자원 만족도 3.72점에 비해 높은 수준인 3.89점이다(표 V-3-3 참조).

그런 점에서 보육 서비스 만족도는 일반적인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서비스 이용자의 의도된 선택에 따른 서비스 평가 형태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표 V-3-3〉 보육시설 선택 이유별 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시설환경	프로그램	인적서비스	(수)
전체	3.64	3.77	3.72	(1,320)
시설환경	3.77	3.81	3.70	( 151)
프로그램	3.70	3.85	3.79	( 240)
인적자원	3.72	3.86	3.89	( 259)
질관리 등 평판	3.64	3.85	3.74	( 178)
접근성	3.52	3.65	3.58	( 409)
비용	3.51	3.69	3.64	( 84)
F	7.250 <sup>***</sup>	7.550 <sup>***</sup>	10.923 <sup>***</sup>	

주: \*\*\* p< .001.

보육시설 선택에서 주요하게 고려한 영역별 보육서비스 만족도 차이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는 집과의 거리나 운영시간 및 비용을 주되게 고려한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낮다. 프로그램이나 평판 등 정보 수집과 관찰 등이 필요한 영역을 보육시설 선택에서 주요하게 고려한 집단에 비해 거리와 운영시간 및 비용 등과 같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객관적인 요인을 주로 고려한 집단 간에는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것 역시 부모의 의도된 선택 행위라는 점에서 현재 이용하는 시설에 다니는 이유별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현재 시설 이용의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미래 대비 교육(초등학교 준비, 특기교육),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친구 사귀기(사회성 발달,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로 분류하여 집단별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하

여 보육 시설을 보낸다고 응답한 부모 집단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초등학교 준비나 특기 교육 등의 교육적 목표가 뚜렷한 집단과 사회성 발달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 결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가 있다.

〈표 V-3-4〉 보육시설 이용 이유별 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시설환경	프로그램	인적서비스	(수)
전체	3.64	3.77	3.72	(1,334)
전인발달	3.77	3.87	3.81	( 382)
미래대비 교육	3.59	3.75	3.71	( 72)
부모 취업	3.60	3.76	3.74	( 389)
친구 사귀기	3.57	3.71	3.65	( 491)
F	9.049***	6.365***	5.581**	

주: \*\* p< .01, \*\*\* p< .001.

## 나. 서비스 질 측정

### 1) 서비스 질 요인

보육서비스 질은 정보제공, 접근성, 시간 적정성, 안전성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보육서비스 질 요인으로 구성된 정보제공, 접근성, 대응성, 안전성 요인들이 실제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데 타당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최소 숫자에 집약·예측시킬 수 있는 주성분 방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채택하였으며 요인회전은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방법인 직각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채택하였다. 아이겐 값(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 및 요인점수를 추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아이겐 값(eigen value) 1 이상인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 4개의 요인은 총 분산 중 69.4%를 설명하고 있다. 4개의 요인 중, 요인 1에는 보육서비스 정보 제공과 관련된 변수들이 적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보육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통신문 제공이다. 요인 2에는 주변에 충분한 보육시설있는가와 믿고 보낼만한 보육시설의 충분성이, 요인 3에는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의 적절성이 적

재되었다. 요인 4는 현재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이 평가인증 시설인지 여부와 운영위원회 구성여부가 적재되었다.

〈표 V-3-5〉 부모 평가에 근거한 보육 서비스 품질 요인 분석

유형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정보제공	접근성	대응성	안전성
보육계획표 제공	0.844	0.066	-0.097	0.075
급간식식단 제공	0.839	-0.058	-0.007	0.144
가정통신 제공	0.793	-0.008	0.036	0.002
보육시설 접근성	0.000	0.860	-0.008	-0.030
양질의 보육시설 접근성	-0.001	0.838	-0.117	-0.038
끝나는 시간 적절	0.083	-0.045	0.846	-0.015
시작 시간 적절	-0.135	-0.078	0.816	-0.029
운영위원회 구성	0.033	-0.053	-0.083	0.797
평가인증	0.129	-0.011	0.042	0.786
eigen 값	2.089	1.461	1.414	1.282
분산비율(%)	23.213	16.235	15.716	14.245
누적 분산비율(%)	23.213	39.448	55.164	69.409

주: 1)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2) 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 2) 서비스 질 평가

### 가) 정보제공

정보제공은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선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보육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통신문 제공 등 보육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은 궁극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부모들은 100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보육계획안은 78.2점, 급·간식식단 역시 78.2점, 가정통신문은 80.2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육계획안과 급·간식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보다 읍·면 지역 부모가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가정통신문에 대해서는 유아보다

영아가 도움 정도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표 V-3-6〉 정보 제공 도움

단위: 점<100점 환산>, (명)

구분	보육계획안		급·간식		가정통신문		(수)
전체	3.91	78.2	3.91	78.2	4.01	80.2	(1,322)
지역							
대도시	3.89	79.6	3.93	79.6	3.99	79.8	( 486)
중소도시	3.89	79.6	3.86	77.2	4.01	80.2	( 590)
읍·면	4.01	80.2	4.01	80.2	4.02	80.4	( 246)
F	3.462*		5.104**		0.214		
영유아							
영아	3.92	78.4	3.92	78.4	4.09	81.8	( 538)
유아	3.91	78.2	3.91	78.2	3.95	79.0	( 784)
F	0.025		0.007		12.827***		

주: \* p< .05, \*\* p< .01, \*\*\* p< .001.

나) 접근성

접근성은 객관적으로 영유아가 다닐 수 있는 보육시설이 충분한지와 주관적으로 보낼만한 시설이 충분한지를 측정하였다.

63.3%가 충분한 보육시설이 있다고 평가하였고, 아동 연령에 따라서는 영아나 유아의 경우 충분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가 아니다(표 V-3-7 참조).

〈표 V-3-7〉 주변에 충분한 보육시설

단위: %(명)

유형	지역 규모			아동연령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영아	유아	
불충분	29.1	36.2	38.2	33.6	34.2	34.0
충분	68.4	60.3	60.6	63.3	63.3	63.3
잘 모름	2.4	3.5	1.2	3.1	2.5	2.7
계(수)	100.0(486)	100.0(590)	100.0(246)	100.0(538)	100.0(784)	100.0(1,343)
X <sup>2</sup> (df)	12.329(4)*			0.395(2)		

주: \*\*\* p< .001.

주관적으로 주변에 아이들을 보낼만한 시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65.3%가 1-2곳 정도 보낼만한 시설이 있다고 평가하였고, 15.3%는 아이를 보낼만한 시설이 많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80.6%의 부모는 집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1-2곳 이상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16.0%는 한 곳도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변에 아이들을 보낼만한 시설은 도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대도시 보다는 읍면 지역이 적절한 보육시설이 없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표 V-3-8 참조).

〈표 V-3-8〉 양질의 보육시설 충분성

단위: %(명)

유형	지역 규모			아동연령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영아	유아	
없음	14.2	16.7	18.1	15.6	16.3	16.0
1-2곳 있음	67.7	65.2	60.5	67.6	63.7	65.3
많음	15.0	13.1	21.0	13.4	16.6	15.3
잘 모름	3.0	5.0	0.4	3.4	3.4	3.4
계(수)	100.0(486)	100.0(590)	100.0(246)	100.0(538)	100.0(784)	100.0(1,343)
X <sup>2</sup> (df)	21.381(6)**			3.019(3)		

주: \*\* p< .01.

#### 다) 대응성

대응성은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이 등원 시간과 하원시간이 적절한지를 측정하였다.

〈표 V-3-9〉 등원 시간 적절성

단위: %(명)

유형	지역 규모			아동연령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영아	유아	
만족	87.0	87.0	83.9	83.5	88.6	86.5
너무 이롭	5.3	5.1	2.9	5.4	4.3	4.8
너무 늦음	7.7	7.8	13.3	11.1	7.1	8.7
계(수)	100.0(486)	100.0(590)	100.0(246)	100.0(538)	100.0(784)	100.0(1,343)
X <sup>2</sup> (df)	9.6(4)*			9.8(2)**		

주: \*\*\* p< .001.



시설 이용시간에 대해서, 등원시각은 전체적으로는 86.5%가 만족하고 하원 시간은 71.0%가 만족하고 있어 하원 시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떨어진다. 먼저, 등원 시간에 관하여 4.8%는 너무 이르다고 응답한 반면에 8.7%가 너무 늦다고 응답하였다. 등원 시간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영아 부모가 유아 부모보다 비율이 높고, 읍·면 지역이 도시보다 그 비율이 높다(표 V-3-9 참조).

하원 시간에 대해서는 25.8%가 너무 이르다고 응답하였고 3.2%가 너무 늦다고 응답하였다. 하원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유아보다는 영아가, 중소도시에서 약간 비율이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다(표 V-3-10 참조).

〈표 V-3-10〉 하원 시간 적절성

단위: %(명)

유형	지역 규모			아동연령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영아	유아	
만족	72.6	69.6	71.4	68.1	72.9	71.0
너무이름	24.2	27.2	25.8	28.8	23.8	25.8
너무늦음	3.2	3.2	2.8	3.1	3.3	3.2
계(수)	100.0(486)	100.0(590)	100.0(246)	100.0(538)	100.0(784)	100.0(1,343)
X <sup>2</sup> (df)	1.4(4)			5.4(2)		

라) 안전성

안전성은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이 평가인증 시설인지 여부와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측정하였다.

〈표 V-3-11〉 평가인증 관련 시설 이용 여부

단위: %(명)

유형	지역 규모			아동연령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영아	유아	
평가인증 받음	60.1	53.7	48.8	51.1	57.9	55.1
평가인증 받지 않음	10.2	8.5	9.3	12.0	7.4	9.2
평가인증 여부 모름	20.2	25.4	29.4	25.9	23.1	24.2
평가인증 제도 모름	9.6	12.5	12.5	11.1	11.7	11.4
계(수)	100.0(486)	100.0(590)	100.0(246)	100.0(538)	100.0(784)	100.0(1,343)
X <sup>2</sup> (df)	13.852(6)*			11.388(3)*		

주: \* p< .05.

평가인증은 일종의 보육서비스 표준이라고 볼 수 있다. 55.1%의 부모가 평가인증 시설에 다니고 있으며, 평가인증 시설인 여부는 도시 규모가 클수록, 영아보다는 유아의 경우가 비율이 높다. 평가인증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다는 부모는 전체의 24.2%인데, 대도시보다는 읍면 지역 부모들과 유아보다는 영아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평가인증 여부를 모르는 비율이 높다(표 V-3-11 참조).

운영위원회는 보육시설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는 기구이다. 전체 부모의 53.1%는 보육시설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다는 점을 아예 모르고 있고 운영위원회 제도는 알고 있으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25.8%이다. 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부모의 인지도가 가장 떨어졌고, 중소도시의 운영위원회 설치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유아 부모 보다 영아 부모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표 V-3-12 참조).

〈표 V-3-12〉 운영위원회 설치 시설 이용 여부

단위: %(명)

유형	지역 규모			아동연령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영아	유아	
있음	22.0	17.9	27.0	15.7	24.8	21.1
없음	25.8	24.4	29.0	26.8	25.2	25.8
제도 모름	52.2	57.6	44.0	57.5	50.0	53.1
계(수)	100.0(486)	100.0(590)	100.0(246)	100.0(538)	100.0(784)	100.0(1,343)
$\chi^2(df)$	14.898(4)**			16.483(2)***		

주: \*\* p< .01, \*\*\* p< .001.

## 다.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만족

### 1) 만족 영향 요인

서비스 품질 요인들이 부모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부모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30.946$ ,  $p<.001$ ) 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21.9%이다.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정보제공, 안전성, 대응성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크기는 정보제공이 전체적인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표 V-3-12 참조).

접근성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인 보육 인프라보다는 현재 영유아가 다니는 보육시설이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V-3-13〉 보육 서비스 부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회귀계수(B)	표준회귀계수(β)	t
정보제공	0.211	0.420	10.000***
접근성	0.006	0.013	0.304
대응성	0.059	0.118	2.798**
안전성	0.084	0.167	3.982***
(상수)	3,738	-	177.046
F	30.946***		
R <sup>2</sup> (조정된 R <sup>2</sup> )	0.219 (0.212)		

주: \*\* p< .01, \*\*\* p< .001.

## 2) 재이용 의사 영향 요인

다음은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 하려는 의도에 전반적인 부모의 만족도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속이용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하였다. 그 결과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13%에 그치고 있다(표 V-3-14 참조).

〈표 V-3-14〉 보육 서비스 부모 만족도가 재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

구분	회귀계수(B)	표준회귀계수(β)	t
부모 만족	0.114	0.114	4.190***
(상수)	1.103	-	10.881***
F	17.558***		
R <sup>2</sup> (조정된 R <sup>2</sup> )	0.013 (0.012)		

주: \*\*\* p< .001.

##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서 만족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첫째, 무엇보다도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현 수준이나 결과

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육 프로그램, 시설환경 및 보육종사자의 전문성이나 자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인서비스 영역에 대해 모두 보통 수준의 만족을 하고 있으며 세 영역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가 느끼는 보육시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가 특정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김으로써 받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인 감정이다. 이는 주관적인 느낌이며 또한 그 만족의 정도는 상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기대요인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로 보육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나 욕구의 충족정도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서비스를 소비할 때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내지 바람직한 수준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부응하느냐 하는 것이 서비스 품질의 척도가 된다. 흥미로운 결과는 부모가 보육시설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이유에 따라서 보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보육 서비스 수요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식 또는 요구를 근거로 만족도를 의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원인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판단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전반에 대해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분석하여 기관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보육 서비스의 질 요인을 정보제공, 접근성, 대응성, 안전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보육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은 정보제공, 안전성, 대응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요인인 정보제공은 성실한 약속이행으로 인한 믿음이고 안전성은 위험이나 의심스럽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부터 영유아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일정시간 보육하게 하는 부모에게 보육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 수 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내 자녀가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반면에 보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에 접근 가능성이 높은 거리에 얼마나 충분한 보육시설이 있는가와 같은 인프라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내 자녀가 다니는 보육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내가 알고 있는 매일의 일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모의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에 더욱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보육시설은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요자인 부모와 더 잦은 접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보육서비스 만족도에 정보제공과 안전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 및 보육 서비스 관련 정보를 더 많이 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에 따라서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보육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사회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하다. 고객들의 기대는 커뮤니케이션, 개인적 욕구 및 과거 경험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고객들은 이 기대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평가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후에는 기대했던 서비스와 지각한 서비스를 비교·평가하는 것이다. 이 때 지각된 서비스가 기대했던 서비스와 일치 하거나 이를 능가하게 되면, 고객은 만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항목의 기대 수준과 실제 경험의 차이인 성과 기대수준(Performance - expectation)인 차이의 합이 서비스 품질의 크기라는 점에서 현재 보육 서비스의 운영 방법이 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아질 때, 보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 수준 역시 일정 부분 향상될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만족도에 보육시설 운영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육 시설의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부모들의 평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을 구성해 온 평가인증 지표 등을 활용하여 보다 확장된 서비스의 질 요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보육실태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 구성차원의 구성이 다소 제한적이다. 교사-아동의 상호작용의 질과 영유아 학습경험의 질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보육 서비스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들은 질 좋은 서비스를 판단하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수행되었다. 하지만, 부모의 보육 시설의 질적 수준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Sonenstein & Wolf, 1991; Waite, 1991; 전춘애, 1999). 부모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때 보육교사나 전문가에 비해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에 대해 만족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입장과 부모와 교사 및 전문가의 인식차이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 양

립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사 및 전문가의 보육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함께 분석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경화(2008). 어린이집 부모의 보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 제12권, 제4호.
- 김은기(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육아정책포럼*, 제9호.
- 박종무·송창현(2000). 의료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만족: SERVPERF의 한국적 적용. *경영연구*, 제8권.
- 박주성·김중호·신용섭(2002). 대학교육 서비스품질 요인이 학생만족, 재입학 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마케팅저널*, 제4권, 제4호.
- 윤기찬(2004). 서브퍼프를 이용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측정 및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행정논총*, 제42권, 제4호.
- 이영희(2000). 교육서비스 질 측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 *고객만족경영연구*, 제2권, 제2호.
- 전춘애(1999). 어머니의 보육시설 질적 기준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성 인식정도.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7권.
- 정무성(2002).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9권.
- 정인숙(1998).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부모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추이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6권.
- 차수련·채연수(1999). 교육 서비스 품질 측정에 관한 연구. *경상논집*, 제20권.
- 행정자치부(2006). *고객만족 행정혁신 모델실행 기본 매뉴얼*.
- Cryer & Burchinal(1997). Parents as child care consum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35-58.
- Donabedian, A.(1983). Quality, Cost, and Clinical Decision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68, 196-204.

- Fuqua & Labemspim(1986). Parents as consumers of child care. *Family Relations*, 35, 295-303.
- Kim, P. K.(1998). Revolution in public service delivery.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 Theory and Behavior*, 1(2), 129-161.
- Parasuraman, A., Berry, L. L. & Zeithaml, A. A.(1988). SERVQUAL: A Multiple-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64(1), 12-40.
- 
- (1994). Reassessment of Expectation as a Comparison Standard in Measuring Service Quality: Implication for Further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58(1).
- Sonenstein, F. L. & Wolf, D. A.(1991). Satisfaction with Child Care : Perspectives, Qualith, and cost of Welfare Mothers. *Journal of Social Issues*, 47.
- Tse, D. K., & Wilson, P. C.(1998). Model of Consumer Satisfaction: an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5.
- Waite, L. J.(1991). What parents Pay For: Child Care Characteristics, Qualith, and Cost. *Journal of Social Issues*, 47.
- Westbrook, R. A. & Reilly, M. D.(1993). "Value-Percept Disparity: An Alternative to the Disconfirmation of Expectations Theory of Consumer satisfaction," i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Edited by P. B. Richard & Alice M. T.: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 VI. 보육서비스 이용의 지속성과 정책 변화에 따른 이용 만족도 변화: 2009-2010

서 문 회<sup>15)</sup>  
최 혜 선<sup>16)</sup>

### 1. 분석 배경 및 내용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2000년 이후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무엇으로 측정하는가는 많은 기준이 있으나 보호자의 만족도라는 주관적 평가 또한 주요한 지표가 된다. 보육실태 조사에서도 부모가 인식하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이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부모의 보육정책이나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보육정책과 함께 달라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보육비용을 지원받게 되거나 지원금액이 증가하면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고 또한 보육비용 지원이 없어도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면 부모의 보육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사실, 2004년 이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 및 비용 지원 확대 정책에 의하여 부모 만족도 부분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조사 결과와 2004년과 비교해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기준으로 1.80점 증가하였다. 13개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변환경만 제외하고 12개 항목의 만족도가 모두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부모부담금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낮아졌고, 동시에 평가인증 등으로 질적 수준이 개선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9년 대비 2010년 정책이 차이를 보인다면 부모의 만족도나 정책에 대한 만족도 당연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009년 상반기와 2010년 하반기의 보육정책 차이는 적지 않다.

먼저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수단으로 도입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 시설 비율이 높게 증가하였고 평가인증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평가인증 신청 년도를 기준으로 2008년에 신청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

15)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6)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13,099개소로 보육시설의 비율은 39.1%이었으나 2009년 신청 기준으로는 20,255개소, 전체 보육시설의 60.5%로 증가하였다. 2009년은 평가인증 시설이 소수에서 다수로 전환된 기점으로, 시설들 간에 평가인증 신청은 시간문제로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도 2009년 7월 이후 몇 가지가 개선되었다. 첫째, 보육료 차등 지원 제도는 2009년 6월까지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지원 단가를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소득 50%를 초과하고 60%까지는 기준단가의 60%, 하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0%까지는 기준단가의 30%를 지원한다. 이러한 기준의 상한 소득 기준은 4인가족 기준으로 각각 258만원, 339만원, 436만원이다. 둘째, 2009년 7월부터 맞벌이 가구의 부모 소득 중 낮은 소득의 일부(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됨에 따라 맞벌이 가구 중 15,000명가량이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다. 셋째, 2005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자녀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비용의 일부(2008년 20%, 2009년 50%)를 지원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가구의 출생순위상 둘째아 이상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득하위 70%이하 아동은 전액 지원된다. 이로 2009년 말 보육료 지원아동은 79만 500여명으로 보육아동의 67.7%가 되고 50% 이상이 전액 지원 대상인 것이다. 또한 2009년 9월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양육수당은 24개월 미만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 가구이며, 4인 가족 기준 가구소득 163만원 이하 가구이다. 지원액은 월 10만원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된다(보건복지부, 2010).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배경으로 2009년 조사와 2010년 추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응답자의 보육 정책 및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당시 0~4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이용의 지속성 정도와 변동의 이유를 알아보고, 둘째, 보육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의 변화를 알아보고, 셋째, 보육시설 이용자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2009년 4, 5월 조사와 2010년 9월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평가인증 인지 및 보육시설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정도의 변화 및 평가인증 인식과 만족도간의 관련성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그 간 기존연구의 만족도 연차별 비교가 응답자가 달랐다면, 본 연구는 지속적 보육시설 이용 여부를 구분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응답자의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였다는 차별성이 있다.

## 2. 분석 방법

### 가. 분석자료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에서 조사 당시 보육시설에 다니는 14세 아동 중 일부 자료와 이들을 대상으로 2010년 9월에 전화조사로 추후 조사된 아동 자료이다.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에서는 영유아가 있는 2,459가구에 대한 가구에서 3,301명의 영유아가 조사되었고, 이중 1,342여명이 보육시설 이용아동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2009년 만 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구에서 1명으로 한정하여 전화로 추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전화조사원에 의뢰하여 2010년 9월 한달 동안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기관 이용의 변화 상태, 보육서비스 만족 정도, 보육료 지원정책 만족도, 평가인증 활용상태 등이었다. 조사 완료 수는 632가구이다. 이러한 2010년 조사 자료는 2009년 동일 아동 조사 자료와 연계하여 파일을 구축한 후, 비교·분석하였다.

### 나. 변수 및 분석방법

분석에 이용된 주요 변수는 보육시설 이용의 변동 사항 및 이유,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만족도, 평가인증 여부 인지 및 활용, 보육서비스 관련 13개 항목별 만족도 등이며, 이외 아동의 연령 변수와 응답자 특성으로 거주지 도시-농촌, 모의 취업여부, 가구소득 수준 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보육 서비스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방법으로는 기술분석, 교차분석 및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고, 보육시설 지속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시 종속변수는 보육시설을 그대로 다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이분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서비스 관련 13개 요인 이외에 아동의 연령, 모의 취업여부, 거주지역, 소득 10분위를 사용하였다. 서비스 관련 13개 요인은 5점 척도이며, 모의 취업여부와 거주지는 각각 취업과 도시거주를 1로 하여 더미화하였다.

---

17) 만5세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 대상이므로 추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3. 분석 결과

#### 가. 보육시설 이용의 연속성

2009년 상반기 전국보육실태조사 당시 보육시설에 다니던 0~4세 아동의 2010년 하반기 보육시설 등 육아지원기관 이용실태를 보면 61.2%는 동일한 보육시설에 그대로 다니고 있으며, 17.7%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16.5%는 유치원으로 1.3%는 반일반 학원으로 옮겼으며 2.7%는 아무 곳도 안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연령은 2010년 1월 1일 기준의 보육연령이다(표 VI-3-1 참조).

〈표 VI-3-1〉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보육시설 지속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계속 다님	다른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반 학원	기타	안다님	계(수)
전체	61.2	17.7	16.5	1.3	0.6	2.7	100.0(632)
아동 연령							
만1세	59.3	37.0	-	-	-	3.7	100.0( 27)
만2세	59.8	31.8	-	0.9	0.9	6.5	100.0(107)
만3세	58.5	19.5	17.1	2.0	1.0	2.0	100.0(205)
만4세	65.4	12.4	18.9	1.6	0.5	1.1	100.0(185)
만5세	61.1	4.6	31.5	-	-	2.8	100.0(108)
모취업							
취업중	63.7	19.8	14.9	1.0	-	0.7	100.0(303)
미취업	53.1	26.5	16.3	-	-	4.1	100.0( 49)
구직안함	60.2	15.2	16.0	1.9	1.5	5.2	100.0(269)
지역							
대도시	58.1	21.2	15.7	1.3	1.3	2.5	100.0(236)
중소도시	62.3	16.8	15.7	0.7	0.4	4.1	100.0(268)
읍면지역	65.4	15.0	17.3	1.6	-	0.8	100.0(127)
가구소득10분위							
1분위	69.2	14.3	12.1	-	-	4.4	100.0( 91)
2분위	69.3	15.9	11.4	2.3	-	1.1	100.0( 88)
3분위	68.8	16.1	12.9	-	-	2.2	100.0( 93)
4분위	61.5	17.3	19.2	-	1.9	-	100.0( 52)
5분위	55.4	24.6	15.4	3.1	-	1.5	100.0( 65)
6분위	65.5	15.5	12.1	-	1.7	5.2	100.0( 58)
7분위	38.9	27.8	24.1	3.7	1.9	3.7	100.0( 54)
8분위	59.2	16.3	16.3	-	-	8.2	100.0( 49)
9분위	50.0	17.4	28.3	2.2	-	2.2	100.0( 46)
10분위	61.8	20.6	11.8	2.9	-	2.9	100.0( 34)

주: 빈도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부적절함.

아동 연령별로는 당시 0세아로 2010년 만 1세는 37.0%, 당시 만2세로 2010년 현재 만2세아는 31.8%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으며 만 3세아는 다른 보육시설과 유

치원으로 각각 19.5%, 17.1%가 옮겨졌고, 만4세아는 다른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각각 12.4%, 18.9%로 유치원 비율이 높고 2010년 만5세아는 31.5%가 유치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 간 비율은 4.6%에 불과하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경우에 변동 비율이 다소 낮았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지역별로는 도시에서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이동이 비교적 많았다. 이는 도시에 선택 가능한 어린이집이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소득분위별로는 사례수가 제한적이어서 일관성은 다소 약하지만 3분위 이하가 변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10분위가 또한 변동 비율이 낮았다.

다녔던 보육시설을 옮긴 경우에 그 이유를 보면 이사와 학교 준비가 각각 23% 내외로 다수를 차지하고 13% 정도는 연령에 맞는 반이 없어서이며 이외 아이가 싫어하거나 멀어서 등이 약 10% 정도이고 6% 정도는 비용부담이며, 교사나 원장, 환경 열악 등 보육시설 요인을 지적한 비율은 6%를 조금 넘는다. 응답자의 12.4%는 기타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한 곳에 너무 오래 다녀서, 종교시설이어서 그냥 등이다(표 VI-3-2 참조).

〈표 VI-3-2〉 아동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변경 및 중단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체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교사, 원장	3.3	-	7.0	1.2	3.1	4.8
학교 준비	22.9	-	7.0	18.8	31.3	40.5
비용 부담	6.1	-	4.7	2.4	9.4	11.9
환경 열악	2.9	-	2.3	5.9	-	2.4
아이가 싫어함	4.1	-	2.3	5.9	4.7	2.4
멀어서	5.7	-	11.6	4.7	3.1	7.1
이사	23.7	72.7	27.9	21.2	21.9	14.3
연령반 부재	13.9	9.1	2.3	28.2	9.4	4.8
형제자매 함께 이용	3.3	-	9.3	2.4	3.1	-
엄마가 집에 있어서	2.0	-	7.0	1.2	-	2.4
기타	12.2	18.2	18.6	8.2	14.1	9.5
계(수)	100.0(245)	100.0( 11)	100.0( 43)	100.0( 85)	100.0( 64)	100.0( 42)

주: 빈도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부적절함.

다녔던 보육시설을 그만 둔 이유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아동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학교 준비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4, 5세아의 경우 31.3%, 40.5%가 이러한 이유에서 다니던 보육시설을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안 다

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령에 맞는 반이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전체적으로 13.6%인데, 이는 영아의 경우는 영아 보육을 안 하는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이고, 유아는 영아기에 영아전담시설을 다닌 경우, 또는 4, 5세 등 유아반을 운영하지 않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동 기관별로는 보육시설을 계속 이용을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그만 다니는 등 변동 특성별로 중단 이유를 살펴보았다.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 이유는 1/3은 이사이고 10% 정도는 멀어서를 들어서 대체로 43.7%가 거리와 관련된 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17.0%는 해당되는 연령반 부재, 6.3%가 학교 준비를 들었으며, 교사나 원장, 환경의 열악을 이유로 든 비율은 각각 5.4%이다. 즉, 약 17% 정도가 보육시설의 프로그램이나 인적, 물리적 환경 등이 부적절하여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 것이다. 이외 3.6%는 형제자매가 함께 다니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유치원으로 옮긴 이유는 40.4%가 학교 준비로 다수이고, 이사와 연령반 부재가 각각 14% 내외를 차지한다. 이외에 비용부담이 9.6%인데, 이는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유치원 비용이 저렴한 병설유치원으로의 이동으로 추정된다(표 VI-3-3 참조).

〈표 VI-3-3〉 이동기관별 보육시설 이용 변경 및 중단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체	다른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반 학원	기타	안다님
교사, 원장	3.3	5.4	1.9	-	-	-
학교 준비	22.9	6.3	40.4	62.5	25	5.9
비용 부담	6.1	1.8	9.6	-	-	17.6
환경 열악	2.9	5.4	1.0	-	-	-
아이가 싫어함	4.1	1.8	1.9	25	25	17.6
멀어서	5.7	9.8	2.9	-	-	-
이사	23.7	33.9	13.5	-	-	35.3
해당 연령반 부재	13.9	17.0	14.4	-	-	-
형제자매 함께	3.3	3.6	2.9	12.5	-	-
엄마가 집에	2.0	-	1.0	-	-	23.5
기타	12.2	15.2	10.6	-	50	-
계(수)	100.0(245)	100.0(112)	100.0(104)	100.0( 8)	100.0( 4)	100.0( 17)

## 나. 보육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

보육료나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인식은 조사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전반적으로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도 대체

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부모, 영유아 부모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를 구분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의 정책인지도가 가장 높고, 영유아 부모로 확대하면 그 비율은 다소 낮아지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 부모에게로 확대하면 인지도는 더욱 더 낮아진다.

<표 VI-3-4>는 2010년 조사 전체 대상자의 2009년 응답과 2010년 응답을 비교한 것이다. 2009년에 면제자는 23.2%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6.5%가 면제자로 조사되었고, 감면자는 38.0%에서 26.3%, 미지원은 33.2%에서 24.5%로 감소되었다.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표 VI-3-4> 보육료 지원상태 변화 및 비교: 2009-2010

단위: %(명)

구분	2009년				전체 (수)
	면제	감면	미지원	면제	
2010년					
면제	23.2	19.6	3.7	46.5	(290)
감면	4.8	13.3	8.2	26.3	(164)
미지원	0.5	4.5	19.6	24.5	(153)
비해당	0.3	0.6	1.8	2.7	( 17)
계	28.8	38.0	33.2	100.0	(624)
(수)	(180)	(237)	(207)	(624)	

그러면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하였는가?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전체적 보육료 지원정책 만족도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5>는 동일한 부모의 보육료 지원별 2009년과 2010년 보육료 지원 정책의 만족 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2009년 17.7%이고 2010년은 20.0%로 약간 높아졌고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불만 35.5%, 매우 불만 15.4%로 총 50.9%이었으나 2010년 조사에서는 불만 29.3%, 매우 불만 14.8%로 총 44.1%로 6.8%p 낮아졌다. 5점 척도로 보면 전체는 2009년 2.56점, 2010년 2.64점으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비용 지원 집단별로 보면 면제 대상자의 만족도는 3.09점, 3.08점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감면 대상자의 만족 정도는 2.54점에서 2.61점으로 조금 높아진 반면에 비용 미지원자의 만족정도는 2.13점에서 1.92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면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2009년 7월부터 하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0%까지는 기

준단가의 30% 지원 등 신규 감면 대상자 및 기존 감면자의 감면 비율 상승, 그리고 맞벌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변화로 일부 맞벌이 가구가 신규 감면 대상 지원에 포함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지원자의 만족정도가 낮아진 것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작용으로 풀이된다.

〈표 VI-3-5〉 보육료 지원상태별 보육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 비교: 2009-2010

단위: %(명), 점

구분	2009년				2010년			
	면제	감면	미지원	전체	면제	감면	미지원	계
매우불만	5.0	15.2	24.6	15.4	4.8	14.3	34.2	14.8
불만	19.4	34.2	51.2	35.5	23.3	26.8	43.2	29.3
보통	40.0	33.8	17.4	30.1	40.4	42.3	20.0	35.8
만족	32.8	16.0	3.4	16.7	27.4	16.7	1.9	18.0
매우만족	2.8	-	0.5	1.0	4.1	-	-	2.0
모름	-	0.8	2.9	1.3	-	-	0.6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80)	(237)	(207)	(624)	(292)	(168)	(155)	(615)
평균(5점 척도)	3.09	2.54	2.13	2.56	3.03	2.61	1.92	2.64

〈표 VI-3-6〉 보육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 변화 및 비교: 2009-2010

단위: %(명)

구분	2009년						전체	(수)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2010년								
매우불만	5.0	7.6	2.3	0.3	-	15.3	( 94)	
불만	6.0	13.2	7.6	2.6	0.2	29.6	(182)	
보통	3.1	11.1	13.2	7.6	0.2	35.1	(216)	
만족	1.5	3.7	6.5	5.9	0.7	18.2	(112)	
매우만족	-	0.3	1.0	0.5	-	1.8	( 11)	
전체	15.6	35.9	30.6	16.9	1.0	100	(615)	
수	(96)	(221)	(188)	(104)	(6)	(615)		

2009년과 2010년 응답자의 응답 변화를 보면 매우 불만 및 불만에서 만족으로 변화한 비율이 전체 대상자의 5.5%이고 매우 만족, 만족에서 불만으로 변화한 비율은 3.1% 정도로 변화의 폭이 적었다. 응답자의 3.8%는 계속 불만자로 남고 7.1%는 계속 만족한 상태이다(표 VI-3-6 참조).

## 다. 이용자 만족도

### 1) 기관 이용자 만족도

다음은 2010년 현재 보육시설 계속 이용자 및 다른 기관으로 옮긴 경우에 만족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보육시설에 계속 다니는 아동 부모의 만족도가 다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으로 옮긴 부모보다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보육시설로 옮긴 경우 13항목 모두 종전 보육시설 지속 이용자보다 만족도가 낮다. 특히 교사와 원장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 이용 부모가 옮긴 부모들보다 월등하게 높다. 통계적으로 3개 항목 이외에 10개 항목이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유의한 차이를 안 보인 것은 주변환경, 시설설비, 실내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등 모두 물리적 특성들이다(표 VI-3-7 참조).

〈표 VI-3-7〉 보육시설 지속 이용 상태별 만족도: 2010

단위: 점

구분	계속 다님	다른 어린이집 으로 옮김	유치원으 로 옮김	반일반 이상 학원으로 옮김	전체(표준편차)	F
원장	4.34	4.02	4.09	3.63	4.22(0.85)	7.32 <sup>***</sup>
교사	4.36	4.12	4.27	3.75	4.29(0.77)	4.60 <sup>**</sup>
주변환경	4.08	3.93	4.07	3.75	4.03(0.86)	1.26
시설설비, 실내환경	4.09	3.97	4.13	4.00	4.06(0.85)	0.77
교재교구 및 장비	4.12	3.95	4.00	4.38	4.06(0.83)	1.91
내부 분위기	4.24	3.97	4.10	4.00	4.16(0.79)	3.88 <sup>**</sup>
비용	3.85	3.44	3.49	3.13	3.70(1.09)	6.71 <sup>***</sup>
건강관리	4.17	3.94	4.03	3.38	4.09(0.83)	4.78 <sup>**</sup>
급간식관리	4.20	3.98	3.89	3.50	4.09(0.84)	6.27 <sup>***</sup>
안전관리	4.23	3.96	4.04	3.75	4.14(0.75)	5.41 <sup>***</sup>
교육내용	4.20	3.97	3.94	3.75	4.11(0.77)	5.41 <sup>***</sup>
부모참여	3.89	3.60	3.88	3.38	3.83(0.89)	4.10 <sup>**</sup>
부모교육 및 상담	4.02	3.77	3.93	3.50	3.95(0.88)	3.18 <sup>*</sup>
(수)	(387)	(112)	(104)	(8)	(615)	

주: \*\* p < .01, \*\*\* p < .001.

유치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시설설비 및 실내 환경 부분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영어 유치원 등 기타 기관으로 옮긴 경우는 절대수가 얼마 안 되고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는 않으나 교재교구 및 장비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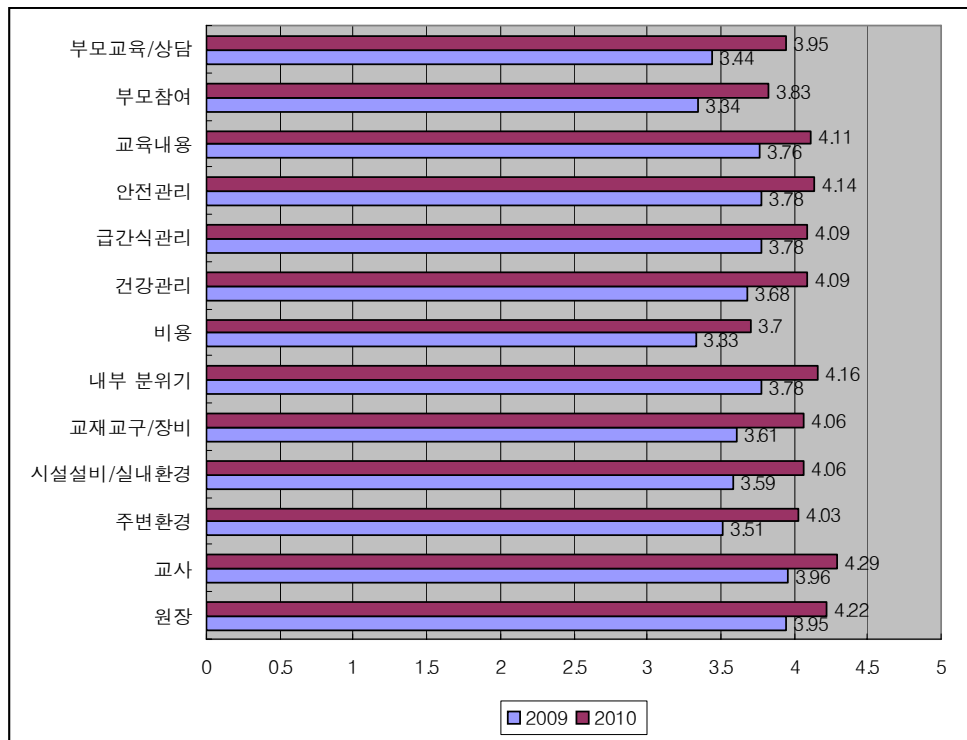


## 2) 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 가) 연도별 비교

보육시설 지속 이용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한편 <표 V-3-8>, [그림 VI-3-1]은 동일한 보육시설에 계속 다니고 있는 2010년 기준 1-5세 아동 부모들의 만족도 변화를 나타낸다.

먼저 결과를 보면 13개 항목 모두 만족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적 보육서비스 만족도의 상승이다.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진 이용자 비율이 44~51%이고 점수가 낮아진 비율은 12~18%이며 변화가 없는 비율은 항목별로 34~42%이다. 5점 척도로 최저 급간식관리 0.36점부터 최고 부모교육 및 상담 0.51점에 이르기까지 만족 점수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I-3-1] 보육시설 지속 이용자 만족도 변화: 2009~2010

〈표 VI-3-8〉 보육시설 지속 이용자 만족도 변화: 2009-2010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점수		점수 변화				평균 (표준편차)
	2009	2010	낮아짐 -	불변 0	높아짐 +	계(수)	
원장	3.97	4.34	14.2	41.2	44.6	100.0(381)	0.39(0.90)
교사	3.98	4.36	15.7	38.6	45.7	100.0(381)	0.38(0.94)
주변환경	3.53	4.08	14.2	36.7	49.1	100.0(381)	0.54(1.03)
시설설비/실내환경	3.64	4.09	12.6	39.6	47.8	100.0(381)	0.43(0.88)
교재교구 및 장비	3.65	4.12	12.9	38.6	48.6	100.0(381)	0.46(0.95)
내부 분위기	3.82	4.24	14.2	40.2	45.7	100.0(381)	0.41(0.89)
비용	3.37	3.85	18.1	34.4	47.5	100.0(381)	0.48(1.24)
건강관리	3.72	4.17	13.4	35.7	50.9	100.0(381)	0.44(0.92)
급간식관리	3.84	4.20	15.2	40.4	44.4	100.0(381)	0.36(0.91)
안전관리	3.82	4.23	12.1	42.8	45.1	100.0(381)	0.40(0.88)
교육내용	3.82	4.20	14.2	41.5	44.4	100.0(381)	0.38(0.84)
부모참여	3.46	3.89	18.4	34.9	46.7	100.0(381)	0.43(1.04)
부모교육 및 상담	3.51	4.02	12.1	39.6	48.3	100.0(381)	0.51(0.97)

이러한 연도별 비교에서 유의할 점은 이 비교가 그 동안 조사하여 발표된 일반적 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의 비교라기보다는 다니던 보육시설에 그대로 다니는 1-5세 아동 부모가 느끼는 만족도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응답자도 2009년은 이용기간 제한이 없었으나 2010년은 2009년 초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으로 아동 연령도 2011년 기준으로 만1세 이상이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유치원 등 다른 곳으로 옮겨 갔고 만족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부모만 계속 다닐 가능성이 높다.<sup>18)</sup>

사실 보육시설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부모와 중단한 부모간의 2009년 조사 당시의 만족도 차이는 있다. 13개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현재도 동일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의 만족도가 중단한 사람들의 만족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8개 항목은 유의도가 높은 순서대로 보면 부모참여가 .001 수준, 급간식관리, 교육내용, 부모교육 및 상담이 .01 수준, 내부분위기가 .05 수준, 그리고 교재교구 및 장비와 건강관리가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말하면 이용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중단하는 비율이 낮다고 하겠다(표 VI-3-9 참조).

또한 옮겨간 장소를 구분해서 다니던 보육시설 만족도 차이를 보면 지속적 이용

18) 이외 2009년은 전문조사원의 방문면접 조사이고 2010년 조사는 전화조사라는 조사방법사의 차이는 있으나 함께 조사된 일반적 정책만족도 등 다른 항목의 응답결과를 감안할 때 만족도의 증가가 조사방법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자들에 비하여 부모참여가 .001 수준, 비용, 급간식관리, 교육내용, 부모교육 및 상담은 0.05 수준, 교재교구 및 장비,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 검정 결과, 특히, 교재교구 및 장비와 비용은 지속 이용자 대비 유치원으로 이동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낮다.

<표 VI-3-9> 보육시설 지속여부별 2009년도 보육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분석 1			분석 2			
	계속 이용	중단	T	계속 이용	보육시설로 이동	유치원으로 이동	F
원장	3.97	3.94	0.57	3.97	3.93	3.91	35
교사	3.98	3.93	0.85	3.98	3.96	3.91	35
주변환경	3.53	3.48	0.70	3.53	3.51	3.44	48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3.64	3.52	1.89*	3.64	3.60	3.47	1.85
교재교구 및 장비	3.65	3.54	1.89*	3.65	3.60	3.48	2.35 <sup>#</sup>
내부 분위기	3.82	3.70	2.30*	3.82	3.72	3.69	2.18
비용	3.37	3.26	1.27	3.37	3.44	3.11	3.26*
건강관리	3.72	3.61	1.94 <sup>#</sup>	3.72	3.56	3.63	2.33 <sup>#</sup>
급간식관리	3.84	3.67	2.81**	3.84	3.67	3.65	4.05*
안전관리	3.82	3.72	1.61	3.82	3.65	3.73	2.68 <sup>#</sup>
교육내용	3.82	3.67	2.84**	3.82	3.68	3.65	3.86*
부모참여	3.46	3.17	4.53***	3.46	3.15	3.15	10.47***
부모교육 및 상담	3.51	3.33	2.68**	3.51	3.29	3.33	4.46*
(수)	(382)	(242)		(382)	(112)	(104)	

주: # p< .1, \* p< .05, \*\* p< .01, \*\*\* p< .001.

다음 <표 VI-3-10>는 보육시설 계속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이분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13개 만족도를 나타내는 항목 중 부모참여 항목만 만족도가 높으면 계속 이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이외 12개 만족도 요인은 이용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아동 특성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 만족도 요인 중에서는 부모참여 만족도, 부모와 아동 특성 중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는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타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시설 이용을 중단하고 다른 보육시설,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을 선택하는 아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부모참여와 경제적 수준인 것이다.

〈표 VI-3-10〉 보육시설 계속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구분	모형1			모형2		
	B	표준오차	Exp(B)	B	표준오차	Exp(B)
(상수)	-1.13	0.67	0.32	-0.722	0.853	0.486
원장	-0.15	0.15	0.86	-0.142	0.148	0.868
교사	-0.11	0.15	0.89	-0.141	0.154	0.869
주변환경	-0.10	0.13	0.91	-0.101	0.130	0.904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0.06	0.15	1.06	0.065	0.151	1.067
교재교구 및 장비	-0.02	0.17	0.98	-0.040	0.170	0.960
내부 분위기	0.11	0.18	1.12	0.157	0.180	1.170
비용	0.03	0.09	1.03	-0.038	0.093	0.962
건강관리	-0.09	0.17	0.91	-0.086	0.175	0.918
급간식관리	0.23	0.16	1.25	0.239	0.164	1.270
안전관리	-0.06	0.16	0.94	-0.040	0.163	0.961
교육내용	0.19	0.17	1.21	0.186	0.173	1.204
부모참여	0.54***	0.16	1.71	0.527***	0.165	1.694
부모교육 및 상담	-0.13	0.16	0.88	-0.133	0.162	0.876
소득10분위				-0.098**	0.033	0.907
모 취업(1=취업)				-0.089	0.189	0.915
거주지(1=도시)				0.151	0.107	1.163
아동연령				0.025	0.081	1.026
-2 Log likelihood	805.6			777.1		
Cox & Snell(유사 R <sup>2</sup> )	0.043			0.062		
(수)	(546)			(490)		

주: \*\* p< .01, \*\*\* p< .001.

## 나) 평가인증 인식여부별 만족도

다음은 주요 정책적 변화로 평가인증을 다루고자 한다. 평가인증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평가인증시설 여부에 대한 인지 비율은 높게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2009년 실시한 제1차 평가인증에서 신청건수는 전체 어린이집 33,499개소의 86.8%인 29,084건이고, 이 중 20,255개소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특히 2009년에 7,156개 시설이 인증을 통과하여 인증 비율은 2008년 39.1%에서 2009년 60.5%로 증가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이 90%를 넘고 가정·민간개인 시설이 55~58% 수준이며 부모협동보육시설이 33.8%로 가장 낮다(표 VI-3-11, 표 VI-3-12 참조).

<표 VI-3-11> 연차별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참여 및 인증률(2010. 3)

단위: 개소, %

구분	신청 건			인증통과 시설		
	신청소계	신청누계	전체대비 누계비율	인증통과 소계	인증통과 누계	전체대비 누계비율
'05(시범실시)	1,089	-	-	650	-	-
'06(1~4기)	4,420	5,509	16.4	2,804	3,454	10.3
'07(1~4기)	6,359	11,868	35.4	4,181	7,635	22.8
'08(1~4기)	7,776	19,644	58.6	5,464	13,099	39.1
'09(1~4기)	9,440	29,084	86.8	7,156	20,255	60.5

자료: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10). 내부자료.

<표 VI-3-12> 2005~2009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참여율, 인증률(2010. 3)

단위: 개소, %

구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
전체(A)	1,826	1,458	350	15,525	65	14,275	33,499
인증(C)	1,669	1,384	202	8,685	22	8,293	20,255
인증률(C/A)	91.4	94.9	57.7	55.9	33.8	58.1	60.5

주: 1) 전체시설은 2008년 12월말 전국 보육통계(33,499개소)를 기준임. 법인외는 민간개인으로 분류함.

2) 참여신청 시설 수는 신청 후 자체포기, 재신청 등의 이유로 중복 산정될 수 있음.

자료: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10). 내부자료.

2009년 보육실태조사 조사 시기는 2009년 4~5월로 2008년 4기 평가인증이 거의 완료된 시점이고, 2010년 조사는 9월로 2009년 4기 심의가 완료된 시점이다. 그러므로 두 조사 사이에 앞에서 언급한 시설만큼이 평가인증 시설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인증 시설의 확대를 배경으로 부모들의 인식과 평가인증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 차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표 VI-3-13>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부모의 보육료 지원별 2009년과 2010년 이용 시설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여 비교한 것이다. 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평가인증 시설이 증가하면서 이용하는 시설이 평가인증 시설이라는 비율이 높게 증가하였고, 평가인증 여부를 모르거나 평가인증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인증 시설여부를 모른다는 비율은 26.0%에서 19.2%로 줄어들었고,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10.6%에서 2.4%로 크게 낮아졌다.

보육료 지원별로는 2009년 조사에서는 보육료 지원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조사시 보육료 미지원 부모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시설인지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나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전체적 인지율은 증가하였으나 비용 미지원 부모들은 오히려 모른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다.

〈표 VI-3-13〉 보육료 지원 상태별 평가인증 인지: 2009~2010

단위: %(명)

구분	2009				2010			
	면제	감면	미지원	전체	면제	감면	미지원	계
평가인증 시설	50.0	54.4	51.7	52.2	75.4	73.9	59.6	71.9
평가미인증 시설	12.2	8.4	13.5	11.2	3.8	8.5	11.1	6.6
평가인증여부 모름	23.9	27.0	26.6	26.0	19.6	12.7	27.3	19.2
평가인증제도 모름	13.9	10.1	8.2	10.6	1.2	4.9	2.0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80)	(237)	(207)	(624)	(260)	(142)	(99)	(501)
$X^2(df)$	6.6(6)				21.4(6)**			

주: \*\*  $p < .01$ .

〈표 VI-3-14〉 보육료 지원 상태별 평가인증 선택시 활용: 2009~2010

단위: %(명)

구분	2009				2010			
	면제	감면	미지원	전체	면제	감면	미지원	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39.1	36.3	42.5	39.1	46.4	42.9	44.1	45.0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44.8	46.0	43.4	44.8	37.8	46.7	44.1	41.4
많은 영향을 미침	16.1	17.7	14.2	16.1	15.8	10.5	11.9	1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7)	(124)	(106)	(317)	(196)	(105)	(59)	(360)
$X^2(df)$	1.0(4)				3.2(4)			

〈표 VI-3-14〉는 평가인증 시설이라고 응답한 경우, 평가인증시설이 보육시설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문한 것이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9년 대비 2010년 조사에서 부모의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16.1%에서 13.6%로 다소 낮아졌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39.1%에서 45.0%로 증가하였다. 지원정도 및 여부별로는 2009년, 2010년 모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부모들의 보육 관련 정보의 활용 정도는 여전히 미진하다고 하겠다.

다음은 보육시설 이용자 중 평가인증 시설 이용 인식별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평가인증 시설이 보육시설의 40% 미만이던 2009년 조사에서는 평가인증 시설이라고 인식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간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조사된 13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다(표 VI-3-15 참조).

〈표 VI-3-15〉 평가인증 상태별 보육 이용 만족도 :2009

단위: %(명)

구분	전체		인증	미인증	모름	제도자체 모름	F
	평균	(표준편차)					
원장	3.96	(0.71)	4.02	3.91	3.90	3.85	1.73
교사	3.96	(0.71)	4.03	4.00	3.85	3.83	3.41*
주변환경	3.51	(0.79)	3.54	3.49	3.52	3.36	0.96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3.59	(0.79)	3.63	3.50	3.59	3.47	1.17
교재교구 및 장비	3.61	(0.72)	3.68	3.57	3.55	3.45	2.49#
내부 분위기	3.78	(0.67)	3.86	3.69	3.67	3.74	3.49*
비용	3.33	(1.05)	3.44	3.40	3.15	3.14	3.11*
건강관리	3.68	(0.72)	3.73	3.63	3.64	3.56	1.39
급간식관리	3.78	(0.74)	3.82	3.77	3.68	3.82	1.33
안전관리	3.78	(0.71)	3.83	3.77	3.72	3.70	1.32
교육내용	3.76	(0.65)	3.83	3.71	3.70	3.64	2.67**
부모참여	3.34	(0.80)	3.46	3.11	3.27	3.18	5.84**
부모교육 및 상담	3.44	(0.80)	3.55	3.24	3.38	3.29	4.64**
(수)	(615)		(326)	(70)	(162)	(66)	

주: # p< .1, \* p< .05, \*\* p< .01.

〈표 VI-3-16〉 평가인증 상태별 보육 이용 만족도: 2010

구분	전체		인증	미인증	모름	제도 자체 모름	F
	평균	(표준편차)					
원장	4.27	(0.83)	4.24	4.18	4.43	4.25	1.40
교사	4.31	(0.77)	4.28	4.21	4.45	4.17	1.50
주변환경	4.04	(0.85)	4.03	4.09	4.06	4.00	0.08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4.06	(0.85)	4.07	3.79	4.14	3.92	1.51
교재교구 및 장비	4.08	(0.83)	4.04	3.88	4.29	4.08	3.11*
내부 분위기	4.18	(0.78)	4.18	3.94	4.25	4.33	1.47
비용	3.76	(1.06)	3.78	3.45	3.77	3.75	1.00
건강관리	4.12	(0.83)	4.11	3.91	4.26	4.00	1.76
급간식관리	4.15	(0.82)	4.16	3.97	4.20	3.92	1.00
안전관리	4.17	(0.76)	4.16	4.06	4.26	4.17	0.73
교육내용	4.15	(0.76)	4.14	3.94	4.27	4.25	1.79
부모참여	3.83	(0.91)	3.80	3.58	3.97	4.17	2.78#
부모교육 및 상담	3.96	(0.89)	3.92	3.82	4.16	4.08	2.12#
(수)	(501)		(360)	(33)	(96)	(12)	

주: # p< .1, \* p< .05.

부모참여와 부모교육 및 상담은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하며 교사, 내부분위기, 비용, 교육내용은 0.05% 수준에서, 교재교구 및 장비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항목별로 인증 시설은 미인증 또는 인증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자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평가인증 시설이 보육시설의 60%를 넘는 2010년 조사에서는 평가인증 시설이라고 인식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간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 인식에 차이가 있는 항목은 3개 항목으로 추정되었는데 이중 2개 항목은 유의도가 .10 수준이다. 교재교구 및 장비에서만 인증 시설 이용부모가 미인증 및 인증여부를 모른다는 부모에 비하여 만족 수준이 높고, 2009년에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던 부모참여와 부모교육 및 상담은 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그 내용은 미인증 시설 이용부모의 만족 정도가 인증여부 및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자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유의한 요인의 감소는 평가인증이 보편화되면서 평가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와 일부 2010년 추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지속적 이용과 동일한 응답자의 보육 정책 만족도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간의 만족도 연차별 비교가 응답자가 달랐으나, 본 연구는 동일 아동을 대상으로 지속적 보육시설 이용 여부를 구분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응답자의 지속 이용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주요 결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보육서비스 이용 중단자의 비율이 크게 높지 않고, 보육시설을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다니는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다. 다니던 보육시설을 옮기는 경우에도 이린이집에 대한 직접적 불만보다는 이사, 접근성, 반 편성 등 물리적 이유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만족도는 차이는 있어서, 보육시설에 계속 다니는 아동 부모의 만족도가 다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으로 옮긴 부모보다 만족도가 대체로 높다. 한편 보육시설 계속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10개 항목 모두 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다니던 보육시설에 또는 보육시설을 옮겨서 지속적으로 다니는 1~5세 아동 부모가 느끼는 만족도의 변화로 그 간의 일반적 만족도와는 개념 차이가 있으나,



보육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에서 오는 부모들의 긍정적 평가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육시설 이용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유치원 등 다른 유형의 기관으로 옮겨 간다. 조사결과 유치원 등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에는 그 이유가 40.4%가 학교 준비로 다수인데, 회귀분석 결과 보육시설 이용중단은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다. 즉, 보육시설이 저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를 계속 보육서비스의 장점으로 두어야 하는지 검토가 요구된다.

보육정책에 대한 일반적 만족도는 비용 지원 집단별로 보면 면제 대상자의 만족도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감면 대상자의 만족 정도는 2.54점에서 2.61점으로 조금 높아진 반면에 비용 미지원자의 만족정도는 2.13점에서 1.92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면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2009년 7월부터 신규 감면 대상자 및 기존 감면자의 감면 비율 상승의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지원자의 만족정도가 낮아진 것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작용으로 풀이되어 정책의 결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평가인증이 보육시설의 전반적 질 수준을 올리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전체의 40% 미만이던 2009년 조사에서는 평가인증 시설이라고 인식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간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 인식은 조사된 13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평가인증 시설이 보육시설의 60%를 넘는 2010년 조사에서는 평가인증 시설이라고 인식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간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 인식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 항목은 교재교구 및 장비 하나이다. 이러한 유의한 요인의 감소는 평가인증이 보편화되면서 평가인증 여부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평가인증 결과가 어린이집 선택기준으로의 활용 정도는 낮아서 보육시설 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2010). 보육사업안내.  
 서문희·김은설·안재진·최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보육실태조사 보고-  
 가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VII. 혈연·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최혜선<sup>19)</sup>

### 1. 분석 배경 및 내용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중심의 정책이었다. 정부가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어릴수록 제도화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보다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혈연이나 베이비시터와 같은 비혈연에 의한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이러한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취업모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2002년 시행된 사회통계조사에서 만 10세 이하 자녀 양육실태(통계청, 2003)에 의하면 취업모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21.5%로 자녀의 부모 34.6%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00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를 기초한 서문희(2002)의 연구에서도 취업모의 경우 만 0세아의 52.7%, 만1세아의 42.0% 만2세아의 35.6%가 가족이나 친인척의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영아기에는 조부모 등 가족과 친인척의 지원이 중요한 자녀 양육 수단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 이용보다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선호하고 이용하는 이유로는,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결과 너무 어려 기관적응이 힘들까봐라는 응답이 30.6%, 비용부담이 14.7%, 주변에 마땅한 기관없음이 13.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아의 경우 너무 어리다는 응답이 72.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모 취업 등의 이유로 아이를 타인에 맡겨야 하는 경우 자녀가 너무 어려 기관 적응이나 집밖에서의 생활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기관 대신 혈연, 비혈연에 의한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아 뿐 아니라 유아를 자녀로 둔 가구에서도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유아의 경우 영아와 달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동시에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

19)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이렇듯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달리 비공식 보육서비스는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지희, 노상경, 권경숙(2008)은 가정내 보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이유는 보육제공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자녀를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급박한 외출 등 부모의 다양한 욕구 및 상황에 따라 장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시간단위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비공식 보육서비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의 혈연에 의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가족봉사의 하나로 인식되어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002년도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박영란, 김종숙, 임지현, 2002) 결과 무급 가족봉사 비율이 여성 노인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50대 여성의 28.5%, 60대 여성의 20.7%가 가족을 보살피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자녀를 돌보는 대부분의 여성 노인들(93.6%)은 자녀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어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보상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외국의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보육을 이용할 경우 각종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미국은 친족에게도 위탁가정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Burnette, 1997), 프랑스는 조부모가 돌보면 매달 180유로(27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지원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한편, 부모의 요구와 사회적 변화와 함께 베이비시터와 같은 비혈연에 의한 비공식 보육서비스도 확대되어 왔다. 우리나라에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 대신 아동을 맡아주는 방문탁아를 하는 베이비시터 파견회사가 처음으로 설립된 것은 1996년부터이다. 1996년은 정부의 보육3개년 확충계획에 의한 보육의 양적 확충이 한참 추진되던 시기로 보육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되던 시기이다. 이후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베이비시터 회사 설립이 주춤하다가 2000년대 초에 인터넷 확산과 벤처사업으로 다시 설립되기 시작한 이후 2007년 11월 현재 약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서문화·신나리·이정원·이세원, 2007). 이러한 비혈연에 의한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업의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현황 파악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혈연이나 비혈연에 의한 비공식 보육서비스의 이용과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관리나 지원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

아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서문희 등(2007)은 가정내 보육지원을 보육정책의 주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시설보육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가정내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위탁하고 위탁사업체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서문희 외, 2008).

최근 정부에서는 혈연이나 비혈연에 의한 비공식 보육서비스에 이용 증가에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0세아 돌봄에 대하여 소득하위 50% 이하 맞벌이 가정의 친인척이 일정 교육을 거쳐 아이를 돌보는 경우, 가정내 아이돌보미 참여를 허용하여 만2천명을 대상으로 월 57만원에서 69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아이사랑플랜 2010년 시행계획에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아에 대한 가정 내 양육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일정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내 양육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정부 정책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과 비용에 관한 차이를 규명하고, 이용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비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분석 방법

### 가. 분석 자료 및 방법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실시한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자료의 일부이다. 2009년도 전국보육 실태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250개 표본조사구 15,000가구 중에서 영유아가 있는 2,459가구에 대한 가구조사 자료와 3,303명의 영유아 개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통계분석방법으로는 기술분석과 교차분석,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리고 비공식 보육서비스 비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나. 주요 변수 및 분석 방법

분석에 이용된 종속변수는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과 이에 따른 비용이다. 이용은 혈연과 비혈연 이용을 합한 비공식 보육서비스 전체 이용 여부를 분석한 후, 혈연과 비혈연 각각 단독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비용은 혈연과 비혈연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는 <표 VII-2-1>과 같다.

<표 VII-2-1> 주요 변수

변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원수	4.1	0.98
자녀수	1.87	0.71
조부모 동거(1=동거)		
친조부 동거	0.06	0.24
친조모 동거	0.10	0.02
외조부 동거	0.02	0.15
외조모 동거	0.04	0.21
가구소득	294.64	182.5
모연령	32.91	4.70
모학력(1=대재 이상)	0.5336	0.50
모취업(1=취업)	0.3369	0.47
모 1주일 근로시간	42.33	14.71
아동 연령	2.3894	1.74
출생순위	1.63	0.72
반일제 이상 기관이용(1=이용)	0.6166	0.49
돌보는 아동수	1.71	0.74
비혈연 돌보는 시간	36.56	30.84

주요 독립변수는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크게 가구 관련 특성과 모 관련, 아동 관련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구 관련 특성으로는 가구원수, 자녀수, 조부모 동거(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거주지역, 가구소득 변수를 사용하였다. 모 관련 특성으로는 모연령, 모 학력, 모 취업, 모 1주일 근로시간 변수를 사용하였다. 아동 관련 특성으로는 아동 연령, 아동 성별, 출생순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변수를 사용하였다(표 VI-2-1 참조).

그밖에 종속변수에 따라 혈연 및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변수를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비공식 보육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아동수와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시 보육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시간을 종속변수에 따라 일부 사용하여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부모 동거는 동거를 준거로, 거주지역은 읍면지역을 준거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각각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모 학력은 대졸 이상을 준거로, 모 취업은 취업을 준거로, 반일제 이상 기관은 이용을 준거로 더미화하였다.

### 3. 분석 결과

#### 가.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및 영향 요인

##### 1)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특성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와 이용하지 않는 가구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총 자녀수, 자녀의 출생순위, 아동연령에 따라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VII-3-1>과 같다. 총 자녀수가 1명일 때는 31.0%, 2명 23.9%, 3명 이상 22.2%로 자녀수가 적은 가구에서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별로 살펴보면 첫째는 28.7%, 둘째 23.2%, 셋째 이상 21.6%의 이용률을 나타내어,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유아에 비하여 0~2세 영아의 이용이 더 높으며 0세일 때 이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II-3-1〉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영유아 특성

단위: %(명)

구분	이용	미이용	계(수)	$\chi^2(df)$
전체	25.8	74.2	100.0(3,303)	
총 자녀수				
1명	31.0	69.0	100.0(1,011)	20.9(2) <sup>***</sup>
2명	23.9	76.1	100.0(1,769)	
3명이상	22.2	77.8	100.0( 523)	
출생순위				
첫째	28.7	71.3	100.0(1,635)	15.4(2) <sup>***</sup>
둘째	23.2	76.8	100.0(1,301)	
셋째 이상	21.6	78.4	100.0(3,302)	
아동연령				
0세	29.5	70.5	100.0( 640)	11.7(6) <sup>#</sup>
1세	26.9	73.1	100.0( 576)	
2세	26.4	73.6	100.0( 527)	
3세	21.5	78.5	100.0( 516)	
4세	24.0	76.0	100.0( 512)	
5세	25.4	47.6	100.0( 523)	
6세	12.5	87.5	100.0( 8)	

주: # p< .1, \*\*\* p< .001.

조사대상 아동 중 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중 한 명이라도 조부모와 동거하는 아동은 전체 15.7%로 나타났다. 친조모가 1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친조부 6.3%, 외조모 4.5%, 외조부 2.2% 순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과 미이용 아동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용 아동은 전체 36.5%가 조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이용 아동은 8.5%로 이용 아동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혈연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동거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부모별 동거율을 살펴보면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친조모가 22.8%로 가장 높았으며 친조부와 외조모가 12% 후반대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의 경우 아동 전체에 비하여 외조모 동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VII-3-2 참조).

〈표 VII-3-2〉 조부모 동거율

단위: %(명)

구분	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조부모 전체	(수)
전체	6.3	10.3	2.2	4.5	15.7	(3,302)
이용	12.9	22.8	6.6	12.7	36.5	( 851)
미이용	4.0	6.0	0.7	1.6	8.5	(2,451)

모 취업과 관련하여 모의 근로형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VII-3-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무직이 65.5%인데 반하여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영유아 모는 28.5%, 미이용 모는 77.6%로,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모가 취업한 비율이 높았다.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영유아의 모는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59.2%로 매우 높아,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영유아 모의 경우 임시근로자나 자영업자보다는 상용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의 28.5%가 무직이라는 것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꼭 모 취업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VII-3-3> 모 근로형태

단위: %(명)

구분	규칙적 출퇴근	불규칙 출퇴근	재택근무	농어민	무직	휴직	계(수)	$X^2(df)$
전체	27.2	3.9	0.9	0.7	65.5	1.9	100.0(3,233)	
이용	59.2	6.8	1.0	1.5	28.5	2.1	100.0( 818)	662.4(5)***
미이용	16.3	2.9	0.8	0.5	77.6	1.8	100.0(2,415)	

주: \*\*\*  $p < .001$ .

모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영유아 모의 44.4%가 21~40시간을 38.6%가 41~6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과 미이용 영유아 모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용 영유아 모의 경우 20시간 이하 근무하는 모의 비율이 미이용 영유아 모보다 높다. 반대로 61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 비율은 비공식 보육서비스 미이용 모가 이용 모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VII-3-4 참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영유아 모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근로형태와 관련하여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일에 종사하여 근무시간이 비교적 일정할 가능성이 있다.

<표 VII-3-4> 모 1주일 평균 근무시간

단위: %(명)

구분	~20시간	21~40시간	41~60시간	61시간이상	계(수)	$X^2(df)$
전체	8.5	44.4	38.6	8.5	100.0(1,055)	
이용	12.1	46.8	34.5	6.7	100.0( 496)	23.1(3)***
미이용	5.4	42.2	42.2	10.2	100.0( 559)	

주: \*\*\*  $p < .001$ .



## 2)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만 0~5세 영유아의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혈연과 비혈연을 합한 비공식 보육서비스 전체 이용에 대해 분석한 후, 혈연과 비혈연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영아와 유아를 합한 전체와 영아와 유아 각각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이며, 독립변수는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가구특성(가구원수, 자녀수, 조부모 동거, 거주지역, 가구소득), 모특성(연령, 학력, 취업), 아동특성(연령, 성별, 출생순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변수를 포함하였다.

### 가) 전체

혈연과 비혈연을 합한 전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VIII-3-5>와 같다.

먼저, 가구특성으로는 친조모와 외조모 동거, 거주지역, 가구소득이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조모 및 외조모와 동거할수록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조부모와 동거할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이나 가사를 도와줄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로 조부모의 가사 및 자녀양육의 도움을 얻고자 동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거주지역은 읍·면에 비하여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중소도시는 읍·면지역과 차이가 없어, 대도시만 읍·면지역에 비하여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보육서비스의 경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같은 공식 보육서비스에 비하여 이용 비용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모 특성으로는 모 연령과 모취업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연령은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과 부적의 관계를 나타내어, 모연령이 낮을수록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이나 양육경험이 있는 모보다 첫 출산한 모가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아의 경우에는 모의 연령이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한 모가 취업하지 않은 모보다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모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의 제한으로 보육시설과 같은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더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특성으로는 출생순위와 반일제 이상 기관이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가구보다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더욱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I-3-5〉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모형1(전체)		모형2(영아)		모형3(유아)	
	B(표준오차)	Exp(β)	B(표준오차)	Exp(β)	B(표준오차)	Exp(β)
가구원수	0.064(0.149)	1.066	0.227(0.213)	1.255	-0.119(0.216)	0.888
자녀수	0.371(0.204) <sup>#</sup>	1.449	0.575(0.322) <sup>#</sup>	1.777	0.358(0.286)	1.430
친조부 동거(1=동거)	0.082(0.297)	1.086	-0.162(0.390)	0.851	0.451(0.491)	1.571
친조모 동거	1.874(0.250) <sup>***</sup>	6.516	1.807(0.339) <sup>***</sup>	6.090	1.973(0.382) <sup>***</sup>	7.195
외조부 동거	0.337(0.439)	1.400	0.332(0.620)	1.394	0.311(0.626)	1.365
외조모 동거	2.010(0.328) <sup>***</sup>	7.465	1.526(0.445) <sup>**</sup>	4.602	2.575(0.496) <sup>***</sup>	13.130
거주지역(준거=읍면)						
대도시	0.672(0.153) <sup>***</sup>	1.958	0.650(0.213) <sup>**</sup>	1.916	0.653(0.225) <sup>**</sup>	1.922
중소도시	0.356(0.155) <sup>*</sup>	1.428	0.528(0.215) <sup>*</sup>	1.696	0.116(0.227)	1.123
가구소득	0.002(0.000) <sup>***</sup>	1.002	0.002(0.000) <sup>***</sup>	1.002	0.002(0.000) <sup>***</sup>	1.002
모연령	-0.030(0.013) <sup>*</sup>	0.970	-0.025(0.018)	0.976	-0.044(0.022) <sup>*</sup>	0.957
모학력(1=대졸이상)	0.169(0.111)	1.184	0.227(0.151)	1.254	0.112(0.168)	1.119
모취업(1=취업)	2.215(0.116) <sup>***</sup>	9.163	2.393(0.163) <sup>***</sup>	10.946	2.036(0.169) <sup>***</sup>	7.659
아동연령	-0.081(0.042) <sup>#</sup>	0.922	-0.193(0.102) <sup>#</sup>	0.824	0.099(0.093)	1.104
아동성별	-0.139(0.100)	0.870	-0.114(0.135)	0.892	-0.155(0.152)	0.856
출생순위	-0.526(0.129) <sup>***</sup>	0.591	-0.818(0.234) <sup>***</sup>	0.441	-0.452(0.167) <sup>**</sup>	0.636
기관이용(1=이용)	-0.627(0.148) <sup>***</sup>	0.534	-0.710(0.183) <sup>***</sup>	0.492	-0.144(0.361)	0.866
(상수)	-1.919(0.557) <sup>**</sup>	0.147	-2.603(0.753) <sup>**</sup>	0.074	-1.828(0.978) <sup>#</sup>	0.161
-2Log likelihood	2588.482		1422.242		1144.984	
X <sup>2</sup> (df=16)	1078.8 <sup>***</sup>		613.2 <sup>***</sup>		477.3 <sup>***</sup>	
유사 R <sup>2</sup>	0.283		0.298		0.271	
(수)	(3,278)		(1,749)		(1,529)	

주: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이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모의 경우 연령이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서 모 연령과 같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수록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는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는 연령이 아직 어려 기관에 보내

지 않고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아의 경우는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과 상관없이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함을 알 수 있다.

〈표 VII-3-6〉 영아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 (수=1,171)

구분	B(표준오차)	Exp(B)
(상수)	7.07(1.41) <sup>***</sup>	
<b>가구 및 부모특성</b>		
가구원수	-1.01(0.13) <sup>***</sup>	0.37
아동수	0.12(0.28)	1.13
거주지(준거: 읍면)		
대도시	-0.10(0.29)	0.91
중소도시	-0.01(0.30)	1.00
주택(준거: 비소유)		
주택소유	-0.26(0.20)	0.77
가구소득(만원)	-0.00(0.00)	1.00
모취업(준거: 미취업)		
모취업	-3.20(0.22) <sup>***</sup>	0.04
모학력(준거: 대학원)		
중	2.19(0.89) <sup>*</sup>	8.90
고	1.28(0.53) <sup>*</sup>	3.59
2.3년제 대학	1.22(0.54) <sup>*</sup>	3.40
4년제 대학	1.17(0.52) <sup>*</sup>	3.21
부 직종(준거: 무직 등)		
전문·준전문가	-0.50(0.67)	0.61
사무직	-0.34(0.67)	0.71
판매서비스업	0.07(0.67)	1.07
기능종사자, 농어업	-0.07(0.66)	0.93
<b>아동특성</b>		
아동연령	0.18(0.12)	1.20
성별(준거: 여)		
남	-0.29(0.20)	0.75
출생순위(준거: 셋째이상)		
첫째아	-2.45(0.59) <sup>***</sup>	0.09
둘째아	-1.51(0.44) <sup>**</sup>	0.22
건강상태(준거: 질병, 장애)		
건강	0.35(0.57)	1.42
-2 Log Likelihood	766.34	
X <sup>2</sup> (df)	518.6(21) <sup>***</sup>	
Nagelkerke R <sup>2</sup>	0.48	

주: \* p< .05, \*\* p< .01, \*\*\* p< .001.

자료: 나정, 서문희, 이미화, 김문정(2006). 「2004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200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심층분석한 나정(2006) 등의 연구에서는 영아의 혈연 보육 이용 비율이 높고 이웃모 등 비혈연에 의한 지원도 있어 영아의 비공식 보육 서비스 이용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영아의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가구원수, 모학력, 모취업, 출생순위로 나타났다. 즉, 모가 미취업 상태이고 가구원수가 적으며, 출생순위가 낮을 때 영아의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다(표 VII-3-6 참조).

2004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면, 분석 변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2004년과 2009년 모두 공통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취업과 출생순위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2004년과 2009년 모두 부적으로 나타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취업은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즉, 2004년은 모가 미취업상태일수록, 2009년은 모가 취업상태일수록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가구원수와 모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 2009년은 거주지역과 가구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2004년에는 비공식 보육서비스 중에서도 혈연에 의한 보육서비스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공식보육서비스 이용이 비교적 많았고, 비용을 덜 지불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취업모나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더욱 이용하는 경향을 보여 비용을 지불하는 비공식보육서비스 이용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나) 혈연 보육서비스

비공식 보육서비스 중 혈연인에 의한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VII-3-7>과 같다.

가구특성은 비공식 보육서비스 전체와 마찬가지로 친조모, 외조모 동거와 거주지역, 가구소득이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친조모나 외조모와 동거할 경우 비공식 보육서비스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조모나 외조모와 동거할 경우 손자녀를 자연스레 양육해 주기도 하고, 반대로 혈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동거하기도 한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도 비공식 보육서비스 전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읍·면지역보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혈연 보육서비스를 더욱 이용함을 알 수 있다. 유아의 경우는 대도시만 읍·면지역에 비하여 혈연 보육서비스를 더욱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혈연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는 영아와 유아에 따라 차이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는 전체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혈연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영아의 경

우에는  $p < .10$  수준에서 가구소득별 차이가 나타나, 영아는 가구소득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7〉 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모형1(전체)		모형2(영아)		모형3(유아)	
	B(표준오차)	Exp(β)	B(표준오차)	Exp(β)	B(표준오차)	Exp(β)
가구원수	0.100(0.150)	1.106	0.230(0.211)	1.259	-0.048(0.218)	0.953
자녀수	0.209(0.206)	1.233	0.370(0.322)	1.447	0.231(0.291)	1.259
친조부 동거(1=동거)	0.101(0.296)	1.106	-0.121(0.385)	0.886	0.449(0.492)	1.567
친조모 동거	1.952(0.247) <sup>***</sup>	7.043	1.908(0.333) <sup>***</sup>	6.743	2.020(0.382) <sup>***</sup>	7.536
외조부 동거	0.383(0.432)	1.466	0.401(0.606)	1.493	0.328(0.624)	1.388
외조모 동거	2.104(0.325) <sup>***</sup>	8.201	1.688(0.433) <sup>***</sup>	5.406	2.620(0.497) <sup>***</sup>	13.730
거주지역(준거=읍면)						
대도시	0.853(0.160) <sup>***</sup>	2.347	0.909(0.222) <sup>***</sup>	2.482	0.748(0.235) <sup>**</sup>	2.112
중소도시	0.587(0.162) <sup>***</sup>	1.799	0.807(0.225) <sup>***</sup>	2.241	0.276(0.236)	1.317
가구소득	0.001(0.000) <sup>***</sup>	1.001	0.001(0.000) <sup>#</sup>	1.001	0.002(0.000) <sup>***</sup>	1.002
모연령	-0.039(0.014) <sup>**</sup>	0.962	-0.030(0.018) <sup>#</sup>	0.971	-0.058(0.022) <sup>**</sup>	0.943
모학력(1=대졸이상)	0.183(0.113)	1.201	0.231(0.152)	1.260	0.152(0.172)	1.164
모취업(1=취업)	2.127(0.117) <sup>***</sup>	8.386	2.254(0.162) <sup>***</sup>	9.525	1.997(0.174) <sup>***</sup>	7.371
아동연령	-0.054(0.043)	0.947	-0.121(0.102)	0.886	0.082(0.095)	1.085
아동성별	-0.072(0.101)	0.931	0.070(0.135)	1.073	-0.255(0.155)	0.775
출생순위	-0.387(0.131) <sup>**</sup>	0.679	-0.653(0.236) <sup>**</sup>	0.520	-0.300(0.171) <sup>#</sup>	0.741
기관이용(1=이용)	-0.548(0.149) <sup>***</sup>	0.578	-0.603(0.181) <sup>**</sup>	0.547	-0.224(0.362)	0.799
(상수)	-1.953(0.564) <sup>**</sup>	0.142	-2.779(0.755) <sup>***</sup>	0.062	-1.406(0.995)	0.245
-2Log likelihood	2543.692		1417.200		1108.744	
X <sup>2</sup> (df=16)	989.5 <sup>***</sup>		545.5 <sup>***</sup>		453.7 <sup>***</sup>	
유사 R <sup>2</sup>	0.263		0.270		0.259	
(수)	(3,278)		(1,749)		(1,529)	

주: #  $p < .1$ , \*  $p < .05$ , \*\*  $p < .01$ , \*\*\*  $p < .001$ .

모 특성으로는 모 연령과 모취업이 유의하게 나타나, 모 연령이 낮고 모가 취업한 경우 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연령의 경우 영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 특성으로는 아동의 출생순위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혈연에 의한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이 높는데, 유아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의 영향이  $p < .10$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혈연에 의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경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비공식 보육서비스 전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 다) 비혈연 보육서비스

비혈연에 의한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석에서는 조부모 동거 변수를 제외시켰다. 비혈연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중, 조부모와 동거하는 가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력 분석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먼저 가구특성으로는 가구원수, 자녀수, 거주지역, 가구소득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비공식 보육서비스 전체나 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가구원 수와 자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은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II-3-8〉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모형1(전체)		모형2(영아)		모형3(유아)	
	B(표준오차)	Exp(β)	B(표준오차)	Exp(β)	B(표준오차)	Exp(β)
가구원수	-0.684(0.235)**	0.505	-0.390(0.256)	0.677	-1.587(0.512)**	0.204
자녀수	1.617(0.417)***	5.036	1.929(0.702)**	6.885	2.167(0.695)**	8.736
거주지역(준거=읍면)						
대도시	-0.841(0.348)*	0.431	-1.218(0.471)*	0.296	-0.388(0.564)	0.678
중소도시	-1.155(0.372)**	0.315	-1.146(0.488)*	0.318	-1.211(0.633)#	0.298
가구소득	0.003(0.001)***	1.003	0.003(0.001)***	1.003	0.004(0.001)***	1.004
모연령	0.054(0.024)*	1.055	0.043(0.036)	1.044	0.068(0.030)*	1.070
모학력(1=대졸이상)	0.490(0.357)	1.632	0.842(0.538)	2.321	-0.183(0.521)	0.832
모취업(1=취업)	1.987(0.341)***	7.297	2.154(0.438)***	8.615	1.710(0.570)**	5.531
아동연령	-0.067(0.113)	0.935	-0.363(0.250)	0.696	0.367(0.265)	1.443
아동성별	-0.572(0.272)*	0.564	-1.792(0.458)***	0.167	0.811(0.444)#	2.249
출생순위	-0.985(0.325)**	0.373	-1.271(0.629)*	0.280	-1.300(0.444)**	0.273
기관이용(1=이용)	-1.121(0.387)**	0.326	-1.157(0.488)*	0.314	-0.478(1.231)	0.620
(상수)	-4.646(1.125)***	0.010	-4.079(1.507)**	0.017	-6.573(2.335)**	0.001
-2Log likelihood	503.614		266.648		199.430	
χ <sup>2</sup>	158.001(12)***		121.787(12)***		72.426(12)***	
유사 R <sup>2</sup>	0.048		0.068		0.047	
(수)	(3,278)		(1,749)		(1,529)	

주: # p< .1, \* p< .05, \*\* p< .01, \*\*\* p< .001.

이러한 결과는 혈연 보육서비스의 경우 조부모 동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혈연 보육서비스의 경우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아 가구수가 적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녀수가 많은 경우 비혈연 보육서비스를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읍면지역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이용이 높게 나타나, 앞서 살펴본 비공식 보육서비스 전체나 혈연과 비교하여 그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지역에 따른 이용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영아와 유아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이 높았다.

모 특성으로는 모연령과 모취업이 유의하게 나타나, 모연령이 높을수록 모가 취업할 경우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연령에 의한 차이는 영아의 경우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 특성으로는 아동 성별, 출생순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유의하게 나타나, 아들일수록,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기관 이용을 하지 않을수록 비혈연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공식 보육서비스 중 비혈연에 의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용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에서 조부모 동거를 제외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에 모취업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에서는 모취업여부 변수 대신 모근로시간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결과 모연령과 모근로시간이 비혈연에 의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연령이 높을수록, 모근로시간이 길수록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모연령의 경우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용에서는 부적의 관계가 나타나 모연령이 낮을수록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시간에서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나 모연령이 높을수록 비혈연에 의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여부는  $p <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VII-3-9〉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분	모형1(전체)			모형2(영아)			모형3(유아)		
	B	표준오차	βeta	B	표준오차	βeta	B	표준오차	βeta
(상수)	-48.821	36.446		-44.816	53.977		-32.640	71.274	
가구원수	0.785	5.444	0.023	-2.705	7.313	-0.086	5.289	15.323	0.182
자녀수	-4.922	10.434	-0.121	-6.878	22.502	-0.171	1.580	18.961	0.053
거주지역(준거=읍면)									
대도시	9.709	8.304	0.176	12.384	15.617	0.222	1.313	16.658	0.034
중소도시	8.365	9.307	0.144	-0.813	15.908	-0.014	2.994	16.393	0.072
가구소득	0.017	0.011	0.175	0.012	0.017	0.136	0.038	0.026	0.447
모연령	1.876*	0.893	0.313	1.189	1.515	0.189	-0.046	1.639	-0.010
모학력(1=대졸이상)	5.672	10.556	0.072	11.366	23.155	0.110	8.520	14.109	0.186
모 근로시간	0.902**	0.285	0.344	1.336**	0.448	0.514	-0.012	0.484	-0.006
아동연령	-4.455	3.012	-0.312	-0.587	9.586	-0.017	-2.495	7.041	-0.104
아동성별	-9.401	7.048	-0.169	1.285	14.575	0.018	2.871	11.562	0.067
출생순위	-9.738	8.282	-0.216	-6.635	23.193	-0.150	9.373	11.801	0.267
기관이용(1=이용)	-20.099#	11.510	-0.365	-27.202	20.996	-0.387	-15.665	24.408	-0.146
돌보는 아동수	8.862	7.898	0.218	7.584	16.834	0.178	7.634	13.399	0.278
조정된 R <sup>2</sup>	0.470			0.268			0.316		
F	4.591***			1.845			1.766		
(수)	(54)			(31)			(23)		

주: # p< .1, \* p< .05, \*\* p< .01, \*\*\* p< .001.

## 나.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비용 및 영향 요인

### 1)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비용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할 경우 이용 비용은 <표 VII-3-10>과 같다. 혈연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은 평균 29만 8천원,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은 47만 2천원으로 비혈연 보육서비스 비용이 혈연 보육서비스 비용에 비하여 1.5배 이상 높다. 이는 혈연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불하더라도 조부모나 친인척이라는 특성 때문에 업체를 통한 비혈연에 비하여 비용을 적게 지불하는 경우가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불하는 비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비혈연 이용하는 0세의 경우 63만 4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I-3-10〉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혈연			비혈연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97.7	261.8	(329)	471.6	341.7	(68)
0세	374.7	291.1	( 73)	634.2	358.3	(20)
1세	360.8	288.1	( 59)	515.7	352.9	(13)
2세	294.3	232.0	( 53)	435.1	292.9	( 9)
3세	239.3	147.6	( 48)	378.8	222.1	( 6)
4세	218.1	164.5	( 49)	375.4	301.6	( 6)
5세	245.6	334.4	( 47)	301.8	330.1	(14)

## 2)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 보육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혈연과 비혈연 각각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지불 비용이고, 독립변수는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시 사용한 변수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나 모취업여부 대신 모 근로시간을 포함시켰다. 또한 혈연 및 비혈연 보육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아동수를 포함시켰다.

### 가) 혈연

혈연에 의한 보육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과는 <표 VI-3-11>과 같다.

혈연에 의한 보육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 모 근로시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모 근로시간이 길수록, 반일제 기관 이용을 하지 않을수록 혈연에 의한 보육서비스 비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 전체는 23.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근로시간은 혈연에 의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과 비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모 근로시간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유아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혈연에 의한 보육서비스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혈연에 의한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한다고 볼 수 있다. 기관 이용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면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I-3-11〉 혈연 보육서비스 비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분	모형1(전체)			모형2(영아)			모형3(유아)		
	B	표준오차	Beta	B	표준오차	Beta	B	표준오차	Beta
(상수)	445.489*	219.165		416.483	304.432		-46.488	374.251	
가구원수	-60.624	42.409	-0.241	-69.420	98.386	-0.237	-13.200	53.431	-0.064
자녀수	-21.124	72.983	-0.047	-91.772	147.788	-0.191	-12.942	97.506	-0.031
친조부 동거(1=동거)	29.159	97.224	0.024	-32.728	175.175	-0.025	78.866	135.815	0.080
친조모 동거	-20.843	69.784	-0.024	40.434	116.647	0.043	-138.363	106.024	-0.187
외조부 동거	-42.047	98.857	-0.035	-105.336	195.896	-0.078	42.640	137.159	0.044
외조모 동거	113.732	92.068	0.125	205.642	146.386	0.202	-64.669	138.718	-0.087
거주지역(준거=읍면)									
대도시	-9.692	51.714	-0.018	-0.013	72.849	0.000	-20.622	77.947	-0.043
중소도시	-3.508	52.784	-0.006	-8.398	73.915	-0.015	29.730	81.039	0.060
가구소득	0.411***	0.069	0.361	0.379***	0.097	0.310	0.388***	0.104	0.402
모연령	-1.638	5.006	-0.021	-0.678	7.052	-0.008	3.933	7.867	0.059
모학력(1=대졸이상)	0.852	38.433	0.001	51.189	55.606	0.073	-31.531	55.213	-0.060
모 근로시간	2.864*	1.280	0.122	3.713*	1.844	0.148	1.799	1.900	0.090
아동연령	-0.829	12.767	-0.005	-4.764	28.882	-0.014	20.765	29.588	0.073
아동성별	15.720	29.915	0.029	42.787	40.376	0.076	-15.589	46.070	-0.032
출생순위	-32.536	43.748	-0.072	-20.298	96.093	-0.042	-17.193	53.701	-0.045
기관이용(1=이용)	-107.607*	42.057	-0.198	-102.837#	52.683	-0.157	-6.079	94.808	-0.006
돌보는수	-24.306	41.520	-0.055	-17.459	56.661	-0.037	-11.673	65.804	-0.029
조정된 R <sup>2</sup>	0.233			0.281			0.056		
F	6.065***			4.587***			1.442		
(수)	(284)			(157)			(127)		

주: #  $p < .1$ , \*  $p < .05$ , \*\*\*  $p < .001$ .

#### 나) 비혈연

비혈연에 의한 보육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VII-3-12>와 같다. 비혈연에 의한 보육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과 돌보는 시간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돌보는 아동수는  $p <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전체는 59.8%의 설명력을 갖는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돌보는 시간이 길수록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함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과 돌보는 시간의 영향은 영유아 전체와 영아의 경우에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I-3-12〉 비혈연 보육서비스 비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분	전체			영아			유아		
	B	표준오차	Beta	B	표준오차	Beta	B	표준오차	Beta
(상수)	-287.495	403.941		-165.132	500.280		-1,521.158	1,475.914	
가구원수	91.914	56.824	0.226	72.805	66.712	0.205	452.887	328.176	1.099
자녀수	-102.812	110.695	-0.214	-160.154	205.024	-0.351	-528.285	376.140	-1.251
거주지역(준거=읍면)									
대도시	1.438	93.886	0.002	124.783	144.498	0.196	-336.416	497.087	-0.600
중소도시	-1.308	101.657	-0.002	65.045	144.563	0.099	-278.633	422.660	-0.475
가구소득	0.363**	0.124	0.306	0.389*	0.157	0.382	0.106	0.584	0.085
모 연령	14.646	10.086	0.204	7.108	14.012	0.100	29.702	34.404	0.468
모 학력(1=대졸이상)	163.960	114.615	0.170	151.621	211.882	0.129	343.518	324.547	0.513
모 근로시간	-1.293	3.866	-0.038	-0.601	5.020	-0.020	-0.480	13.118	-0.013
아동연령	-54.469	33.664	-0.319	-12.242	87.115	-0.031	-0.201	155.690	-0.001
아동성별	-59.170	75.915	-0.089	-26.592	132.468	-0.034	-143.087	230.810	-0.219
출생순위	-48.883	91.150	-0.091	161.157	211.247	0.321	85.774	264.203	0.168
기관이용(1=이용)	176.565	129.957	0.268	196.248	199.946	0.246	299.295	503.951	0.202
돌보는 수	-144.118#	84.314	-0.299	-289.289#	153.870	-0.597	-194.204	333.663	-0.497
돌보는 시간	6.036**	1.784	0.508	5.902*	2.200	0.519	8.483	7.319	0.588
조정된 R <sup>2</sup>	0.598			0.531			-0.172		
F	6.389***			3.436*			0.795		
(수)	(52)			(31)			(21)		

주: # p< .1, \* p< .05, \*\* p< .01, \*\*\* p< .001.

####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의 양육지원 서비스 중,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특성을 살펴보고, 이용과 지불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친조모 동거, 외조모 동거, 거주지역, 가구소득, 모연령, 모취업, 아동 출생순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이나 모 연령,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등은 영아와 유아에 따라 유의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 요인 결과는 비공식 보육서비스 전체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은 비공식 보육서비스 전체와 혈연 보육서비스와 달리 가구원수, 자녀수, 아동성별 요인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모 연령과 모 근로시간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혈연 및 비혈연 보육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혈연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은 가구소득과 모 근로시간, 반일제 이상 기관이용이,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은 가구소득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시사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이유 및 이용자 특성을 자녀 연령이나 모취업, 가구소득 등에 국한하지 말고, 자녀양육과 가사부담, 부모 가치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모 연령이 낮고 자녀의 출생순위가 낮을 경우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더욱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의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취업하지 않은 모도 28.5%가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 취업이나 자녀의 연령이 어려 보육시설 등의 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만 보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첫째아를 출산한 모 연령이 낮은 경우 힘들게 본인이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을 꺼리거나 자녀양육 이외에 가사 도움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비공식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이용자 파악을 통해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영아와 유아의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 연령에 따라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유아의 경우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는 기관 이용과 상관없이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함을 나타내었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유아의 경우 기관과 중복하여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공식 보육서비스가 유아의 경우 기관 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영아의 경우 기관 이용 대신 이용하기 때문에 영아를 자녀로 둔 가구의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 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은 있지만 가구와 아동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공식 보육서비스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하는 경향이 높고,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은 혈연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의 1.5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의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정도의 지원이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도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만, 가구소득이

나 모 취업특성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가 있거나 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들에게 우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조부모 등의 혈연 보육서비스가 있는 가구는 혈연인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이용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혈연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비혈연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조부모와 동거하는 가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혈연이 있는 경우 혈연을 우선 이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부모 양육수당과 같은 지원 제도 마련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혈연인의 경우 사설업체 등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듯이, 영유아를 돌보아 주는 조부모나 친인척 등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제도 등과 연계하여 양육에 관한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나정·서문희·이미화·김문정(2006). 「2004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 박영란·김종숙·임지현(2002).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실태와 대책. 한국여성개발원.
- 배지희·노상경·권경숙(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 현황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139-410.
- 보건복지부(2010). 2010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 서문희(2002).
- 서문희·김은설·장혜경·박수연(2008).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 노동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신나리·이정원·이세원(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통계청(2003). 2002년 사회통계조사.

## VIII.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추가출산 의사

서 문 회<sup>20)</sup>

### 1. 분석 배경 및 내용

#### 가. 분석 내용

중앙정부의 부모 보육료 지원은 차등 지원과 무상보육, 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구분되며,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육료는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부모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비용 지원이다.

현재 일정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부모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소득 50%를 초과하고 60%까지는 기준단가의 60%, 하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0%까지는 기준단가의 30%를 지원한다. 이러한 기준의 상한 소득 기준은 4인가족 소득 기준으로 각각 258만원, 339만원, 436만원이다. 이는 2009년 7월부터 새로이 적용된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소득 기준이다. 2009년 6월까지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영유아가구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을 나누고 그 소득수준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차등보육료 지원 수혜 아동은 2009년 말 기준으로 67만2천여명으로 보육 시설 이용아동의 65.7%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0세아의 비율이 다소 낮다. 이는 보육 시설 이용 0세아의 부모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맞벌이가 많아서 지원 소득기준 범주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0세아 맞벌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그 이외 연령 영유아 맞벌이 가구소득보다 높은 편이다(서문회 외, 2009).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1999년 하반기부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sup>21)</sup> 2009년 현재에는 하위소득

20)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1) 1999~2001년도는 농어촌 지역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2002년 전국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자녀가구 지원으로 2005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비용의 20%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0년 현재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과 무관하게 둘째 이상 자녀는 추가지원으로 하위소득 70%까지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단가의 전액을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 확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영유아보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2년에 3만 4천명이었으나 2009년 12월 기준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67.7%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한편,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에 매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아 1인당 일정 금액을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영아 기본보육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수혜 대상자 등 부모 특성별로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추가 출산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비용 지원에 대한 인지, 비용 지원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지원정책의 만족도 및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추가 출산에 이러한 정책 만족도나 정부 지원정책 수혜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나. 선행 연구

출산수준과 보육정책 등 정부 정책과의 관련성 연구는 주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단위로 추진되어 왔는데, 이러한 외국의 연구들은 그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보육시설, 비용 등을 포괄한 보육정책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은 미약하지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공보육시설 유무는 출산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육정책과 출산수준의 관련성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Sleeboos, 2003; Gauthier, 2001), D'Addio와 Mira d'Ercole(2005)은 OECD 국가들의 사회정책이 출산력에 주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취합하여 보육시설의 이용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출산과 일의 조화를 돕는 강력한 도구이고, 반대로 육아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지원,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지원(도시/농촌 지원단가 일원화), 2006년 농촌 100%, 도시 80% 수준까지 지원.

비용은 출산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2000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추진되면서 정책의 효과성 파악을 위하여 유사한 국내연구들이 추진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아지원과 실제 출산과의 관련성 연구로는 윤홍식(2006)은 2006년 출산과 출산양육지원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한자녀 출산 후 2006년 출산한 가구와 미출산 가구를 비교 분석하여 보육료 지원이 한자녀 가정의 두 번째 자녀 출산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보육 지원을 정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2007)는 설문조사와 프로그램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sup>22)</sup>을 활용하여 저출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가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보편화되면서 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 모형에서 산출 이외에 산출결과(outcome)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산출결과 단계는 정부 활동과 산출물로부터 나오는 편익으로 최초 산출결과(initial outcome), 중간 산출결과(intermediate outcome) 및 장기적인 산출결과(long-term outcome) 등으로 세분화 된다(노화준, 2006). 이러한 논리를 사용하여 총괄부분과 70여개 세부사업 각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산예정이거나 향후 자녀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25.9%가 정부 정책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정부 정책이 최종산출인 출산력 제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으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평가를 하였다.

이삼식 외(2008)는 논리모형을 반영하여 저출산 정책의 논리성과 효과성 평가 모형을 설정하고 시계열 및 2007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보육·교육비지원이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39로 정적 효과를 보였고, 한편, 보육·교육비 지원정책이 여성의 취업여부를 매개로하여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0.02로 미약하나마 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신윤정, 2009)에 의하면 저출산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는 저출산 분야의 중요 정책 중에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정부의 재정투자 노력에 비해 국민들의 정책체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보육료 지

22)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통한 평가는 저출산정책의 수행의 논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검증을 통해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 것임. 프로그램논리모형의 주요 구성요소들은 자원(impact), 활동(activity), 산출물(output), 도달된(reached) 고객, 최초 산출결과(initial output), 중간 산출결과(intermediate outcome), 및 장기적인 산출결과(long-term outcome) 등임.



원 수혜는 추가 출산 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안재진·최혜선 외, 2009)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인 출생순위별 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 지원은 시·군·구 출산 수준 및 출생아 중 둘째아 이상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개인 단위에서 보육료 교육비 지원정책이 자녀 추가출산 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양육비용 지원정책 중에서 차등보육료·교육비, 만5세아 무상 지원, 셋째아 현금지원이 차기 출산 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비용 차등 지원과 만5세아 지원은 직접적 작용 이외에도 정책의 자녀양육부담 완화 효과 인식 제고라는 매개를 통하여 출산 의사에 작용하며, 특히 한 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보육료·유아교육비 차등지원과 출산축하금 수혜경험이 둘째 자녀 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며, 두 자녀 가정에는 비용지원 변수는 추가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보육시설 이용이 추가출산 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자녀양육지원은 추가출산 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그러나 정책변수가 포함되어도 전체적 설명력은 크게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추가출산 의사가 출산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 2. 분석 방법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9년도 전국 보육 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 중 일부이다.

본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일반적인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만족도, 추가 자녀 출산 의사이며, 모나 가구의 특성변수로 모 연령, 모학력, 모취업상태, 자녀수, 소득분위, 거주지, 부부 가사분담, 가족유형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다분류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대한 인지, 보육료·교육비 수혜가 가정경제에 대해 도움을 주는 정도, 보육료·교육비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기술분석으로 살펴보고,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일반적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수혜와 만족도가 자녀 추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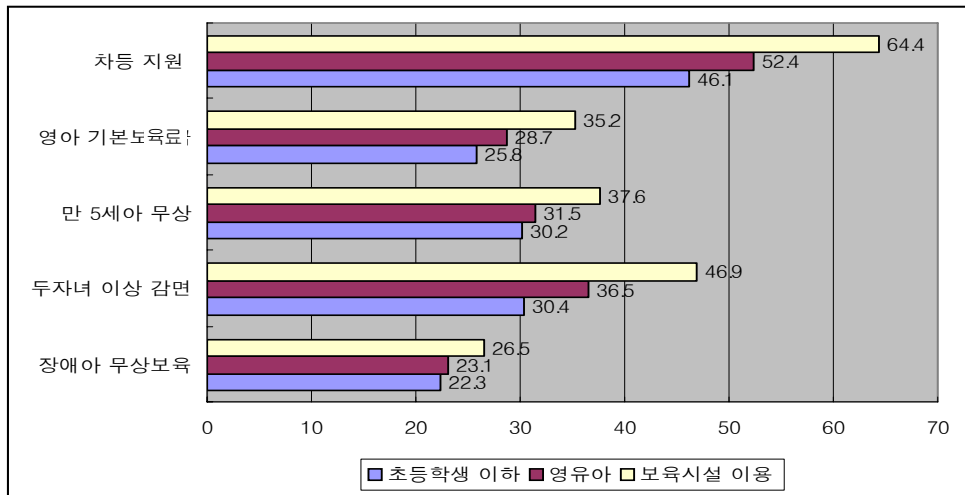
#### 가. 비용 지원에 대한 인지

보육료나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인식은 조사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전반적으로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도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VIII-3-1〉 조사대상별 비용 지원 정책 인지

단위:%(명)

구분	초등학생 이하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잘 압	어느 정도 압	잘 모름	잘 압	어느 정도 압	잘 모름	잘 압	어느 정도 압	잘 모름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감면	46.1	42.3	11.6	52.4	39.6	8.0	64.4	33.4	2.3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25.8	35.5	38.7	28.7	34.9	36.4	35.2	31.2	33.6
만 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30.2	31.6	38.2	31.5	28.0	40.5	37.6	27.7	34.7
두자녀 이상 이용 시 감면	30.4	37.0	32.7	36.5	35.5	28.0	46.9	34.2	19.0
장애아 무상 보육	22.3	25.2	52.5	23.1	24.8	52.1	26.5	25.7	47.9
(수)	(4,897)			(2,547)			(1,328)		



[그림 VIII-3-1] 보육·교육 비용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안다는 비율

초등학생 이하 아동부모, 영유아 부모,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를 구분해 보면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의 정책인지도가 가장 높고, 영유아 부모는 그 비율은 다소 낮아지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 부모에게로 확대하면 인지도는 더욱 더 낮아진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책의 인지도는 낮아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64% 수준이지만 그 이외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다.

〈표 VIII-3-2〉 영유아 부모 중 비용 지원 수혜여부별 정책 인지

단위:%(명)

구분	잘 앎	어느 정도 앎	잘 모름	계	(수)	X <sup>2</sup> (df)
<b>차등지원</b>						
현재 수혜중	72.1	27.7	0.3	100.0	( 793)	349.5(2) <sup>***</sup>
과거 수혜 경험	72.9	27.1	-	100.0	( 282)	
수혜 경험 없음	37.9	48.5	13.6	100.0		
전체	52.3	39.7	8.0	100.0	(1,076)	
<b>영아기본보육료</b>						
현재 수혜중	60.1	37.9	2.0	100.0	( 153)	243.2(2) <sup>***</sup>
과거 수혜 경험	53.6	43.8	2.6	100.0	( 195)	
수혜 경험 없음	24.3	33.9	41.8	100.0		
전체	28.7	34.9	36.4	100.0	( 348)	
<b>만5세아 무상</b>						
현재 수혜중	71.0	26.2	2.8	100.0	( 252)	497.5(2) <sup>***</sup>
과거 수혜 경험	80.2	19.2	0.6	100.0	( 176)	
수혜 경험 없음	22.9	28.9	48.2	100.0		
전체	31.5	28.0	40.5	100.0	( 428)	
<b>두자녀 지원</b>						
현재 수혜중	73.7	25.6	0.6	100.0	( 157)	258.2(2) <sup>***</sup>
과거 수혜 경험	74.6	25.4	-	100.0	( 172)	
수혜 경험 없음	30.9	36.9	32.1	100.0		
전체	36.4	35.5	28.1	100.0	( 329)	
<b>장애아 무상</b>						
현재 수혜중	80.0	20.0	-	100.0	( 20)	na
과거 수혜 경험	100.0	-	-	100.0	( 5)	
수혜 경험 없음	22.5	24.9	52.6	100.0	(2,523)	
전체	23.1	24.8	52.1	100.0	(2,458)	

주: \*\*\* p< .001. na: 통계 산출이 적절하지 않음.

정책 인지도는 정책 수혜와 관련이 있다. 수혜경험이 높은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감면정책은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수혜경험이 낮은 장애아 무상보육은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혜를 받은

경험이 높은 지원정책일수록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아 지원정책 수혜경험과 인지 간에 관계가 있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영유아 부모의 경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정책 인지도가 높아지는 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표 VIII-3-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책의 수혜를 받는 경우 정책 인지도는 매우 높으나, 잘 안다는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다. 정책별로 보면 차등지원은 수혜 유경험 및 현 수혜자가 차이 없이 잘 안다는 비율은 72~73% 수준이고 수혜 경험이 없으면 37.9%로 낮아진다. 두 자녀 지원도 이와 유사하게 지원 경험자는 인지정도가 유사하지만 수혜경험이 없는 경우는 잘 안다는 비율이 30%로 낮아진다. 즉, 정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더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

#### 다. 비용지원의 가정경제 지원 인식

다음은 영유아를 둔 가구의 정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수혜 경험여부별로 수혜 받은 지원 정책이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표 VIII-3-3> 영유아 부모 중 수혜자의 가정경제 지원 효과

구분	별 도움 안됨	어느 정도	많은 도움	계	(수)	X <sup>2</sup> (df)
단위:%(명)						
차등지원						
현재 수혜중	7.7	47.2	45.1	100.0	( 793)	2.8(2)
과거 수혜 경험	11.0	45.6	43.5	100.0	( 282)	
전체	8.6	46.7	44.7	100.0	(1,076)	
영아기본보육료						
현재 수혜중	9.2	56.7	34.0	100.0	(153)	5.9(2)*
과거 수혜 경험	16.9	45.6	37.1	100.0	(195)	
전체	13.2	50.8	36.2	100.0	(348)	
만5세아 무상						
현재 수혜중	1.2	46.5	52.4	100.0	(252)	15.8(2)***
과거 수혜 경험	9.2	40.8	50.0	100.0	(176)	
전체	4.4	44.2	51.4	100.0	(428)	
두자녀 지원						
현재 수혜중	3.8	37.6	58.6	100.0	(157)	10.0(2)**
과거 수혜 경험	8.1	50.0	41.9	100.0	(172)	
전체	6.1	44.1	49.8	100.0	(329)	
장애아 무상						
현재 수혜중	10.5	21.1	62.4	100.0	( 19)	6.2(2)*
과거 수혜 경험	-	80.0	20.0	100.0	( 5)	
전체	8.3	33.3	58.3	100.0	( 24)	

주: \* p< .05, \*\* p< .01, \*\*\* p< .001.

영아 기본보육료만 제외하고 모두 90% 이상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하여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각 지원정책별 가정경제 도움 비율은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95.9%, 장애아 무상보육 92.7%,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 92.1%, 두자녀 이상 이용 시 감면 91.1%, 영아 기본보육료 87.2%이다.

<표 VIII-3-3>을 보면 전반적으로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보육료 차등 지원만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 나. 일반적 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

다음은 영유아 부모의 정부 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은 12.9%이고 보통이 31.9%이며 불만 39.5%, 매우 불만 15.6%로 만족도는 비교적 낮다.

<표 VIII-3-4> 영유아 가구 제 특성별 정부의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정책 만족여부  
단위: %(명)

구 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잘 모름	전체(수)	X <sup>2</sup> (df)
전체	14.8	37.5	30.2	11.7	0.7	5.1	100.0(2549)	
지역규모								
대도시	13.0	39.0	30.6	10.3	0.5	6.6	100.0(1,136)	57.5(10)**
중소도시	19.0	36.3	29.3	10.1	0.9	4.4	100.0( 977)	
읍·면	9.9	36.2	32.0	18.6	0.5	2.8	100.0( 436)	
모취업								
모취업	15.4	37.7	31.5	11.4	0.5	3.5	100.0( 911)	31.0(10)**
미취업	14.8	37.7	29.5	11.1	0.8	6.1	100.0(1,574)	
모부재	6.1	30.3	28.8	28.8	1.5	4.5	100.0( 66)	
소득계층								
99만원 이하	10.2	21.9	34.3	25.8	0.8	7.0	100.0( 128)	228.8(45)**
100~149만원	6.8	25.5	36.2	24.7	1.3	5.5	100.0( 235)	
150~199만원	12.5	30.8	37.9	14.1	0.9	3.8	100.0( 425)	
200~249만원	10.3	34.1	34.7	13.8	1.3	5.8	100.0( 378)	
250~299만원	15.8	43.4	26.2	7.6	1.3	5.7	100.0( 316)	
300~349만원	16.8	40.5	28.7	9.1	0.3	4.6	100.0( 328)	
350~399만원	15.6	42.2	29.9	7.8	-	4.5	100.0( 154)	
400~499만원	23.3	42.9	23.2	5.3	-	5.3	100.0( 245)	
500~599만원	23.9	51.6	13.5	5.2	-	5.8	100.0( 155)	
600만원 이상	17.5	48.6	26.8	3.3	-	3.8	100.0( 183)	

주: \*\* p< .01.

지역별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도시 10% 수준보다 읍·면에서 18.6%로 만족도가 높고,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모 부재 가구가 취업모나 미취업모 가구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수준별 차이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족한다는 비율과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은 낮아지고 불만, 매우 불만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정책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2.43점에 불과한 수준이다(표 VIII-3-4 참조).

비용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정책 수혜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정책별로는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 기본보육료, 만5세아 무상, 두자녀 지원 모두 수혜 현재 경험, 과거 경험, 무경험이 순으로 정책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차이는 5점 척도에도 반영된다. 장애아 무상은 과거 수혜자가 현 수혜자보다 더 만족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5점 척도는 별 차이가 없다(표 VIII-3-5 참조).

〈표 VIII-3-5〉 영유아 부모 중 수혜여부별 비용 지원정책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X <sup>2</sup> (df=8)	단위:%(명)
								5점 척도 평균
전체	15.6	39.5	31.9	12.2	0.7	100.0(2,418)		2.43
차등지원								
현재 수혜중	8.2	28.7	40.0	21.4	1.8	100.0( 785)	230.8***	2.80
과거 수혜 경험	13.5	36.1	34.7	15.7	-	100.0( 272)		2.53
수혜 경험 없음	20.3	46.4	26.7	6.3	0.3	100.0(1,359)		2.20
영아기본보육료								
현재 수혜중	5.3	25.8	45.0	19.9	4.0	100.0( 151)	77.7***	2.91
과거 수혜 경험	17.1	29.5	35.2	16.1	2.1	100.0( 193)		2.57
수혜 경험 없음	16.2	41.4	30.7	11.3	0.3	100.0(2 073)		2.38
만5세아 무상								
현재 수혜중	8.1	21.9	42.9	26.7	0.4	100.0( 247)	105.8***	2.89
과거 수혜 경험	9.9	36.6	37.2	14.0	2.3	100.0( 172)		2.62
수혜 경험 없음	17.0	41.9	30.1	10.3	0.7	100.0(1,988)		2.36
두자녀 지원								
현재 수혜중	8.4	23.2	41.9	25.2	1.3	100.0( 155)	83.3***	2.88
과거 수혜 경험	13.6	26.0	34.9	24.9	0.6	100.0( 369)		2.73
수혜 경험 없음	16.3	41.8	31.0	10.3	0.6	100.0(2,093)		2.37
장애아 무상								
현재 수혜중	5.3	31.6	42.1	15.8	5.3	100.0( 19)	9.4	2.83
과거 수혜 경험	-	50.0	25.0	25.0	-	100.0( 4)		2.81
수혜 경험 없음	15.7	39.6	31.9	12.2	0.7	100.0(2,393)		2.43

주: \*\*\*  $p < .001$ .

〈표 VIII-3-6〉 보육시설 유형 및 지원여부별 월평균 보육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소득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168.1	114.3	53.8	(1,342)	7.4
면제	55.0	10.7	44.3	( 470)	4.6
감면	165.2	108.5	56.7	( 484)	7.8
일반	308.6	246.8	61.8	( 389)	9.6
F	1239.1**	1728.6**	16.0**		78.4**

주: \*\* p< .01.

이는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모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표 VIII-3-6 참조).

다음은 각각 유형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수혜가 일반적인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은 두 가지로 보육료·교육비 지원 수혜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할 경우와 이외에 모의 특성으로 모 연령, 모학력, 모취업상태 변수, 자녀수, 소득분위, 거주지 등 가구 특성을 포함하는 경우의 두 가지 모형으로 실시하였다.

〈표 VIII-3-7〉 일반적 비용 지원정책 만족도 영향 요인 다중회귀분석

구분	모형2				모형1			
	B	표준 오차	$\beta$	t	B	표준 오차	$\beta$	t
(상수)	2.849	0.143		19.88***	2.192	0.022		98.195***
소득분위	-0.051	0.007	-0.158	-6.90***				
모취업(1=취업)	0.100	0.039	0.052	2.56**				
도시거주(1=도시)	-0.145	0.048	-0.058	-3.01**				
대학이상(1=대학이상)	-0.096	0.038	-0.052	-2.50*				
모 연령	-0.004	0.004	-0.020	-0.99				
자녀수	-0.035	0.029	-0.025	-1.23				
차등지원(1=현 수혜)	0.356	0.044	0.181	8.11***	0.506	0.041	0.257	12.48***
영아기본보육료	0.200	0.078	0.053	2.55*	0.181	0.078	0.048	2.31*
만5세아 무상	0.413	0.061	0.134	6.73***	0.481	0.059	0.158	8.10***
다자녀 지원	0.122	0.079	0.033	1.55	0.072	0.078	0.019	0.92
장애아 무상	0.466	0.205	0.044	2.28*	0.462	0.200	0.044	2.31*
R <sup>2</sup>	0.134				0.108			
(수)	(2,359)				(2,423)			

주: \* p< .05, \*\* p< .01, \*\*\* p< .001.

두 가지 모형의 분석결과를 보면 두 모형 모두 다자녀 추가 지원을 제외한 보육료·교육비 지원정책의 현 수혜자가 그 이외 사람들에 비하여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과 만5세아 무상이 유의도가 비교적 높고 장애아 무상과 영아 기본보육료는 상대적으로 유의도가 낮다. 어머니와 가구의 특성이 독립변수로 포함된 경우 소득분위, 모취업 상태, 도시거주, 모 대학이상 학력 변수가 정책 만족도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미취업보다는 취업모, 도시보다는 농촌, 모 대학학력 이상보다는 이하에서 정책만족도가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독립변수들이 만족도 설명력은 모형1이 13%, 모형2가 11% 수준이다(표 VIII-3-7 참조).

이러한 만족도는 2009년 육아정책연구소의 분석(서문희 외, 2009)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섯 가지 양육비용 지원 정책 각각에 대한 인지 및 수혜 여부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도 여러 비용 지원정책 가운데 특히 보육료 및 교육비 차등지원과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수혜 경험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두 정책은 본 분석에서도 유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라. 비용지원의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영향

다음은 보육료·교육비 지원의 효과로 자녀 추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분석은 로짓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영유아 가구와 한 자녀를 가진 가구로 구분하여 두 가지 모형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영유아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보면, 종속변수는 추가 자녀 출산의 사이고 독립변수로는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 영아 기본보육료, 만5세아 무상 보육·교육, 두 자녀 보육료·교육비 추가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교육 등 보육료나 교육비 지원 이외에 모의 특성으로 모 연령, 모학력, 모취업상태 변수가 포함되었고, 자녀수, 소득분위, 가족유형, 부부간 가사분담, 거주지 등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와 보육료 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변수가 포함되었다. 자녀수, 소득분위, 모 연령 및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만족도는 연속변수이고 그 이외 변수는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수혜는 제한적으로 자녀 추가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육료·교육비 지원정책 중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과 두 자녀 추가 지원이 유의도 0.1 수준에서 추가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영아 기본보육료,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



은 별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양육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추가 출산의사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지원 이외 변수로는 모 연령, 자녀수, 모의 취업 상태가 유의도 0.001 수준에서 유의하고, 거주지는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하며, 학력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많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의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보다 농촌, 취업모보다 미취업모가 추가 출산의사가 높으며, 모의 학력은 중학 이상이 중학에 비하여 자녀 추가 출산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소득분위, 부부간 가사분담, 가족유형은 추가출산 의사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의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설명력은 27% 정도이다.

<표 VIII-3-8> 추가출산 의사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전체			한자녀		
	B	표준 오차	Wald	B	표준 오차	Wald
(상수)	3.908***	1.391	7.891	0.261	1.630	0.026
자녀수	-1.967***	0.118	276.452	-	-	-
만족도	0.091	0.067	1.809	0.247**	0.089	7.641
소득분위	-0.008	0.025	0.119	0.010	0.032	0.108
모 연령	-0.151***	0.014	112.040	-0.144***	0.017	70.992
차등지원(기준=미 수혜)	-0.277#	0.146	3.599	-0.357#	0.201	3.161
기본보조금(기준=미 수혜)	-0.039	0.272	0.021	-0.169	0.421	0.161
만5세아 무상(기준=미 수혜)	-0.169	0.233	0.528	-0.685	0.458	2.241
두자녀 지원(기준=미 수혜)	0.512#	0.282	3.300	-	-	-
장애아 무상(기준=미 수혜)	-1.612	1.144	1.987	-1.557	1.255	1.540
모학력(기준= 중학이하)						
고졸	0.658#	0.363	3.280	0.693#	0.398	3.028
대학	0.975**	0.375	6.768	1.218**	0.419	8.437
대학교	0.924*	0.375	6.062	1.140**	0.417	7.478
대학원	1.122*	0.469	5.706	0.956#	0.538	3.152
모취업(기준=미취업)	-0.494***	0.133	13.793	-0.535**	0.170	9.932
가족유형(기준=확대)	0.056	0.166	0.113	0.155	0.203	0.580
가사분담(기준=모 전담)	-0.122	0.140	0.752	-0.194	0.186	1.087
자녀성별(기준=여)	-	-	-	-0.204	0.146	1.967
거주지(기준=도시)	0.496**	0.157	9.962	0.502*	0.219	5.247
-2 Log Likelihood	1924.4			1248.6		
X <sup>2</sup> (df)	709.4(17)			150.5(16)		
Cox and Snell(유사 R <sup>2</sup> )	0.267			0.151		
(수)	(2,283)			(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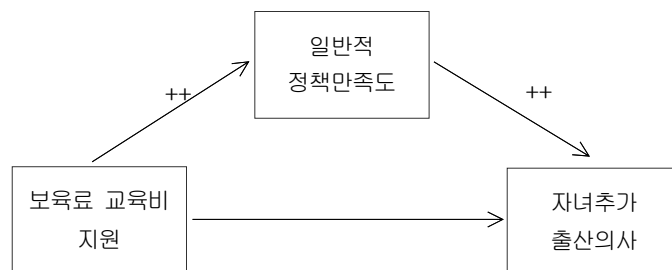
주: # p< .1, \* p< .05, \*\* p< .01, \*\*\* p< .001.

두 번째 모형은 한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모형 1과 동일한 추가 자녀 출산의사이고, 독립변수는 모형1에서 사용된 변수와 비교하여

다자녀 가구 지원과 자녀수 변수가 제외되었고 한 자녀의 성별 변수가 포함되었다.

모형2의 분석 결과를 보면 양육비용 지원정책 유형 중에서는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만이 자녀 추가 출산의사에 부적 방향으로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영아 기본보조금,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 두 자녀 추가지원은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차등 보육료교육비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는 모형1에서 처럼 0.1 수준으로 그 의미는 취약하다. 또한 모형1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던 양육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한 자녀 가정에서는 추가 출산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만족도 변수의 유의도는 0.01 수준이다. 이외 변수로는 모 연령, 모의 취업 상태, 거주지, 모의 학력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방향을 보면, 즉,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추가 출산의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보다 농촌, 취업모보다 미취업모가 추가 출산의사가 높으며, 모의 학력은 중학 이상이 중학에 비하여 자녀 추가 출산 의사가 높은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일하다. 이외에 소득분위, 부부간 가사분담, 가족유형은 추가출산 의사와 무관한 것도 모형1과 동일하다. 한자녀의 성별은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0.15 정도로 모형1보다는 많이 낮았는데, 그 이유는 기존 자녀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연구에서 양육비용 지원정책이 자녀양육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인식과 정책 수혜 정도가 둘째아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로, 양육비용 지원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추가로 둘째아를 출산하겠다는 의사가 높다는 점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비용 지원은 직접보다는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는 가정일수록 추가 출산에 긍정적 생각을 갖게 되겠으나 단순한 지원액보다는 이에 대한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



[그림 VIII-3-2] 추가출산 의사에 대한 회귀분석

####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정부는 최근 수년간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켰으나 출산 수준은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보육료나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이 출산 수준 제고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논리 모형에 근거하여 추가 출산에 이러한 정부 지원정책 수혜가 직접 또는 정책 만족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분석결과, 한 자녀를 둔 경우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는 비용 지원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비용 지원정책 만족도는 두 번째 자녀 추가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즉,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는 초기산출결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가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의 비용 지원은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간접적 효과는 유의함을 증명하였다. 물론 추가 자녀 출산 의사는 중간 출산결과로 최종 출산결과인 추가 출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늦어진 결혼 연령과 가치관, 과도한 사교육 지출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일자리, 주거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비용 지원은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간접적 효과는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두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료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 본 분석에서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일반적 만족도에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수혜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수혜가 이러한 인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요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2011년 들어서 아동 가구의 하위 70%까지 전액 지원 정책을 실시하므로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수혜자 만족도는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특히 낮은 유아교육·보육 지원단가나 민간 중심의 우리나라 보육이나 유아교육 공급 구조상 순수한 보육료나 교육비 이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지원정책 만족도는 두 번째 자녀 추가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2009년 분석결과와도 같다. 그러므로 보육지원 정책은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보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중심으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보육을 더 필요로 하는 취업모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취업모일수록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이나 지원 수혜 만족도가 높다. 현재 취업모는 미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추가 출산 의사가 낮으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방안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셋째, 또한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지원정책 만족도가 두 번째 자녀 추가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보육정책을 통한 출산력 제고 정책 대상으로 한 자녀 가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자녀 등 다자녀 중심의 비용 지원 정책보다는 한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정책이 추가 출산을 통하여 출산수준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2007).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
- 노화준(2006). 정책평가론.
- 대한민국 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서문희·김은설·안재진·최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보육실태조사 보고-가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안재진·최혜선·소마 나오코·안진(2009).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윤홍식(2007). 2006년 출산과 출산 양육지원정책의 관련성.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유계숙·윤홍식·최효진(2008).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Addio, & Mira d'Ercole(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27. OECD, Paris. OECD, DELSA/ELSA/WD/AEM.
- Gauthier, A. H.(1996). *The State and the Family*. Clarendon Press, Oxford.
- Sleebos, Joelle E.(2003). *Low Fertility Rate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 IX.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및 비용 분석

안 재 진<sup>23)</sup>

### 1. 분석 배경 및 내용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의 문제는 일찍부터 저출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을 만큼 심각하다. 통계청의 2008년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교육비가 소득에 비하여 부담된다는 가구가 전체의 79.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가구의 교육비 부담요인으로 많은 부모들이 학원, 과외 등 「보충교육비(73.0%)」라고 응답해, 사실상 사교육비가 교육비 부담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많은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추가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의 출산율 하락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75%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초기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교육업체의 의도가 맞물려(이정원, 2009), 이제는 사교육의 대상이 미취학 아동까지 내려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가 실시한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도 전체 미취학 아동의 32.8%가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아들 중에서는 절반 이상(52.4%)이 이용하고 있어, 유아의 사교육 이용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수이기는 하나 미취학 아동 중 일부(2.3%)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대신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이용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공공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는 대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미취학 아동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였고, 2009년 7월부터는 가구소득 4인 기준 258만원까지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보육료·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에게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기본보조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

23)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그러나 지난 5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반일제 이상 학원과 기타 기관들의 비용 상승과 추가비용의 증가 때문이다(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즉, 부모들이 보육료·유아교육비로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추가비용이나 사교육비로 다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공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사교육이 보편화됨으로써,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유아기에 시작된 사교육 이용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사교육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은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미취학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중에서도 반일제 이상의 학원(유아대상 영어학원, 미술학원, 놀이학원 등)과 시간제 사교육(특기적성 위주로 이루어지는 시간제 기관 및 개별교육)은 이용의 주된 목적이나 이용 양상의 측면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이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대체재 기능을 하고 있다면, 시간제 사교육은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교육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대상 반일제 학원은 조기 영어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와 정규교육·보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불신 등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부모들은 이들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과 보육시설이라는 국가 수준의 정규 보육·교육기관과 기능상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이정원·이윤진, 2008), 이에 따라 유치원, 보육시설과 일종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시간제 사교육과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과의 관계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져 있지 않다.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이용 실태를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이정원·이윤진, 2008; 김보림·엄정애, 2007; 안지영, 2003; 황혜신, 2003;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 2002), 그와 더불어 사교육 이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황혜신, 2003; 이기숙 외, 2002) 및 어머니의 양육관련 특성(김보림·엄정애, 2007; 안지영, 2003)을 함께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일부 연구는 조기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문제행동(백혜정·김현신·우남희, 2005)과 아동발달(우남희·백혜정·김현신, 2005), 초등학교 4학년 때의 학업성취(김기현, 2008) 등 아동의 발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유아가 받고 있는 조기 사교육의 가치

수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백혜정·김현신·우남희, 2005), 유치원 원장들은 조기 사교육이 유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학습요령과 대인관계 측면 등)과 부정적인 영향(과도한 스트레스, 주의산만 및 끈기부족, 이기적 성향, 자율성 부족 등)을 모두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우남희·백혜정·김현신, 2005). 또한, 김기현(2008)에 따르면,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등, 사교육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다.

한편,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로는 이정원(2009), 김기현(2008), 김지경(2004)의 연구가 있는데, 이정원(2009)의 연구는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대상이 포괄적이지 못하며, 세 연구 모두 유치원·보육시설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과 시간제 사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실시하여, 유치원·보육시설 이용과 사교육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이상 아동의 사교육 이용 양상과 유사한(일정 시간 이상의 정규교육을 보완하는 형태인) 시간제 사교육을 중심으로,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이용을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이용현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사교육의 저연령화 현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시간제 사교육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유치원·보육시설 이용과 갖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미취학 아동이라도 영아집단과 유아집단은 발달특성상 사교육 이용 정도와 영향요인이 다를 것이라고 여겨져 통합모형 외에 각각의 집단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은 취학 아동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둘째,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여부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영향 요인은 아동의 연령집단(영아/유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 방법

### 가. 분석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가 실시한 「2009년도 전국 보육

실태조사」 중 가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국 보육실태조사는 전국의 250개 표본조사구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미취학 아동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미취학 아동은 유아가 1,570명, 영아가 1,736명으로 총 3,242명이다.

주요 통계분석방법으로는 기술분석과 사교육비 이용 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나. 주요 변수

본 분석의 종속변수는 시간제 사교육 이용 여부와 사교육 비용으로, 시간제 사교육은 시간제로 이용하는 기관과 개별교육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시간제 기관은 반일제 이상 학원 이외에 아동의 특기교육이나 보습을 위해 다니는 학원과 문화센터 등 시간제 이용기관을 포함한 것이며, 개별교육은 개인 또는 그룹지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지도로, 교재교구를 활용한 교육, 예체능 교육, 교과목 과외, 학습지 활용교육 등이 모두 해당된다. 사교육 비용은 위에서 정의한 시간제 사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모두 합산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크게 아동 관련 특성(아동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과 모의 특성(모의 취업여부, 모의 연령, 모의 학력), 가구 관련 특성(가구소득, 거주지역 규모, 자녀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반일제 기관 이용 여부(유치원, 보육시설, 선교원, 반일제 이상 학원 및 기타 반일제 이상 이용하는 기관 포함)를 포함시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과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반일제 기관에 유치원과 보육시설 외에 선교원, 학원 및 기타 기관들을 모두 포함시킨 이유는 반일제 이상 이용하는 기관들의 경우 그 성격에 관계없이 사실상 유치원 및 보육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부모들이 인식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사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변수(이용 프로그램 가짓수와 프로그램 이용시간)는 프로그램 비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변수이므로, 사교육비 지출을 예측하는 2번째 모형에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주요 변수의 구성은 다음 <표 IX- 2-1>과 같다.



〈표 IX-2-1〉 주요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측정
종속변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여부	이용=1, 미이용=0
	반일제 기관 이용여부	이용=1, 미이용=0
	모취업 여부	취업=1, 미취업=0
독립변수	거주지역	대도시(1) 중소도시(2) 읍면(3)으로 구분하여 더미화 (참조변수=읍면)
	가구소득	만원 단위로 측정된 가구소득 총액을 로그변수로 변환
	모 연령	30세 이하(1), 31~35세(2), 36세 이상(3)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더미화(참조변수=36세 이상)
	모 학력	고졸 이하(1), 대재 이상(2)으로 구분
	이동성별	남아=0, 여아=1로 측정
독립변수	자녀수	가구 내 총 자녀수
	출생순위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순위
	이동연령	아동의 만 연령
	이용 프로그램 수	이용 중인 사교육 프로그램 총 수
	프로그램 이용시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총시간

### 3. 분석 결과

#### 가.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의 사교육 이용 비교

미취학 아동의 제 특성별, 사교육 유형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현황은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발간한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서」 7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현황을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교육과학기술부, 2010)에 나타난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이용과 비교하였다.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포함된 사교육비는 학원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로, 보육실태조사에서 시간제 사교육에 포함되는 항목과 거의 일치한다.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는 보육실태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았으나, 영유아의 경우 이러한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를 거의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비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sup>24)</sup>.

먼저 <표 IX-3-1> 에 나타난 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평균 참여시간을 보면, 미취

24)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의 시간제 사교육 참여율은 85.6%로 나타나 사교육비 조사결과와 유사함. 근소한 차이는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의 포함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짐.

학 아동의 전체 참여율은 취학아동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 참여시간은 2.0시간으로 취학아동 전체의 참여시간인 7.4시간보다 훨씬 적었다.<sup>25)</sup> 전체적으로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52.4%로 전체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비슷하여, 유아의 사교육 참여가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참여시간은 취학아동의 3분의 1 미만으로 적은 편이며, 초등학교에 취학하면서 사교육 참여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별로는 취학아동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는 사교육 참여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읍면지역에서의 참여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교육과 관련된 인프라가 적은 읍면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IX-3-1〉 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참여시간

단위: %, 시간

구분	사교육 참여율	주당 평균 참여시간	지역규모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미취학 아동 전체	32.8	2.0	32.8	35.1	34.6	25.1
영아	15.3	1.2	16.2	17.1	16.3	9.2
유아	52.4	2.2	52.1	56.7	54.3	42.1
취학아동 전체 <sup>1)</sup>	75.0	7.4	79.6	74.6	76.0	67.3
초등학교	87.4	8.6	88.8	88.2	87.3	84.7
중학교	74.3	8.3	76.9	72.4	77.3	65.4
고등학교	53.8	4.3	67.9	55.2	54.3	30.5
일반고	62.8	5.1	74.2	62.4	62.8	39.9
전문고	26.1	2.0	32.5	29.5	26.5	18.3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한편, 사교육에 참여하는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8만 5천원으로 취학아동의 월평균 비용인 32만 3천원에 비해 비교적 부담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 이상 아동의 경우 공교육 체계로 편입되어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이 많지 않은 반면, 미취학 아동은 반일제 이상 기관을 함께 이용하고 있을 경우, 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 1인당 지출되는 전체 교육비는

25)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조사는 유료로 이용한 사교육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중에는 학습지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이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비용지불을 면제받을 뿐 본질적으로는 유료 사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교육 이용시간에 포함시켰음.

취학아동과 비교하여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보육실태조사 결과분석에서도 기관 이용 아동의 1인당 총비용은 13만 2천원, 추가비용은 6만 5천원으로 총 19만 8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유치원과 보육시설 외에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별로 사교육 참여 아동 1인당 지출되는 월 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는 비슷한 규모로 아동 1인당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 타 지역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읍면 지역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지만(표 IX-3-1 참조), 사교육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출하는 1인당 사교육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학아동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X-3-2〉 지역규모별 사교육 참여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sup>26)</sup>

단위: %, 만원

구분	사교육 참여비용	지역규모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미취학 아동 전체	8.5	10.3	7.9	8.3	7.9
영아	6.4	7.2	5.7	6.5	5.7
유아	9.2	11.5	8.7	8.9	8.4
취학아동 전체	32.3	41.6	30.2	32.2	34.5
초등학교	28.1	34.3	26.3	29.1	21.3
중학교	35.0	42.4	32.7	35.4	27.1
고등학교	40.4	55.5	36.4	36.6	26.6
일반고	42.8	58.3	38.6	38.7	27.8
전문고	22.9	29.8	20.7	21.5	23.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한편,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을 살펴보면, 먼저 취학아동과 미취학 아동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취학아동의 90% 이상, 유아의 71.4%가 사교

26) 사교육비 조사결과에는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까지 포함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제시하고 있으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사교육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아동 1인당 지출되는 사교육비가 과소추정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취학 아동 1인당 평균 사교육비를 참여율로 나누어 사교육 이용아동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을 산출하였음.

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학아동의 사교육 참여가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꾸준히 상승하는 것과 달리, 미취학 아동의 경우 소득이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오히려 소득 300만원 이상인 집단보다도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X-3-3〉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단위: %

구분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0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700 미만	700이상
미취학 아동 전체	19.3	24.4	33.1	37.2	39.8	44.5	35.5	46.4
영아	2.9	9.9	16.7	17.4	22.4	21.1	17.3	24.7
유아	33.8	43.3	51.9	60.4	55.0	64.5	53.1	71.2
취학아동 전체	35.3	55.1	72.9	82.6	86.5	88.9	90.1	91.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표 IX-3-4〉 소득수준별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구분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100만원 미만	10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700 미만	700이상
미취학 아동 전체	7.7	6.4	7.1	8.7	9.4	12.2	9.5	15.7
영아	5.7	5.5	5.9	5.7	7.7	7.5	6.8	9.8
유아	7.8	6.6	7.5	9.7	10.0	13.5	10.3	18.1
취학아동 전체	17.3	20.0	24.7	29.8	35.8	41.8	46.6	56.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이러한 양상은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데, 취학아동의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편차가 100만원 미만인 집단과 7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반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지출은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 2배 가량 차이가 나며, 특히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들에서는 집단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교육을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취학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비용의 차이

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해 기관 이용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을 아동의 사교육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300만원 미만 가구들의 집단별 사교육비 지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더라도, 소득계층이 높은 경우,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지출되는 교육비의 총액은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이라도 형편이 허락되는 한 사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이용현황을 취학아동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종합해보면, 미취학 아동 중 유아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52.4%로 유아의 사교육 이용이 이미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 참여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미취학 아동에게서 훨씬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의 대부분이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들이 이미 이들 기관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교육비에 지출하려는 경향은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에서도 볼 수 있는데, 보육료를 지원받는 계층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부모들이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다시 사교육에 재투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능한 많은 비용을 아동의 교육에 투자하려는 높은 교육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이미 유아기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및 비용 영향요인

### 1) 주요 변수의 특성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및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았다(표 IX-3-5 참조).

종속변수인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의 경우 15.3%, 유아의 경우 52.4%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 지출은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전혀 지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와 월 최대 88만원까지 지출하고 있다는 응답까지 편차가 매우 컸으며, 평균적으로 약 8만 5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일제 기관 이용은 영아의 32.3%, 유아의 95.3%가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유아의 경우 반일제 기관의 이용이 거의 의무교육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률은 전체의 34.5%로 2009년도 여성 전체 취업률인 47.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출산과 자녀 양육기에 있는 여성의 취업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X-3-5〉 주요 변수의 특성1

변수	구분	수	비율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율	영아	267	15.3
	유아	816	52.4
반일제 기관 이용비율	영아	563	32.3
	유아	1,487	95.3
모취업 여부	취업	1,113	34.5
	미취업	2,114	65.5
거주지역	대도시	1,318	39.9
	중소도시	1,435	43.5
	읍면	550	16.7
모 연령	30세 이하	915	28.2
	31~35세	1,539	47.4
	36세 이상	793	24.4
모 학력	고졸 이하	1,514	46.6
	대재 이상	1,735	53.4
아동성별	남아	1,689	51.1
	여아	1,614	48.9
총 자녀수	1명	1,010	30.6
	2명	1,769	53.6
	3명	472	14.3
	4명 이상	51	1.5
대상 아동 출생순위	첫째	635	49.5
	둘째	1,301	39.4
	셋째	327	9.9
	넷째 이하	39	1.1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39.9%, 중소도시가 43.5%, 읍면이 16.7%이며, 모의 연령은 31세~35세 사이가 47.4%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하와 36세 이상이 각각 28.2%, 24.4%를 차지했다. 모의 학력은 고졸 이하와 대재 이상으로 구분하였는데, 대재 이상이 53.4%로 고졸 이하(46.6%)보다 많았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1.1%로 여아보다 조금 더 많았다. 가구 내 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으며, 1명이 30.6%로 그 뒤를 이었다. 3명은 14.3%였고, 4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1.5%로 소수였다.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49.5%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둘째가 39.4%, 셋째가 9.9%로 뒤를 이었다. 넷째 이하라는 응답도 1.1%가 있었다.

〈표 IX-3-6〉 주요 변수의 특성2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사교육비 지출(만원)	8.51	8.36	0	88	1,084
가구소득(만원)	300.63	302.246	0	9998	3,299
아동 만 연령	2.39	1.74	0	6	3,303
이용 프로그램 수	1.81	1.13	1	9	1,084
프로그램 이용시간(시간)	2.48	4.23	0.17	60.00	1,083

가구소득은 전혀 없다에서 월 9998만원까지 매우 편차가 컸는데 평균 소득은 300만원 정도였다. 조사대상인 미취학 아동의 평균 연령은 2.4세이고, 사교육 이용 아동의 경우 이용 중인 사교육 프로그램 수는 최소 1가지에서 최대 9가지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 1.8개 정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이용시간의 편차도 매우 커서 주당 0.17시간(10분)에서 60시간까지 분포하고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주당 약 2.5시간을 사교육에 할애하고 있었다.

## 2)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IX-3-7>과 같다. 모형1은 미취학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고, 모형2는 영아집단, 모형3은 유아집단에 대해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먼저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모형1의 카이제곱 값은 922.089로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수의 값을 제외한 모든 계수의 값이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의 분류 정확도는 74.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모형2와 모형3의 경우도 카이제곱 값이 각각 280.317, 170.213으로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의 분류 정확도도 84.4%, 64.4%로 비교적 높았다.

이러한 모형의 적합성을 근거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반일제 기관 이용은 사교육 이용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사교육 이용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일제 기관 이용의 영향력은 영아집단과 유아집단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영아의 경우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사교육 이용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유아의 경우  $p=.10$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여 반일제 기관 이용이 사교육 이용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95% 이상이 반일제 기관 이용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는 부모가 확고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경우 사교육 이용도 거부하거나 이용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일 수 있다. 반면 영아를 둔 부모는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기에 자녀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되는 경우 먼저 시간제 기관이나 개별교육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교육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X-3-7〉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모형1(전체)		모형2(영아)		모형3(유아)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반일제기관 이용	-0.332*	0.137	-0.781***	0.187	0.449#	0.265
모취업	-0.494***	0.102	-0.727***	0.193	-0.377**	0.120
거주지역						
대도시 거주	0.435**	0.135	0.550*	0.250	0.405*	0.162
중소도시 거주	0.496***	0.133	0.662**	0.249	0.459**	0.160
월 가구소득(로그)	1.404***	0.200	1.511***	0.344	1.303***	0.249
모 연령						
30세 이하	-0.044	0.137	-0.201	0.230	0.026	0.179
31세~35세	0.091	0.111	-0.020	0.212	0.165	0.130
모 학력(대재 이상)	0.270**	0.096	0.586**	0.167	0.150	0.120
아동 성별	-0.049	0.088	-0.201	0.148	0.048	0.111
자녀수	-0.252*	0.105	-0.350	0.226	-0.113	0.120
아동 출생순위	-0.332**	0.104	-0.770**	0.241	-0.193	0.117
아동 만 연령	0.790***	0.041	1.263***	0.116	0.657***	0.070
(상수)	-5.636***	0.518	-5.939***	0.896	-6.066***	0.727
-2Log Likelihood	3143.921		1201.907		1879.622	
X <sup>2</sup>	922.1***		280.3***		170.2***	
유사 R <sup>2</sup>	0.250		0.151		0.108	
분류표에 의한 예측정확도	74.5%		84.4%		64.4%	
(수)	(3,242)		(1,736)		(1,506)	

주: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나머지 변수들의 영향력은 3개 모형에서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자녀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을 수 있으며,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가 자녀와 기관에 동행하거나 방문교육 시 집에 누군가 있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일 것이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사교육 이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지역의 특성에 따른 사교육 이용 양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읍면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취학 아동이 이용할만한 사교육 서비스가 부족할 것으로 여겨진다. 월 가구소득은 시간제 사교육 이용과 정적 관계를 보여,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모의 학력은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모가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이용 가능성은 높았다. 그러나 집단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모의 학력의 영향은 영아집단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녀수와 출생순위는 사교육 이용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자녀수가 많을 경우 사교육 이용으로 인한 비용이 부담스러워 사교육 이용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출생순위가 뒤로 갈수록 자녀의 사교육 이용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첫째 자녀보다 둘째, 셋째 자녀의 사교육 이용 가능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영아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첫째 자녀인 경우 둘째 이상 자녀보다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사교육 이용도 더 어린 연령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만 연령은 세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 전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일한 영아집단 또는 유아집단 내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는 정적으로 유의미했다.

### 3)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의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 1,06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는 사교육 이용 결정요인과 큰 차이가 없으나, 모형 2에서 프로그램 관련 변수인 이용 중인 사교육 프로그램 가짓수와 이용 비용을 함께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을 보면 <표 IX-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1의 수정된  $R^2$ 값은 0.14, 모형2는 0.558로 프로그램 관련 변수를 투입했을 때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이용 수

와 이용시간에 증가할수록 지출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형1과 모형2의 F값은 각각 15.421, 96.694로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선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IX-3-8>은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 중인 전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표 IX-3-8>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전체)

구분	모형1			모형2		
	B	표준오차	$\beta$	B	표준오차	$\beta$
(상수)	-15.377***	2.994		-11.525***	2.151	
반일제기관 이용	-3.046***	0.863	-0.145	-1.056#	0.622	-0.050
모취업	-0.522	0.545	-0.030	-0.172	0.391	-0.010
거주지역						
대도시 거주	1.052	0.781	0.062	0.325	0.560	0.019
중소도시 거주	0.612	0.768	0.036	0.236	0.551	0.014
월 가구소득(로그)	8.289***	1.129	0.234	4.495***	0.818	0.127
모 연령						
30세 이하	0.146	0.786	0.007	-0.694	0.565	-0.033
31세~35세	-0.590	0.590	-0.035	-0.422	0.424	-0.025
모 학력(대재 이상)	0.860	0.527	0.050	0.471	0.378	0.027
아동 성별	-0.119	0.483	-0.007	0.122	0.346	0.007
자녀수	-1.309*	0.551	-0.100	-0.806*	0.396	-0.061
아동 출생순위	-0.513	0.546	-0.038	-0.021	0.392	-0.002
아동 만 연령	2.414***	0.246	0.415	0.539***	0.186	0.093
이용 프로그램 수				4.751***	0.169	0.641
프로그램 이용시간				0.285***	0.042	0.144
조정된 R <sup>2</sup>	0.140			0.558		
F	15.4**			96.7***		
(수)	(1,061)			(1,061)		

주: #  $p < .1$ , \*  $p < .05$ , \*\*  $p < .01$ , \*\*\*  $p < .001$ .

먼저 반일제 기관 이용은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미 반일제 기관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제 사교육에 지출할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월 가구소득은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시간제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수는 시간제 사교육 이용여부 뿐 아니라 시간제 사

교육비 지출에도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 자녀수가 많은 경우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아동 1인당 지출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자원으로 많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 1인당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하며, 이용 프로그램의 수가 많고, 이용시간이 길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증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영아집단과 유아집단에 대해 각각 실시하였다. <표 IX-3-9>를 보면, 영아집단의 경우 모형1에서는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수나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모형1의 수정된  $R^2$ 값은 0.052로 동일한 모형을 유아집단에 적용했을 때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아집단의 사교육비 지출에는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이러한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후속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모형2에서는 프로그램 관련변수를 투입한 결과,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반일제 기관 이용과 이용 중인 사교육 프로그램 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반일제 기관 이용 아동은 대체로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가짓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를 통제했을 때 기관 이용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모 취업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 취업은 사교육 이용 여부에는 부적인 관련성을 갖지만, 사교육비 지출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취업모인 경우 사교육 이용가능성은 낮지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이는 맞벌이의 경우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개인대리양육자 등을 이용하여 사교육 이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직접 자녀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사교육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아집단 내에서는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영아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일수록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상쇄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형2에 투입된 프로그램 관련 변수 중에서 프로그램 이용 수는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프로그램 이용 시간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시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프로그램의 비용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영아의 발달 특성상 단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표 IX-3-9〉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영아

구분	모형1			모형2		
	B	표준오차	$\beta$	B	표준오차	$\beta$
(상수)	-1.562	4.514		-4.464	3.758	
반일제기관 이용	-2.119*	0.847	-0.176	-0.414	0.722	-0.034
모취업	1.322	0.845	0.104	1.891**	0.704	0.149
거주지역						
대도시 거주	0.162	1.188	0.015	0.918	0.990	0.083
중소도시 거주	0.428	1.185	0.039	0.728	0.984	0.066
월 가구소득(로그)	3.415*	1.691	0.140	2.438#	1.407	0.100
모 연령						
30세 이하	-0.142	1.041	-0.012	-0.645	0.871	-0.055
31세~35세	0.365	0.948	0.033	-0.322	0.796	-0.029
모 학력(대재 이상)	0.707	0.768	0.058	0.202	0.639	0.017
아동 성별	-0.135	0.674	-0.012	-0.172	0.561	-0.015
자녀수	-0.605	1.010	-0.066	-0.240	0.840	-0.026
아동 출생순위	-1.027	1.081	-0.101	-0.502	0.899	-0.049
아동 만 연령	0.869	0.592	0.104	-0.699	0.513	-0.084
이용 프로그램 수				4.544***	0.421	0.580
프로그램 이용시간				-0.100	0.065	-0.079
조정된 R <sup>2</sup>	0.052			0.347		
F	2.22*			11.1***		
(수)	(266)			(266)		

주: # p< .1, \* p< .05, \*\* p< .01, \*\*\* p< .001.

다음 <표 IX-3-10>은 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유아의 경우 반일제 기관 이용은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유아의 95% 이상이 기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월 가구소득과 자녀수, 아동의 만 연령이 모형 1, 2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아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가구소득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아동 1인당 돌아가는 자원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유아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학 준비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용 프로그램 수와 이용 시간은 모두 사교육비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아의 경우 이용 프로그램 수가 증가할수록, 장시간 프로그램을 이용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X-3-10〉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유아

구분	모형1			모형2		
	B	표준오차	β	B	표준오차	β
(상수)	-23.326***	4.094		-14.226***	2.836	
반일제기관 이용	-1.925	1.714	-0.038	-1.342	1.180	-0.027
모취업	-0.976	0.660	-0.053	-0.715	0.454	-0.039
거주지역						
대도시 거주	1.406	0.955	0.076	0.384	0.658	0.021
중소도시 거주	0.580	0.932	0.032	0.102	0.642	0.006
월 가구소득(로그)	9.512***	1.380	0.252	4.831***	0.963	0.128
모 연령						
30세 이하	0.498	1.031	0.020	-0.650	0.712	-0.026
31세~35세	-0.800	0.708	-0.044	-0.270	0.488	-0.015
모 학력(대재 이상)	0.911	0.652	0.050	0.467	0.450	0.026
아동 성별	-0.107	0.603	-0.006	0.316	0.415	0.017
자녀수	-1.344*	0.657	-0.089	-0.910*	0.452	-0.060
아동 출생순위	-0.454	0.637	-0.032	0.093	0.439	0.007
아동 만 연령	3.306***	0.390	0.293	1.008***	0.280	0.089
이용 프로그램 수				4.672***	0.186	0.624
프로그램 이용시간				0.423***	0.052	0.197
조정된 R <sup>2</sup>	0.142			0.593		
F	11.9***			83.8***		
수	794			794		

주: \* p< .05, \*\*\* p< .001.

####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이 이용하는 사교육 유형 중 초등학생 이상 아동의 사교육 이용형태와 유사한 시간제 사교육을 중심으로,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이용을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이용현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이

용 양상을 살펴보고,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및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이용 현황을 보면, 이미 유아의 52.4%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어, 유아의 사교육 이용이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교육의 저연령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의 최초 개별교육 이용시기가 평균 23.6개월, (반일제 학원을 포함한) 최초 학원 이용시기가 36.3개월로 나타난 이정원·이윤진(200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교육의 저연령화 현상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기존 연구에서 조기 사교육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지 못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백혜정·김현신·우남희, 2005; 우남희·백혜정·김현신, 2005; 김기현, 2008), 이러한 사교육의 저연령화 현상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관련 연구들을 통해 조기 사교육의 영향을 명확히 밝히고자 노력하는 한편,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남용의 위험성을 알림으로써 부모들의 조기교육에 대한 맹신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적인 측면 이외에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대신, 자녀들과 의미 있는 경험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조기 사교육은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이므로, 부모들이 원하는 경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특기적성 교육이 저렴한 비용으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주민회관이나 복지관 등, 비영리 기관들을 통해 영유아 대상 특기적성 교육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특별활동들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은 자칫 정규 교육·보육과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부모들에게 선택이 '강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 간의 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특별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아동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책적 접근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 김기현(2008). 생애 초기 교육기회와 불평등: 유아교육 경험이 교육지속성에 미치는 효과. 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보림·엄정애(2007).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실태와 어머니 양육신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8), 13-24.
- 김지경(2004).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 연구, 15(3), 67-86.
- 백혜정·김현신·우남희(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 23-43.
-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서」.
- 안지영(2003).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스트레스 및 성취 압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11), 95-111.
-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정원·이윤진(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정원(2009).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취학전 아동의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59(9), 29-55.
- 황혜신(2003). 조기교육에 대한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열린교육연구, 11(2), 69-85.

# X.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김진경<sup>27)</sup>

## 1. 분석 배경 및 내용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자녀보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는 학령기 아동이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오히려 방과후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초등학교생의 방과후 보육에 대한 정책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취업여성 자녀 중 35~40%가 방과 후에 성인의 보호 없이 3~7시간 가량을 혼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윤주, 2003),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76.5%가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류방란·최상근, 2004). 일명 ‘열쇠아동(latchkey child)’이라 불리우며, 학교에서 부모보다 일찍 돌아온 아동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밥이나 간식을 챙겨먹고 직장에서 부모가 돌아오기 전까지 집에 있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보호를 스스로 해야 한다.

정부는 사교육비를 차단하고 방과후 아동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의 변화, 근로 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방치되는 학생들을 방과 후·방학 중 안전하게 보호, 지도하여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예방한다는 취지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몇 가지 거론되었다.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가 부족하여 별도의 전담교사를 채용하지 못하여 학교 교사가 시간을 나누어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휴업일이나 방학 중에 운영을 하기 어렵다. 또한, 프로그램의 전문성 부족으로 보육시간 중 별도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아동이 외부로 다녀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 학원을 다녀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방과 후의 시간을 계속 학교에 머무르는 것은 아동에게 계속 긴장감을 주며 학교에 대한 싫증을 유발하기 때문

---

27)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서영숙·박진옥·서혜진, 2009).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특히 가정과 같은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적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는 전문가적 견해가 대부분이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크나(공선영·박재규·윤연정, 2006; 서문희 외, 2009; 여성부, 2005; 정의중, 2009),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부족한 현실이다.

방과 후 학교보육이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지 않으며, 이에 대한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아동들이 방과 후에 학원이나 개인, 그룹 과외지도를 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김경식, 2003). 초등학교의 과외학습의 이유가 학교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실제로 과외학습을 한 후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대답이 많았다(신종배, 2000). 과외학습의 대중화와 함께 학원수강,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학습지와 방문지도를 묶는 저렴한 학습지 과외, 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팩스를 이용한 과외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이 등장하였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과열 과외의 해소와 그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오히려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가 적절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한 반면, 과외학습 시장이 먼저 적응함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학교교육이 가진 한계성을 보완하며 보다 많은 자율성과 탄력성을 갖고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외학습의 성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외학습이 학교교육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개별적인 잠재 능력을 계발시켜주는 면에서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나친 과외학습비와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은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과외학습으로 인하여 학부모는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생의 39.5%가 '과외를 받지 않으면 친구에 비해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배지연, 2004),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압박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과외학습의 시작은 학생 자신의 선택보다는 학부모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생들의 능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어 이로 인해 학생들은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과도한 과외학습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뛰어 놀아야 할 아동들에게 자칫 균형 잡힌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김정원·이정아·이인경, 2009; 박은영, 2005). 또한, 과외

학습비 부담 능력에 따른 사회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되었으며, 부모의 경제력을 통하여 경쟁 우위가 확보되는 귀속주의 풍토가 강화되었다(김경근, 2009).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가정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아동이 받는 교육의 질적인 차이에 반영되어 극심한 교육 불평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이나 개인·그룹 과외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향이 팽배한 상황이다. 취업여성의 증가로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 후 보육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 제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보육 현황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보육은 어떻게 이뤄지며 아동 및 가구 변인 중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보육공간을 학교, 학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관이나 서비스 미이용인 경우에도 어떤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시간제 학원이나 개인·그룹 과외 등 사교육(프로그램 수, 비용, 이용시간)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경우, 아동 및 가구 변인 중 어떤 요인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 2. 분석 방법

### 가. 분석 자료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실시된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 조사 가구조사' 자료의 일부이다. 2009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250개 표본조사구 15,000가구 중에서 영유아가 있는 2,459가구 중 초등학교 저학년(1, 2, 3학년) 아동이 있는 경우만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1775명의 저학년 아동 개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 나. 사용 변수 및 분석 방법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학교 이용 여부, 방과후 학원 이용 여부, 기관 미이용

여부이다. 방과후 학교에서 이뤄지는 보육,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방과 후 학교이용으로, 일반예체능 및 보습학원, 학원의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은 학원이라는 별도의 공간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방과 후 학원이용으로, 방과 후 어떤 곳도 다니지 않는 경우는 미이용으로 각각 더미화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대한 독립변수로는 아동, 가구 관련 변수들로 총 22개의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원수, 아동 수, 가족유형, 조부모 동거(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부·모의 1주일 당 근로시간, 거주지, 주택, 가구 총소득, 월평균 지출액,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모 취업, 모 학력, 모 직종, 부 학력, 부 직종 변수를 사용하였고, 아동 특성으로는 아동연령, 아동성별, 출생순위를 사용하였다.

가족유형은 부부와 가족이 사는 세대를 준거로, 거주지는 도시를 준거로, 주택은 자가를 준거로, 모 취업은 취업을 준거로, 부·모 직종은 전문직을 준거로, 부·모학력은 고졸이하를 준거로 더미화하였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시간제 학원 이용에 관해 분석하기 위해서, 특기학원, 보습학원 등 시간제 학원 이용 수, 이용시간, 이용비용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개인·그룹 과외지도, 학습지 이용에 대한 분석을 위해, 예체능 지도과 교과목 지도 프로그램 이용 수, 이용시간 및 비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분석 결과

#### 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서비스 이용 실태

##### 1) 방과 후 학교 이용 관련요인

22개의 독립변수 중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 학교 이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거주지, 가구 총소득, 부 학력, 부 직종, 아동연령이며, 부 직종은 정적방향으로, 거주지, 가구 총소득, 부 학력, 아동연령은 부적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의 직종이 전문직일수록, 거주지가 도시가 아닌 경우에, 가구 총소득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낮으며,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방과 후 학교이용률이 높았다(표 X-3-1 참조).

〈표 X-3-1〉 방과 후 학교, 학원 이용 및 미이용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

구분	초등학교 특기적성 및 방과 후 보육		예체능 및 보습 학원		방과 후 프로그램 미이용	
	B(표준오차)	β	B(표준오차)	β	B(표준오차)	β
(상수)	0.804(2.011)	2.235	-0.289(1.644)	0.749	1.112(3.767)	3.040
<b>가구특성</b>						
가구원 수	0.004(0.167)	1.004	-0.172(0.139)	0.842	-0.131(0.233)	0.877
아동 수	0.082(0.153)	1.086	-0.194(0.127)	0.824	<b>0.542(0.212)*</b>	1.720
가족유형 (준거=부모+자녀)	-0.087(0.456)	0.917	-0.092(0.402)	0.912	0.001(0.603)	1.001
조부모 동거						
친조부 동거	-0.303(0.467)	0.738	0.597(0.413)	1.817	0.598(0.638)	1.818
친조모 동거	0.369(0.517)	1.447	-0.304(0.450)	0.738	-0.198(0.687)	0.820
외조부 동거	0.035(0.762)	1.036	0.396(0.691)	1.486	-0.546(1.348)	0.579
외조모 동거	0.558(0.642)	1.747	-0.647(0.571)	0.524	0.567(0.915)	1.763
부 주당 근로시간	0.000(0.000)	1.000	<b>-0.001(0.000)#</b>	0.999	0.000(0.001)	1.000
모 주당 근로시간	-0.001(0.002)	0.999	0.000(0.002)	1.000	-0.001(0.004)	0.999
거주지(준거=도시)	<b>-0.305(0.180)#</b>	0.737	-0.112(0.158)	0.894	0.244(0.270)	1.277
주택(준거=자가)	0.038(0.152)	1.038	<b>0.282(0.122)*</b>	1.326	<b>-0.508(0.208)*</b>	0.602
가구 총소득	<b>-0.114(0.043)**</b>	0.892	<b>0.163(0.038)***</b>	1.178	-0.118(0.074)	0.889
월평균 지출액	0.000(0.001)	1.000	0.001(0.001)	0.196	-0.002(0.002)	0.998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0.000(0.000)	1.000	<b>-0.004(0.001)***</b>	0.996	<b>0.004(0.000)***</b>	1.004
모 취업(준거=취업)	-0.230(1.674)	0.795	-0.260(1.352)	0.847	-1.042(3.31)	0.353
모 학력(준거=고졸이하)	0.033(0.191)	1.033	<b>0.352(0.153)*</b>	1.422	<b>-0.731(0.264)**</b>	0.481
모 직종(준거=전문직)	-0.309(0.292)	0.734	0.091(0.236)	1.096	-0.084(0.462)	0.920
부 학력(준거=고졸이하)	<b>-0.397(0.176)*</b>	0.672	0.053(0.135)	1.054	<b>0.362(0.217)#</b>	1.436
부 직종(준거=전문직)	<b>0.354(0.204)*</b>	1.424	<b>-0.466(0.161)**</b>	0.627	0.206(0.274)	1.229
<b>아동특성</b>						
아동 연령	<b>-0.238(0.083)**</b>	0.788	<b>0.245(0.067)***</b>	1.278	<b>-0.253(0.114)*</b>	0.777
성별	0.164(0.145)	1.178	0.010(0.118)	0.931	<b>-0.631(0.205)**</b>	0.532
출생 순위	0.207(0.136)	1.230	<b>-0.355(0.111)**</b>	0.701	<b>0.413(0.182)*</b>	1.511
-2 Log Likelihood	1317.896		1793.897		794.610	
χ <sup>2</sup> (df)	66.080(22)***		301.573(22)***		228.844(22)***	
Nagelkerke R <sup>2</sup>	0.067		0.226		0.276	

주: # p< .1, \* p< .05, \*\* p< .01, \*\*\* p< .001.

## 2) 방과 후 학원 이용 관련요인

방과 후 일반 예체능 및 보습학원, 또는 방과 후 보육학원 등 학원이용과 관련요

인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1주일 당 근로시간, 주택, 가구 총소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모 학력, 부 직종, 아동 연령, 아동 출생순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주택, 가구 총소득, 모 학력, 아동 연령은 정적 방향으로, 부의 1주일 당 근로시간, 가구소득대비 총비용 비율, 부 직종, 출생순위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주택이 자가일 경우,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방과 후에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아버지의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이 낮을수록, 부직종이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 출생순위가 이룰수록 초등학교 방과후 학원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X-3-1 참조).

### 3) 방과 후 프로그램 미이용 관련요인

초등학교 저학년이 방과 후 학교나 학원, 보육시설, 복지기관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아동 수, 주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모 학력, 부 학력, 아동 연령, 아동 성별, 출생 순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부 학력, 출생순위는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 주택, 모 학력, 아동의 연령과 성별은 부적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이 높을수록,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미이용률이 높다. 또한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모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성별이 여아인 경우에 방과 후 학교나 학원, 기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표 X-3-1 참조).

## 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시간제 기관 이용 관련요인

### 1) 시간제 기관 이용 관련변수

#### 가) 프로그램 이용 수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특기교육학원, 보습학원 등 시간제 기관 이용수에 대한 분석결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 총소득, 가구원수, 모 학력, 월평균 지출액,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 출생순위 6개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 모 학력, 월평균 지출액,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은 정적 방향으

로 영향을 미쳤는데, 가구 총소득과 월평균 지출액이 높고, 모 학력이 높고, 가구소득대비 총비용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이 더 많은 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원수와 출생순위는 부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아동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총 6개의 변수가 추가되면 대략 12%의 설명력을 가졌다.

〈표 X-3-2〉 특기교육 프로그램 수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표준오차)	Beta	$\Delta R^2$	누적 $R^2$
(상수)	1.595(0.154)**			
가구 총소득	0.081(0.013)**	0.200	0.081	0.081
가구원수	-0.118(0.033)**	-0.100	0.015	0.096
모 학력	0.165(0.049)**	-0.093	0.009	0.105
월평균 지출액	0.001(0.000)**	0.102	0.006	0.111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0.002(0.001)**	0.070	0.003	0.114
출생순위	-0.108(0.039)**	-0.076	0.005	0.119

주: 1) \*\*  $p < .01$ , \*\*\*  $p < .001$ .

2) 사용한 독립변수 중 아동 수, 친조부·모, 외조부·모 동거, 부·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가족 유형, 거주지, 주택, 모 취업, 부·모 직종, 부·모 학력, 아동 연령, 성별은 제외됨.

#### 나) 프로그램 이용시간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시간제 학원에서 특기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모 취업, 가구 총소득, 친조부 동거,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의 4개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X-3-3〉 특기교육 프로그램 이용 시간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표준오차)	Beta	$\Delta R^2$	누적 $R^2$
(상수)	7.089(0.385)**			
모 취업	1.449(0.285)**	0.137	0.024	0.024
가구 총소득	0.247(0.058)**	0.114	0.010	0.034
친조부 동거	-1.433(0.671)**	-0.056	0.003	0.037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0.008(0.004)*	0.052	0.002	0.039

주: 1) \*  $p < .05$ , \*\*  $p < .01$ , \*\*\*  $p < .001$ .

2) 사용한 독립변수 중 가구원수, 아동 수, 친조모, 외조부·모 동거, 부·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지출액, 가족유형, 거주지, 주택, 부·모 직종, 부·모 학력, 아동 연령, 성별, 출생순위는 제외됨.

모 취업, 가구 총소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은 아동의 특기교육 프로그램 이용시간에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비율이 높을수록 아동은 많은 시간을 특기교육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조부 동거는 부적 영향을 미쳤는데, 친조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아동은 특기교육 학원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다) 프로그램 이용 비용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프로그램 이용 비용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 총소득, 아동 출생순위, 월평균 지출액, 모 학력, 아동 연령,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가구원수 7개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표 X-3-4〉 특기교육 프로그램 이용 비용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표준오차)	Beta	△R <sup>2</sup>	누적 R <sup>2</sup>
(상수)	8.713(32.346)			
가구 총소득	15.180(1.720) <sup>***</sup>	0.279	0.150	0.150
아동 출생순위	-14.786(5.036) <sup>**</sup>	-0.077	0.012	0.162
월평균 지출액	0.117(0.026) <sup>***</sup>	0.137	0.009	0.171
모 학력	23.103(6.325) <sup>***</sup>	0.097	0.007	0.178
아동 연령	13.705(3.578) <sup>***</sup>	0.091	0.007	0.185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비율	0.291(0.088) <sup>**</sup>	0.079	0.006	0.191
가구원수	-12.757(4.179) <sup>**</sup>	-0.080	0.004	0.195

주: 1) \*\* p< .01, \*\*\* p< .001.

2) 사용한 독립변수 중 가구원수, 아동 수, 친조부·모, 외조부·모 동거, 부·모 1주일 평균 근로 시간, 가구 총소득, 월평균 지출액,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가족유형, 거주지, 주택, 모 취업, 부·모 직종, 부·모 학력, 아동 연령, 성별, 출생순위는 제외됨.

가구 총소득, 월평균 지출액, 모 학력, 아동연령,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은 특성 프로그램 학원 이용비용에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월평균 지출액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이 높을수록 특기교육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높았다. 반면, 아동 출생순위와 가구원수는 부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출생순위가 이룰수록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며 지불하는 프로그램 이용비용이 높았다. 6개 변수들의 설명력은 20%정도이었다.

## 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개별·그룹교육지도, 학습지 활용교육 관련요인

### 1) 예체능 지도 이용 관련요인

#### 가) 예체능 지도 수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개별, 그룹교육지도 중 예체능 지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예체능 지도 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았다. 아동연령이 유의하게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동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이 받고 있는 예체능 지도 수는 많았다.

〈표 X-3-5〉 예체능 지도 수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표준오차)	Beta	$\Delta R^2$	누적 $R^2$
(상수)	0.011(0.575)			
아동 연령	0.171(0.078)*	0.221	0.039	0.039

주: 1) \*  $p < .05$ .

2) 사용한 독립변수 중 가구원수, 친조부·모, 외조부·모 동거, 부·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가구 총소득, 월평균 지출액,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가족유형, 거주지, 주택, 모 취업, 부·모 직종, 부·모 학력, 아동 연령, 성별, 출생순위는 제외됨.

#### 나) 예체능 지도 시간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받고 있는 예체능 지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친조부 동거와 거주지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표 X-3-6〉 예체능 지도 시간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표준오차)	Beta	$\Delta R^2$	누적 $R^2$
(상수)	230.576(45.961)***			
친조부 동거	104.426(47.411)*	0.218	0.034	0.034
거주지	-101.746(46.970)*	-0.215	0.036	0.070

주: 1) \*  $p < .05$ , \*\*\*  $p < .001$ .

2) 사용한 독립변수 중 가구원수, 아동 수, 친조모, 외조부·모 동거, 부·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가구 총소득, 월평균 지출액,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가족유형, 주택, 모 취업, 부·모 직종, 부·모 학력, 아동 연령, 성별, 출생순위는 제외됨.

친조부 동거는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친할아버지와 동거를 할수록 예체능 지도 시간이 길었다. 반면 거주지는 부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거주지가



도시가 아닌 경우에 예체능 지도 시간이 더욱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조부 동거의 설명력은 3.5%였으며, 거주지가 추가되면 7%로 증가하였다.

다) 예체능 지도 비용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예체능 지도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 총소득,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 아동 수, 아동연령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 아동연령은 정적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이 높을수록, 아동연령이 높을수록 예체능 지도 비용이 더 높았다. 반면, 아동수가 적을수록 예체능 지도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지도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설명력은 27%정도였다.

〈표 X-3-7〉 예체능 지도 비용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표준오차)	Beta	△R <sup>2</sup>	누적 R <sup>2</sup>
(상수)	-195.406(93.882)*			
가구 총소득	21.223(5.016)**	0.394	0.084	0.084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	4.628(1.167)**	0.389	0.077	0.161
아동 수	-54.601(18.462)**	-0.278	0.069	0.230
아동 연령	24.186(11.038)*	0.195	0.030	0.260

주: 1) \* p< .05, \*\* p< .01, \*\*\* p< .001.

2) 사용한 독립변수 중 가구원수, 친조부·모, 외조부·모 동거, 부·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지출액, 가족유형, 거주지, 주택, 모 취업, 부·모 직종, 부·모 학력, 아동 성별, 출생순위는 제외됨.

2) 교과목 과외 이용 관련요인

가) 교과목 과외지도 수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교과목 과외지도 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아동연령, 가구원수, 거주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동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거주지가 도시가 아닌 경우에 교과목 과외지도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목 과외지도 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설명력으로는 아동연령이 4% 정도였으며, 가구원수가 추가되면 6%, 거주지가 추가되면 9%로 증가하였다.

〈표 X-3-8〉 교과목 과외지도 수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표준오차)	Beta	$\Delta R^2$	누적 $R^2$
(상수)	1.754(0.937)			
아동연령	0.203(0.094)*	0.187	0.031	0.031
가구원수	-0.297(0.115)*	-0.229	0.025	0.056
거주지	-0.610(0.268)*	-0.202	0.032	0.088

주: 1) \*  $p < .05$ .

2) 사용한 독립변수 중 아동 수, 친조부·모, 외조부·모 동거, 부·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가구 총소득, 월평균 지출액,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가족유형, 주택, 모 취업, 부·모 직종, 부·모 학력, 아동 성별, 출생순위는 제외됨.

#### 나) 교과목 과외지도 시간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교과목 과외지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모 학력, 모 1주일 당 근로시간, 월평균 지출액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모 학력, 모 1주일 당 근로시간과 월평균 지출액은 모두 부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일주일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월평균 지출액이 낮을수록 교과목 과외지도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3변수의 설명력을 17%정도 나타났다.

〈표 X-3-9〉 교과목 과외지도 시간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표준오차)	Beta	$\Delta R^2$	누적 $R^2$
(상수)	548.449(66.227)***			
모 학력	-81.263(37.590)*	-0.192	0.085	0.085
모 1주일 당 근로시간	-0.148(0.047)**	-0.269	0.051	0.136
월평균 지출액	-0.312(0.143)*	-0.189	0.025	0.161

주: 1) \*  $p < .05$ , \*\*  $p < .01$ , \*\*\*  $p < .001$ .

2) 사용한 독립변수 중 가구원수, 아동 수, 친조부·모, 외조부·모 동거, 부 1주일 평균 근로시간, 가구 총소득, 가구소득대비총비용 비율, 가족유형, 거주지, 주택, 모 취업, 부·모 직종, 부 학력, 아동연령, 성별, 출생순위는 제외됨.

#### 다) 교과목 과외지도 비용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교과목 과외지도 비용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 아동 수, 가구 총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과 가구 총소득은 정적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이 받는 교과목 과외지도

비용은 높았다. 반면 아동 수는 부적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가구 내에 아동 수가 적을수록 교과목 과외지도 비용이 많았다.

〈표 X-3-10〉 교과목 과외지도 비용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표준오차)	Beta	$\Delta R^2$	누적 $R^2$
(상수)	80.459(36.881)*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	3.708(0.766)***	0.439	0.071	0.071
아동 수	-36.215(12.642)**	-0.252	0.056	0.133
가구 총소득	8.619(3.328)*	0.225	0.039	0.172

주: 1) \*  $p < .05$ , \*\*  $p < .01$ , \*\*\*  $p < .001$ .

2) 사용한 독립변수 중 가구원수, 친조부·모, 외조부·모 동거, 부·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지출액, 가족유형, 거주지, 주택, 모 취업, 부·모 직종, 부·모 학력, 아동연령, 성별, 출생순위는 제외됨.

### 3) 학습지 지도 이용 관련요인

#### 가) 학습지 지도 수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받는 학습지 지도 수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생순위, 아동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가구 총소득, 모 학력, 가구원수 6개의 변인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X-3-11〉 학습지 지도 수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표준오차)	Beta	$\Delta R^2$	누적 $R^2$
(상수)	2.251(0.235)***			
출생순위	-0.206(0.058)***	-0.127	0.007	0.007
아동 수	-0.319(0.073)***	-0.185	0.007	0.014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0.019(0.004)***	0.165	0.010	0.024
가구 총소득	0.056(0.016)**	0.127	0.004	0.028
모 학력	-0.198(0.072)**	-0.100	0.008	0.036
가구원수	0.109(0.055)*	0.083	0.003	0.039

주: 1) \*  $p < .05$ , \*\*  $p < .01$ , \*\*\*  $p < .001$ .

2) 사용한 독립변수 중 친조부·모, 외조부·모 동거, 부·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지출액, 가족유형, 거주지, 주택, 모 취업, 부·모 직종, 부 학력, 아동 연령, 성별은 제외됨.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가구 총소득, 가구원수는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아동은 더 많은 수의 학습지 지도를 받았다. 출생순위, 아동 수, 모 학력은 부적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아동수가 적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수의 학습지 지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학습지 지도 시간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습지 지도 시간 관련 요인으로 부의 1주일 당 근무시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1주일 근무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학습지 지도를 받는 시간은 길었다. 부의 1주일 당 근무시간은 3%정도 설명력을 보였다.

〈표 X-3-12〉 학습지 지도 시간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표준오차)	Beta	$\Delta R^2$	누적 $R^2$
(상수)	45.189(5.168) <sup>***</sup>			
부의 1주일 당 근무시간	0.161(0.031) <sup>***</sup>	0.168	0.028	0.028

주 : 1) <sup>\*\*\*</sup>  $p < .001$ .

2) 사용한 독립변수 중 가구원수, 아동 수, 친조부·모, 외조부·모 동거, 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가구 총소득, 월평균 지출액, 가구소득대비총비용 비율, 가족유형, 거주지, 주택, 모 취업, 부모 직종, 부모 학력, 아동연령, 성별, 출생순위는 제외됨.

#### 다) 학습지 지도 비용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습지 지도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변인으로 가구 총소득, 출생순위,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 아동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X-3-13〉 학습지 지도 비용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

구분	B(표준오차)	Beta	$\Delta R^2$	누적 $R^2$
(상수)	79.139(7.422) <sup>***</sup>			
가구 총소득	3.749(0.637) <sup>***</sup>	0.196	0.022	0.022
출생순위	-9.840(2.282) <sup>***</sup>	-0.139	0.022	0.044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비율	0.809(0.185) <sup>***</sup>	0.160	0.009	0.053
아동 수	-9.505(2.633) <sup>***</sup>	-0.127	0.012	0.065

주 : 1) <sup>\*\*\*</sup>  $p < .001$ .

2) 사용한 독립변수 중 가구원수, 친조부·모, 외조부·모 동거, 부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평균지출액, 가족유형, 거주지, 주택, 부모 취업, 부모 직종, 부모 학력, 아동연령, 성별은 제외됨.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수가 적을수록, 출생순위가 이룰수록 학습지 지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다.

####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서비스 이용 실태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가구 내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방과 후 프로그램을 미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용하는 시간제 특기학원 프로그램 수, 이용비용이 모두 적게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대체관계망이 존재하므로 방과 후 학교나 학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동수가 적으면 예체능 지도 및 교과목 과외 지도, 학습지 지도 비용이 높았다. 가구원수는 그만큼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수가 적을수록 고비용의 학원을 선택하거나, 예체능 등 개인, 그룹과의 지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은 수의 자녀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교육을 실시하는 현 추세를 읽을 수 있다. 이는 사교육 부담으로 인해 자녀를 가능한 많이 출산하지 않으려는 저출산 풍토와 맥을 같이 하며, 다자녀 가구의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의 연령과 출생순위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출생순위가 이질수록 방과 후 학원이용이 많았으며 이용하는 시간제 프로그램 수, 비용이 모두 높았다. 첫째 자녀일수록 부모의 기대와 투자가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서도 연령이 어릴수록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하거나 미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학원이나, 더 많은 수의 예체능 및 교과목 지도를 받았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전문성 측면에서 부모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부모들이 학년이 높아지면서 공교육 외의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함을 보여준다.

셋째,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비율이 낮을수록, 주택이 자가일수록 학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는 고소득층 가구가 학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반대로,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이 높을수록,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즉, 저소득층 가구이며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에 방과 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방과 후 학원을 이용하거나 더 많은 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지불하는 이용비용도 높았던 반면,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학교나 학원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률이 높았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자녀가 교육받는 시간제학원 프로그램의 수와 비용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자녀가 받는 프로그램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시간제 학원 이용시간이 많았는데, 취업모 자녀의 경우 방과 후 시간 대부분을 학원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의 1주일 당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자녀의 교과목 과외지도 시간이 길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 또는 1주일 당 근로시간 등 직업조건에 따라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사교육의 범위나 방법이 달라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아버지의 1주일 근무시간이 자녀의 학습지 지도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직장일로 바쁜 경우에, 자녀는 학습지를 통한 개인학습을 주로 많이 하거나, 학원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무적인 것은 소득수준과 가구원수 및 아동수가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서비스 이용 실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고소득이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출생순위가 이른 경우, 아동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방과 후에 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저소득인 경우,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하거나 어떤 기관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모 자녀인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방과 후 자녀를 많은 시간 학원이나 개인, 그룹과외지도를 통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경제적 형편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적은 자녀수를 출산해서 가장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추세를 읽을 수 있었다. 사교육 억제를 위해 정부는 초등학교 방과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크지 않으며 이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보육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유아기에서 갓 벗어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보육문제는 발달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가 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을 구성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보육을 책임지도록 지원해줄 정책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공선영·박재규·윤연정(2006). 경기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 김경근(2009). 방과후 학교는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가. *교육사회학연구*, 19(1), 1-27.
- 김경식(2003). 학교 학업성적에 대한 과외학습의 효과. *교육사회학연구*, 13(3), 21-41.
- 김정원·이정아·이인경(2009).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아동의 행복감과 스트레스 및 놀이성간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30(3), 37-53.
- 류방란·최상근(2004).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후 학교 내 보육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윤주(2003). 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과후 이동지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2005). 초등학생의 과외학습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연(2004). 초등학생의 학원과외학습 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 및 학교 적응과의 관계.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문희·김은설·안재진·최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보육실태조사 보고-가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영숙·박진옥·서혜전(2009). 방과후 이동지도. *아동학회지*, 30(6), 281-295.
- 신종배(2000). 대구광역시 초등학생의 과외학습 실태 및 문제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부(2005).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 정익중(2009).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고양 : 공동체.

## XI. 맺는 말

본 연구는 2009년도에 실시한 보육·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심층분석하여 자녀 양육과 육아지원기관 이용 및 비용 관련요인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즉 8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1차 조사보고서 발간 이후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정요인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2009년과 2010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 이용의 지속성과 정책 변화에 따른 만족도를 추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심층분석과 추가 조사자료를 통해서 얻어진 실증적인 결과를 토대로 아동 양육에 취약한 가정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보육·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향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와 도출된 시사점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차이 분석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2004년에 비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나타나는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차이가 더욱더 분명해 졌음을 규명하고, 부모부담 완화 정책으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보장되었으나 제공 받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적 측면에서는 격차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서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시설을 일정부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취업모 육아실태 분석에서는 취업모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이 높고, 특히 소득이 높고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으며, 또한 수입이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육아지원기관의 시설설비에 대해 불만족이 컸다고 분석하고, 따라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여 고소득자를 위한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검토, 상업지역, 관광지 관련 사업 종사 취업모가 많은 지역에 주말 및 야간보육 확충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취약가정의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실태 분석 결과로는 취약가정이 비용을 지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정책이나 서비스 만족도도 높으며, 가구소득대비 비율도 일반가구에 비해서는 대체로 낮은 수준임을 밝히고, 그러나 취약가정의 낮은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가계운영의 비용부담은 비율 이상으로 크게 체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보육서비스 관련 분석에서는 서비스 측정기준(SERVQUAL) 기준에 따라 보육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여 정보 제공, 대응성, 안전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및 보육 서비스 관련 정보를 더 많이 부모에게 제공하고, 보육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010년 추구조사 결과 분석에서는 유치원 등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에는 부모 참여 만족도와 경제적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준을 밝혔다. 또한 보육정책에 대한 일반적 만족도는 감면 대상자는 만족도가 높아졌으나 미지원자의 만족도는 낮아졌는데, 감면 대상자는 만족도 증가는 2009년 7월부터 신규 감면 대상에 포함된 사람 및 기존 감면자의 감면 비율 증가의 반응이고 미지원자의 만족정도가 낮아진 것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작용으로, 정책 결과로 파악하였다.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1년간 크게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비공식 부분의 보육에 대한 분석에서는 혈연 비공식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친조모 동거, 외조모 동거, 거주지역, 가구소득, 모연령, 모취업, 아동 출생순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고,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에는 가구원수, 자녀수, 아동 성별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정책제언으로 증가하는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보육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자녀 연령, 모취업 여부, 가구소득 등 지원대상을 면밀히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제안하였다.

유아교육비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및 추가 출산 효과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도는 높지 않은데,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이 추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수혜 자체보다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만5세 이하 무상교육·보육 수혜가 이러한 인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일반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분석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은 점차 보편화, 저연령화 되고 있고, 부모는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아동의 교육비로 지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반일제 기관이용 여부, 모취업여부, 거주지역 규모, 월 가구소득, 자녀수와 출생순위, 아동연령임을 밝혔다. 그러므로 부모교육을 통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사교

육 남용의 위험성과 학습 이외의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한편, 부모들이 원하는 경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특기적성이 저렴한 비용으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초등학생 방과후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적은 자녀수를 출산해서 가장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추세를 읽을 수 있다고 결론짓고, 유아기에서 갓 벗어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문제는 발달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학교가 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을 구성하여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보육을 책임지도록 지원해 줄 정책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보고서는 분석 주제가 다양하고 방대한데, 분석결과 대체로 소득 수준이 영유아 공식·비공식 서비스와 사교육, 초등학생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나 비용에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며, 취약계층이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비교적 높으나 정부의 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는 낮고 비용 지원정책에 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존재하지만 간접적이고 매우 미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정책이나 서비스 만족도로 반영되고 있음도 나타났다.

이러한 구체적 자료들은 앞으로 보육 정책 등 관련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부 록





## 2009년 보육시설 이용 부모 추후조사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2009년 3-5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조사원이 귀하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 보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 조사에 응해주셔서 국가통계 생산과 보육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하는 조사는 2009년 조사 당시 보육시설에 다녔던 아동 부모만 대상으로 그 간의 변동사항과 만족도 등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후속 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한번 더 협조하여 주시면 국가 보육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로만 사용되며 개개인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표 종 류	조 사 구 번 호	거 처 번 호	거 처 내 가 구 번 호	가구조사 일련번호	아동 가구원 번호	아동조사 일련번호
2						

### 조 사 지 칩

- 첨부한 명단은 2009년 봄에 보육시설에 다닌다고 응답한 아동입니다.
- ID는 명단에 있는 6개의 번호를 차례차례 그대로 이기합니다.
- 연령은 파악해서 아동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아동을 중심으로 질문하여야 합니다.
- 명단 중 5세 이상 아동은 올해 6세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것이므로 제외합니다.
- 해당아동이 여러 명이면 나이가 어린 아동을 선택하여 질문하세요.  
(\* 아동 가구원 번호 01은 2009년 조사 당시 막내자녀를 나타냄.)









연구보고 2010-06

---

**아동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육구  
-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심층분석 -**

---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인** 조복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398-7700

팩스: 02)730-3313

**인쇄처** 대명기획 02)2273-1292

---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66-0 93330